

IFRS 도입과 회계신인도

: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 한국회계학회
- 한국회계정보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
- 한국국제회계학회

2021. 11. 10



연구 구성

1장 작성

2장 감사

3장 감독

4장 공시

5장 회계신인도



1장 작성

송민섭(서강대), 이준일(경희대), 정운섭(삼덕회계법인)

목차

- I. 서론
- II. 기준 및 제도의 변화
- III. 기준의 적용
- IV.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 V. 소결

PART

서론

I. 서론

I-1. 연구 배경과 목적

- K-IFRS 도입 후 10년 동안 “회계”와 관련한 기준, 제도, 정보환경, 정보 수요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
 - ‘규칙’에서 ‘원칙’으로 회계기준 접근법 변화
 - 기준 제정 주체의 IASB로 이전
 - 기업 투명성, 정보 신뢰성에 대한 요구 증가와 외감법 개정
 - IT 기술 발달과 비재무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 회계 정보 작성에 가장 중요한 주체는 기업
 - » 기업을 변화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민
 - » 실행의 주체로서 기업의 시각을 이해할 필요
 - 다른 경제 주체와 기준과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기업이 정보 작성의 주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I. 서론

I-2. 연구 내용

- K-IFRS 도입 이후 주요 기준과 제도의 제정 및 개정
 - K-IFRS 제정 및 개정과정과 연구
- K-IFRS 실무 적용
 - 질의회신연석회의/협의체 안건
 - 재무제표 영향
- 기업의 인식 (인터뷰, 설문조사)
 - K-IFRS 적용
 - 기준/제도 제정 및 개정 과정
 - 정보 투명성 및 신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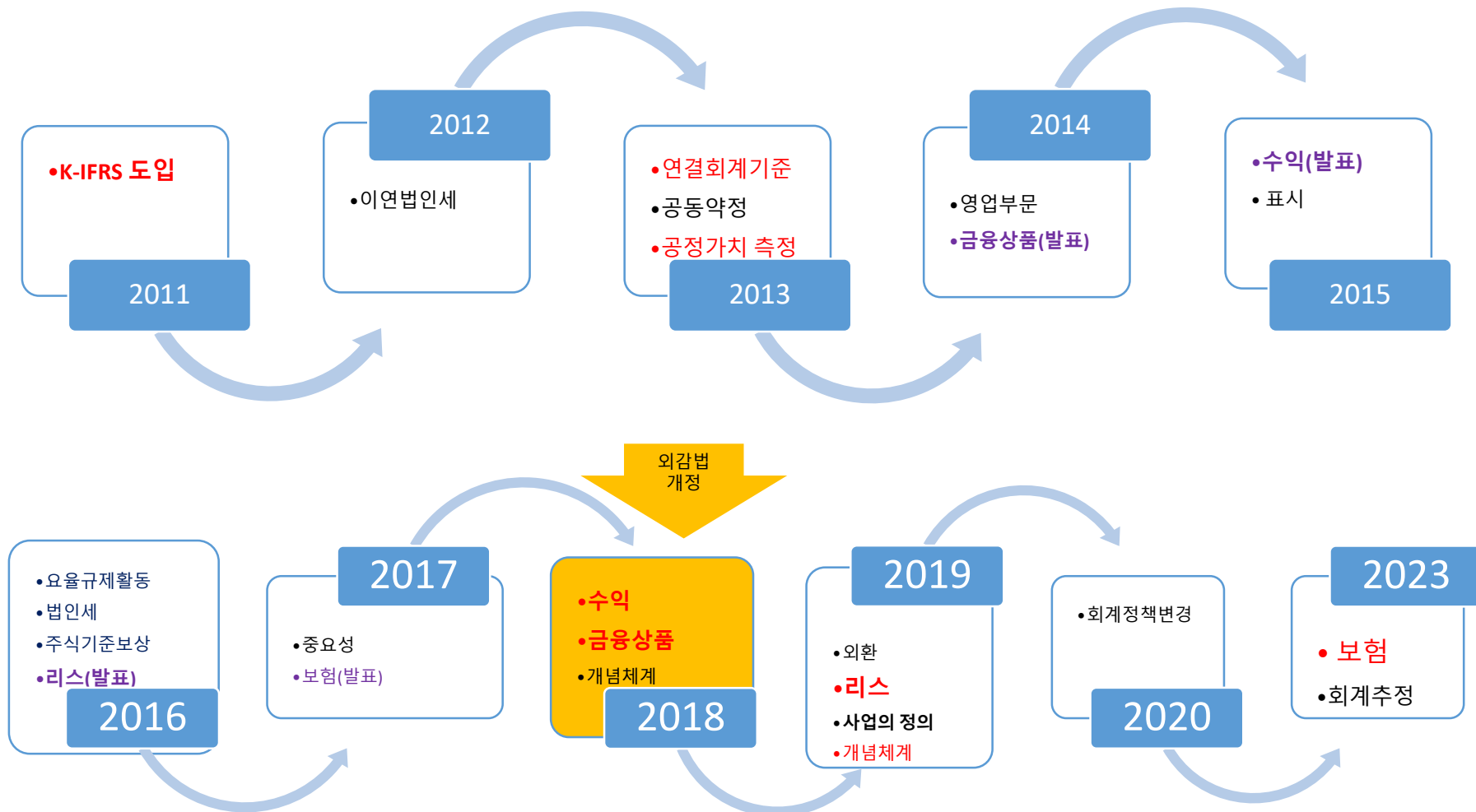
PART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

II.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

II-1. 지난 10년 동안 주요 기준의 제·개정



자료: IFRS 홈페이지

II.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 (계속)

II-1. 지난 10년 동안 주요 기준의 제·개정

- 2011년 K-IFRS 도입을 시작으로
 - 연결, 공정가치, 수익, 금융상품, 리스, 보험과 같은 주요 기준서의 제정 및 개정이 있었으며,
 - 개념체계, 중요성, 사업부문 등의 회계 원칙 및 개념과 관련한 기준서 및 연차개선 등을 통한 지속적 개정이 이루어져 옴
- 기준 제·개정 과정은 상당 기간 소요
 - 예, Lease의 경우 2007년 안건 선정, 2016 최종 기준서 발표 등 약 10년 소요
 - 기준서 발표 후 유예기간 (약 3년) 후 실행
 - 기준서 제·개정을 통하여 급박한 회계적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IASB 주도의 기준 제·개정과 관련하여
 - K-IFRS 도입 초기부터 제·개정 과정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 IASB Foundation, IFRS IC 등 기준제정 주요 기구에 한국 위원을 파견하는 성과가 있었음
 - 또한, KASB, 금감원, 금융위 등 기준 제개정이 있는 경우 간담회를 비롯한 의견 청취 노력을 수행해 옴

II.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 (계속)

II-2. 회계기준제정 및 개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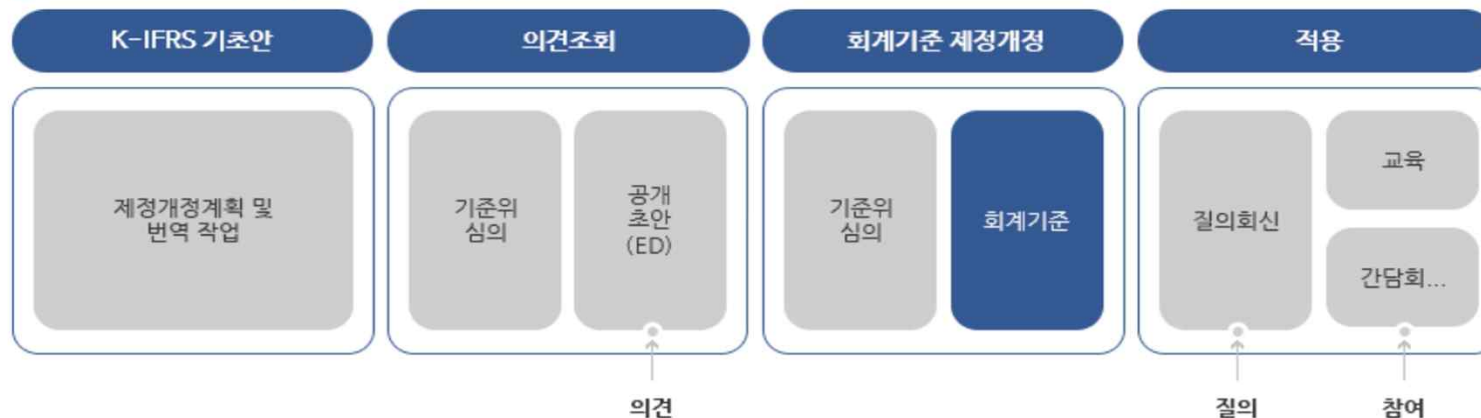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K-IFRS 제정개정 과정 : 1단계 (IFRS 제정 참여)



* 사후이행검토 PIR (Post Implementation Review)

● K-IFRS 제정개정 과정 : 2단계 (번역 등 채택절차)



II.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 (계속)

II-2. 회계 기준의 제·개정

- 산업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보요청서,’ ‘토론서’ 의견조회 단계에서 참여해야 하나,
 - 공개초안(Draft) 발표 이후에 산업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 각국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므로 ‘공개초안’ 단계에서 의견 반영은 쉽지 않은 과정임
 - 공개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 제출은 평균 2.02건

연도	의견제출 3건 이상인 안건	의견제출건수
2017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공개초안	4
2018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2018) 제정 공개초안	3
2018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공개초안	3
2019	K-IFRS 제1109호, 1039호, 1107호 개정 공개초안	3
2017	IASB 공개초안 ‘Improvements to IFRS 8 Operating Segments’	3
2017	IASB 공개초안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 Proceeds before Intended Use’	4
2019	IASB 공개초안 IFRS 17 ‘보험계약’ 개정안	7
2019	IASB 공개초안 ‘General Presentation and Disclosures’	3
2020	IASB 공개초안 ‘Covid-19 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 IFRS 16 리스 개정’	3
2020	IASB 공개초안 ‘일반적 표시와 공시’	3
2021	IASB 공개초안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IFRS 16 개정’	5
2021	IASB 공개초안 ‘Regulatory Assets and Regulatory Liabilities’	3

II.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 (계속)

II-3. 회계기준 제·개정과 관련한 학계 연구

- IFRS 도입 시점에는 IFRS와 관련한 회계 기준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 K-IFRS 도입 이후 회계기준의 제·개정과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
 - 또한, 연구 시점 역시 제·개정 기준서 공표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가 상당수여서 사실상 기준 제정 및 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PART



기준의 적용

III. 기준의 적용

III-1. 주요 기준서 제·개정 이후 재무제표 변화

- 연결기준서 개정
 - 연결 대상 기업의 수 증가
 - 상장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 비율이 2010년 39.1%에서 2011년 66.1%, 2012년 73%
- 금융상품 기준서
 - 금융상품의 계정과목의 변경과 금액적 큰 변화
 - 은행, 증권업은 매도가능금융자산 대비 FVOCI 금융자산이 감소하였고, 단기매매/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대비 FVPL 금융자산 증가
 - 제조업은 매도가능금융자산 대비 FVOCI 금융자산 대폭 감소
 - 금액적 변화는 제조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남
- 리스 기준서
 - 제정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남
 - 2018년 5%의 리스자산 보고에서 2019년 93% 기업이 사용권 자산 보고

III. 기준의 적용

III-2. 기업의 기준서 적용 이슈

질의회신 연석회의	기준원 신속처리	금융감독원 질의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협의회	IFRS IC
금융상품	리스	금융상품	금융상품	금융상품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금융상품	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수익	수익	연결/지분법	수익	공동약정
재무제표 표시	유형자산	주식기준보상	법인세	표시
		연결		종업원급여
				수익

III. 기준의 적용

III-3. 기업의 기준서 적용 어려움

- FGI 인터뷰 과정에서
 - 기준서에서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을 호소하고,
 - 연석회의, 협의체 등의 제 3의 판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
- 작성자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적 선택(accounting choice)에 대한 판단을 그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
 -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에 대한 사기 저하를 표명
- 하지만,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회계 판단(accounting choice)에 대한 학계 연구는 소수이며,
 - 많은 연구들은 분식/감리 사례 등을 통하여 기업의 기회주의적 판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예, 감리/분식에 대한 연구는 13개, 수익에 대한 연구는 9개)
 - 기업으로 하여금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사례는 학계연구가 아닌 질의회신, 협의체 등으로 매우 제한적임

PART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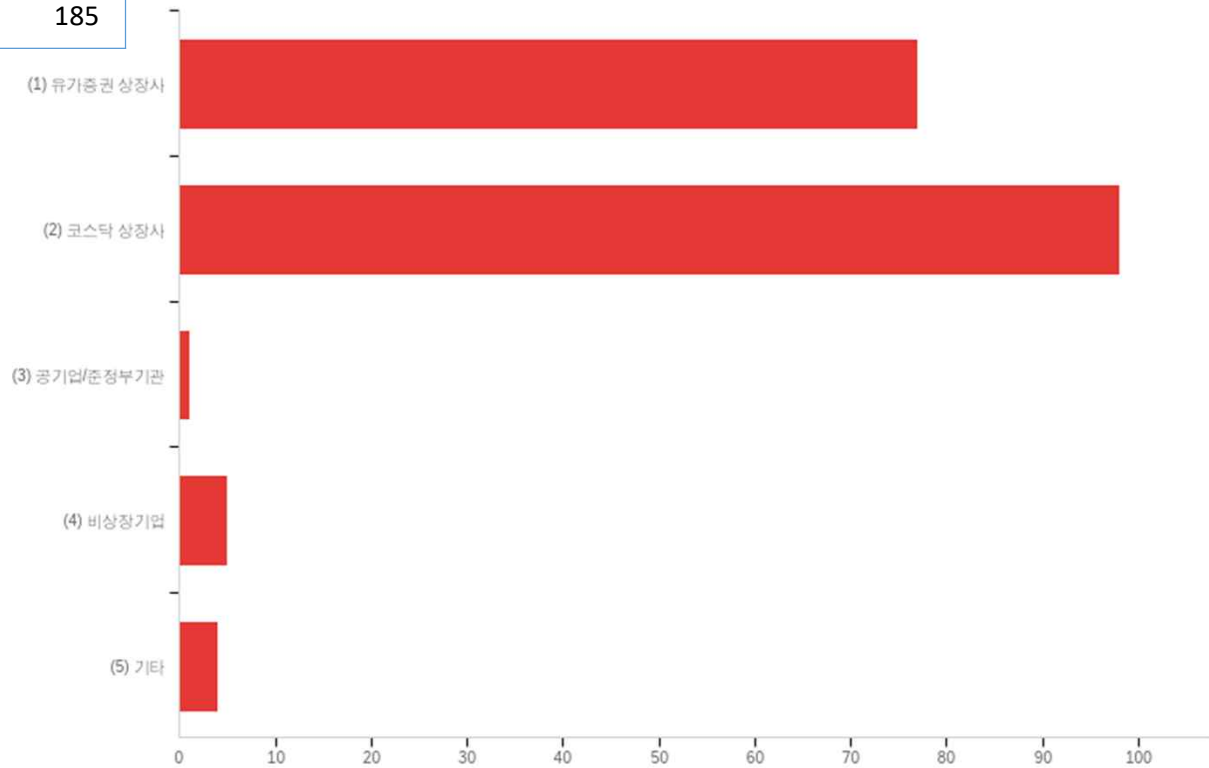
IV-1. 설문조사

IV-1. 설문조사

-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회계 기준에 대한 인식
 - 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한 인식

응답자 구성

(10월 22일 기준)	%	#
(1) 유가증권 상장사	41.62%	77
(2) 코스닥 상장사	52.97%	98
(3) 공기업/준정부기관	0.54%	1
(4) 비상장기업	2.70%	5
(5) 기타	2.16%	4
Total	100%	185



Q.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계기준/회계처리 (3개 선택)

#	Answer	%	#
1	공정가치/손상/재평가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제1036호 자산손상	26.11%	129
2	수익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5.79%	78
3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109호/제1039호/제1107호/제1032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 공시, 표시	15.18%	75
4	리스 제1116호 리스	13.16%	65
5	연결/별도재무제표/지분법 제1103호 사업결합/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제1111호 공동약정/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11.13%	55
6	이연법인세 제1012호 법인세	7.49%	37
7	충당금/충당부채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3.04%	15
8	표시/주석/중간보고/기타 공시 제1001호 재무제표표시/제1024호 특수관계자공시/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제1020호 정보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2.63%	13
9	종업원 급여 제1019호 종업원급여/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1.62%	8
10	유형/무형/재고/광물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제1038호 무형자산/제1002호 재고자산/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1.01%	5
11	기타	0.20%	1
12	투자부동산/매각예정자산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제1040호 투자부동산	0.00%	0
Total		100%	494

공정가치/재평가/손상/충당부채

#	Answer	%	Count
1	(비상장주식과 같은) 활성시장이 없는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56.39%	75
2	유형자산 재평가/손상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	13.53%	18
3	충당부채 측정/재평가를 위한 공정가치 측정	11.28%	15
4	무형자산(영업권 제외) 재평가/손상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	9.77%	13
5	재고자산 손상(저가법)을 위한 공정가치 측정	4.51%	6
6	우발/충당부채 구분을 위한 판단	2.26%	3
7	기타	2.26%	3
Total		100%	133

기타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연결자회사의 결손으로 인한 손상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

수익

#	Answer	%	#
1	기간에 걸친 (진행기준) 또는 한 시점 (완성/판매) 수익 인식 여부	41.03%	32
2	단일 또는 별도의 수행의무 구분	23.08%	18
3	매출(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20.51%	16
4	수익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결합	8.97%	7
5	기타	3.85%	3
29	마일리지/포인트 제도 수익 인식	2.56%	2
	Total	100%	78

기타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

선수금 할인(유의적 금융요소)

금융상품/파생상품/위험회피회계

#	Answer	%	Count
1	복합금융상품 및 복합계약의 회계처리(자산,부채 구분)	46.67%	35
2	금융자산의 분류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상각후 원가)	21.33%	16
3	손상(기대신용손실) 인식 및 측정	21.33%	16
4	위험회피회계 적용	6.67%	5
5	기타	2.67%	2
6	금융보증부채 측정 및 재평가	1.33%	1
	Total	100%	75

기타

금융자산의 공정가치평가

RCPS, CPS 회계처리

리스

#	Answer	%	Count
1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측정	50.77%	33
2	단기리스 및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여부 판단	16.92%	11
3	할인율 결정	16.92%	11
4	리스 재평가	9.23%	6
5	기타	6.15%	4
Total		100%	65

기타

업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입으로 인해 효익이 거의 없이 복잡하고 번거롭기만 함(EX 렌트카, 사무실 임차)

전 부분

기간 산정

리스회계처리로 인한 재무제표의 해석 및 평가지표 변경

연결/별도/개별재무제표/관계회사

#	Answer	%	Count
1	연결재무제표 작성	41.82%	23
2	실질지배력 판단	21.82%	12
3	유의적 영향력 (관계회사/지분법 적용 여부) 판단	16.36%	9
4	영업권 인식, 측정, 손상	12.73%	7
5	투자주식 원가법/지분법/공정가치 적용 여부	7.27%	4
6	기타	0.00%	0
	Total	100%	55

Q. 어려움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2개 복수선택)

	Answer	%	Count
1	수행한 회계처리에 대한 입증자료, 근거 등 회계처리 외에 요구되는 부가적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소요	31.91%	105
2	회계처리를 위한 추정과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음	23.10%	76
3	기준서가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기준서 자체의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	20.97%	69
4	감사인별로 해석과 적용이 일관적이지 않음	15.81%	52
5	재무제표 보고 기한을 맞추기 위한 시간적 제약	4.56%	15
6	기업의 역량 부족	1.82%	6
7	감독당국의 입장이 일관적이지 않음	1.52%	5
8	기타	0.30%	1
	Total	100%	329

Q. K-IFRS 적용 지원 제도의 이용 여부 및 만족도

#		이용경험 없음		이용 경험 있음		
		%	#	%	#	(1) 도움이 안됨 (5) 매우 도움됨
1	정규절차 질의(질의회신연석회의) -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57.84%	107	42.16%	78	2.79
2	신속처리질의(단순 질의/민원) -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46.49%	86	53.51%	99	2.86
3	단순 상담(전화) - 한국공인회계사회	61.08%	113	38.92%	72	2.54
4	전당기 감사인 의견조정 협의회-한국공인회계사회	71.89%	133	28.11%	52	2.52

FGI 인터뷰

-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응답
- 모호한 답변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기업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

Q 위의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2개까지 복수 선택)

	Answer	%	Count
1	(4) 실효성 없는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	24.65%	53
2	(6)외부 전문가(예, Private Accountant 등)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19.53%	42
3	(1) 위와 같은 제도가 있는 줄 몰랐음	19.53%	42
4	(2) 기업 내부 정보를 외부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	15.35%	33
5	(5) 질의 후 응답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림	9.77%	21
6	(3) 예상했던 답변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	6.05%	13
7	(7) 기업 내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4.19%	9
8	(8) 기타	0.93%	2
	Total	100%	215

Q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이 귀사의 업무에 미친 영향은?

	관련 없음		관련 있음		
	%	#	%	#	(1) 부담증가 (3) 영향없음 (5) 부담감소
(1) 2018년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8.11%	15	91.89%	170	1.70
(2) 2019년 제1116호 리스	3.78%	7	96.22%	178	1.42
(3) 2018년 제1109호 금융상품	5.41%	10	94.59%	175	1.75
(4) 2018년 외부감사법 - 주기적 지정제	6.49%	12	93.51%	173	1.47
(5) 2018년 외부감사법 - 표준감사시간	2.16%	4	97.84%	181	1.57
(6) 2018년 외부감사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3.24%	6	96.76%	179	1.20

Q 개정된 기준 및 제도가 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투명성에 미친 영향?

	관련 없음		관련 있음		
	%	#	%	#	(1) 감소 (3) 영향없음 (5) 증가
(1) 2018년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41%	10	94.59%	175	2.95
(2) 2019년 제1116호 리스	3.78%	7	96.22%	178	2.44
(3) 2018년 제1109호 금융상품	3.24%	6	96.76%	179	2.81
(4) 2018년 외부감사법 - 주기적 지정제	5.41%	10	94.59%	175	2.89
(5) 2018년 외부감사법 - 표준감사시간	2.16%	4	97.84%	181	2.63
(6) 2018년 외부감사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1.62%	3	98.38%	182	2.77

Q. 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귀사의 의견을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Answer	%	Count
(1) 의견 수렴 제도가 있는 지 몰랐음	16.76%	31
(2) 알고 있으나 어떻게 참여할지 몰라 참여한 경험 없음	12.43%	23
(3) 알고 있으나 업무 등 이유로 여력이 안되어 참여 안함	40.54%	75
(4) 알고 있으나 현재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참여 안함	7.03%	13
(5) 알고 있으나 참여해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 안함	16.76%	31
(6) 참여한 경험 있음	6.49%	12
(7) 기타	0.00%	0
Total	100%	185

FGI 인터뷰:

- 원칙 중심과 너무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져 실무에서 논의(건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

Q. 회계 환경 변화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십니까?

	(1) 감소함 (3) 변화없음 (5) 증가함	Count
(1)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제표 작성 능력	4.03	185
(2) 경영자의 회계에 대한 인식	3.64	185
(3) 제도 취지에 맞는 (감사위원회 등) 기업 조직의 실질적 역할	3.34	185
(4) 제도 취지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 통제의 실질적 역할	3.44	185
(5) 회계부서의 위상	3.04	185
(6) 회계 인력 충원	3.26	185
(7) 시스템 구축 등 경영 자원(resource) 투입	3.57	185

PART

V

소결 및 정책제언

V. 소결 및 정책제언

V-1. 결론

-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기업 실무자들은 회계 개혁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
 - 기업들은 IFRS 도입과 외감법의 개정에 대하여 부담 증가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 작성역량, 회계 정보 신뢰성 등의 평가에 있어서 개선되었다는 의견을 제시
 - **재무제표 작성은 기업의 책임이라는 정책 당국의 입장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으며,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음**
 - 회계 정보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수행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개선 노력이 충분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
- 다만, 실무자들은 이러한 기준과 제도 적용에 실무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기존의 제도가 전방위적 효과를 목적으로 가졌다면,
 - 이제는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시기**라고 판단
 - 실무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제도의 정교화(fine tuning), 맞춤형을 통하여 개선 시킨다면 제도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V. 소결 및 정책제언 (계속)

V-2. 과제

- 회계처리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방안 모색 필요
 - 회계추정 등에 있어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시각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자원과 환경이 다른 기업에게 동일한 수준의 회계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 기업의 자원과 환경 등을 고려한 현실적 방안 모색 필요
- 회계 기준에 대한 산업 의견 반영될 수 있는 방안
 - 기존의 시스템에 한계가 존재한다면, 사전적으로 산업 의견이 회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장 감사

전규안(숭실대), 안혜진(홍익대), 한승엽(홍익대)

목차

- I. 서론
- II. 문헌연구
- III. 실증분석 결과
-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 V. 소결 및 정책제언



사단법인
한국회계정보학회
www.kaia-edu.or.kr

PART

서론

I. 서론

I-1.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1년부터 모든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함
-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공정가치 평가, 연결재무제표를 주 재무제표로 하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 등을 주된 특징으로 함
- IFRS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IFRS 도입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IFRS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IFRS 도입 시점의 당초 도입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IFRS 도입이 감사(audit) 분야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도입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10년간 IFRS가 도입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분야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I. 서론

I-2. IFRS 도입의 성과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 IFRS 도입으로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 • 회계신인도 향상으로 Korea Discount 감소에 기여 • 해외상장비용의 경감 • 자금조달비용의 감소 • 국제간 비교가능성의 증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 IFRS 도입비용과 재무정보 생산비용 증가 • 회계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무의 혼란 증가 • 원칙중심 회계기준으로 인한 경영자와 감사인 또는 전임감사인과 후임 감사인 간의 의견 차이 증가 • IFRS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 간 비교가능성 저하

I. 서론

I-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IFRS 도입 10년을 감사분야에서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회계신인도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IFRS 도입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내 외 자료를 이용한 분석**과 그동안의 연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IFRS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IFRS 도입이 감사분야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IFRS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IFRS 도입이 회계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IFRS 도입 10년의 평가를 통해 향후 10년간 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개선할 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
 - 개선방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한 **IFRS 발전 로드맵(감사분야)**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사단법인
한국회계정보학회
www.kaia-edu.or.kr

PART



문헌연구

II. 문헌연구

II-1. [국내 연구] IFRS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변화

- (감사보수) 일관된 결과가 관측되지 않음
 - (총)감사보수가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결과와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결과 혼재
 - 증가된 감사시간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시간당)감사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결과도 존재
- (감사시간)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일관된 결과가 관측됨

구분	분석결과	관련 선행연구
감사보수	유의하게 증가	배성미, 김명인, 안형태, 지찬영 (2014) 정진향, 마희영 (2014) 김윤진, 김용식, 홍용식 (2015) 문태형 (2013), 이재은 (2013)
	유의한 변화가 없거나 감소	오광욱, 배성호 (2015) 이명곤, 장석진, 조상민 (2012) 정영기 (2012) 김소연, 장금주, 김상순 (2014)
감사시간	유의하게 증가	이명곤, 장석진, 조상민 (2012) 정영기 (2012), 문태형 (2013), 이재은 (2013) 김소연, 장금주, 김상순 (2014) 김상일, 김경태 (2014)

II. 문헌연구

II-2. [해외 연구] IFRS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 변화

- (감사보수) 전 세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일관된 결과가 관측됨
 - 다만, 감사시간 데이터 부재(이탈리아 제외)로 총감사보수만 분석한 결과임
 - 따라서 시간당 감사보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재함
- (감사시간) 이탈리아의 경우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관측됨

구분	분석결과	분석대상 국가	관련 선행연구
감사보수	유의하게 증가	유럽(EU 14개국)	Kim, Liu, Zheng (2012)
		유럽(루마니아)	TACHE (2020)
		유럽(스위스)	Raffournier, Schatt (2018)
		유럽(이탈리아)	Cameran, Perotti (2014), Azzali, Mazza, Reichelt, Wang (2021)
		아시아(중국)	Lin, Yen (2016), Shan, Troshani (2016)
		아시아(말레이시아)	Ye, Gao, Zheng (2018), Tsai, Huang (2020)
		오세아니아(호주)	Yaacob, Che-Ahmad (2012)
		오세아니아(뉴질랜드)	George, Spear (2013)
		아프리카(가나)	Griffin, Lont, Sun (2008)
감사시간	유의하게 증가	아프리카(나이지리아)	Musah, Anokye, Gakpetor (2018)
		아프리카(조단)	Ajekwe, Onobi, Ibiamke (2017)
		아프리카(조단)	Risheh, Al-Saeed (2014)
감사시간	유의하게 증가	유럽(이탈리아)	Azzali, Mazza, Reichelt, Wang (2021)

II. 문헌연구

II-3. 기타 선행연구

- (감사인 교체와 감사품질) IFRS 도입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
 - 다만, 신외부감사법 도입 영향을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가 일부 존재하나 결과가 일관되지 않음
 - ex. (염승훈, 김종일 2020) 감사인 독립성 증가로 감사품질 증가 예상
 - (이동훈, 박선영 2021) 'Big 4 → Non-Big 4' 교체 증가로 감사품질 저하
 - cf. [해외 선행연구] IFRS 도입 후, 고품질 감사인 교체 경향 증가로 감사품질이 개선되었다는 결과 존재
 - ex. (Wieczynska 2016) EU,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local → global)으로 교체하는 경향 증가

II. 문헌연구

II-3. 기타 선행연구

- (내부회계관리제도) IFRS 도입 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유효성은 유지됨
ex. (양일수, 이재은 2016; 최준혁, 허익구 2016)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품질 제고에 기여. 다만, IFRS 도입 후 취약점 보고기업과 아닌 기업간 감사시간, 감사보수, 회계품질 편차 감소.
(최종윤, 김일 2016, 2017) IFRS 도입 후에도 취약점 보고기업은 이익반응계수가 오히려 감소
 -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연구도 일부 존재
ex. (마희영 2015) IFRS 도입 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인력 감소
(정남철, 이명곤, 박상연, 전홍준, 정석우 2021) 소규모 기업 내부회계관리 제도 인력 부족
 - 한편,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음



사단법인
한국회계정보학회
www.kaia-edu.or.kr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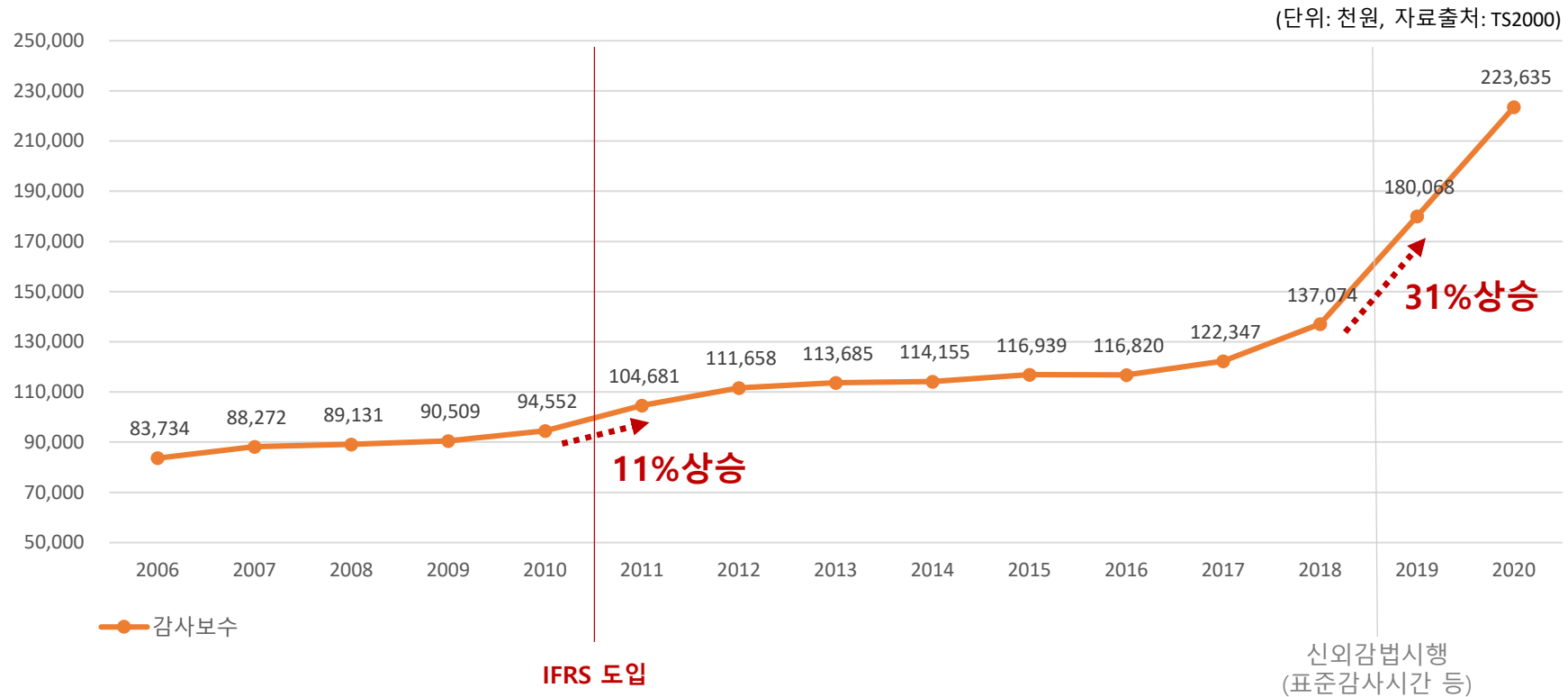
실증분석결과

III. 실증분석결과

III-1. IFRS 도입이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 (KOSPI + KOSDAQ)

<감사보수>

- 총감사보수 평균은 2006년(83,734천원)부터 2020년(223,635천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직전연도 대비 2011년(IFRS 도입)에 11%, 2019년(신외감법 시행)에 31% 상승(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 등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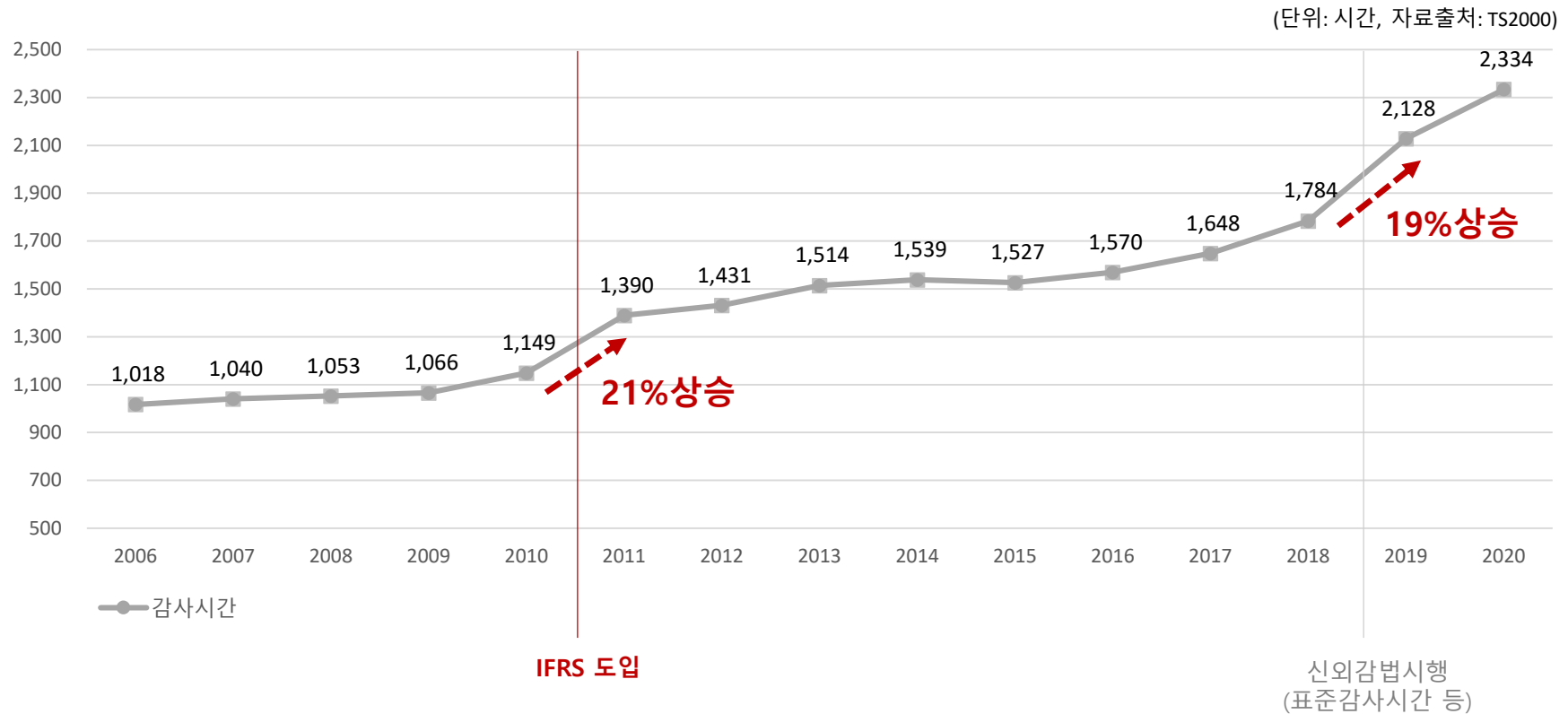


III. 실증분석결과

III-2. IFRS 도입이 감사시간에 미친 영향 (KOSPI + KOSDAQ)

<감사시간>

- 총감사시간 평균은 2006년(1,018시간)부터 2020년(2,334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IFRS 도입연도(2011년)와 신외감법 시행연도(2019년)에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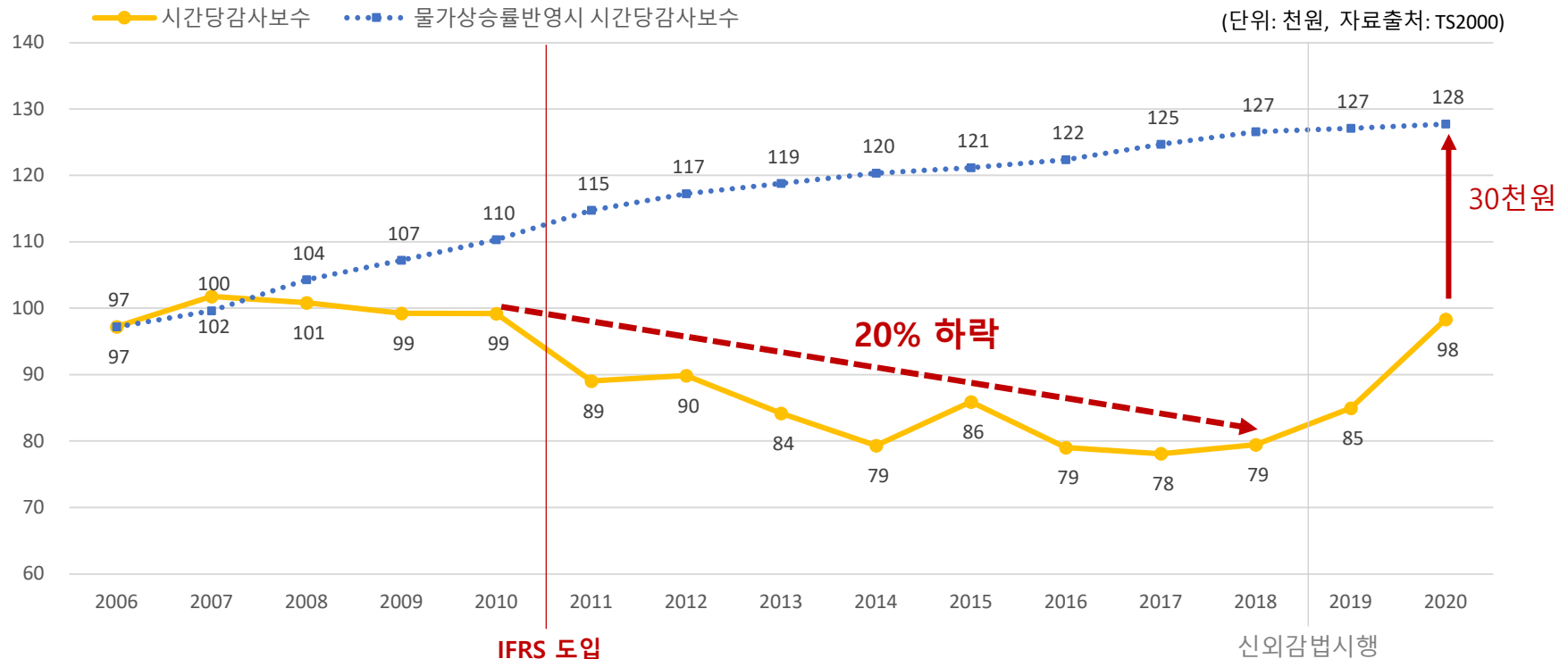


III. 실증분석결과

III-3. IFRS 도입이 시간당 감사보수에 미친 영향 (KOSPI + KOSDAQ)

<시간당 감사보수>

- 시간당감사보수는 IFRS 도입후 2010년 99,000원 수준에서 2018년 79,000원 수준으로 하락
- 2019년 신외감법 시행후 상승하여 2020년 98,000원 수준으로 회복
- 2006년 시간당 감사보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0년의 감사보수는 128,000원이 되어야 함



III. 실증분석결과

III-4. 2006년 기준 추세변화 (KOSPI + KOSD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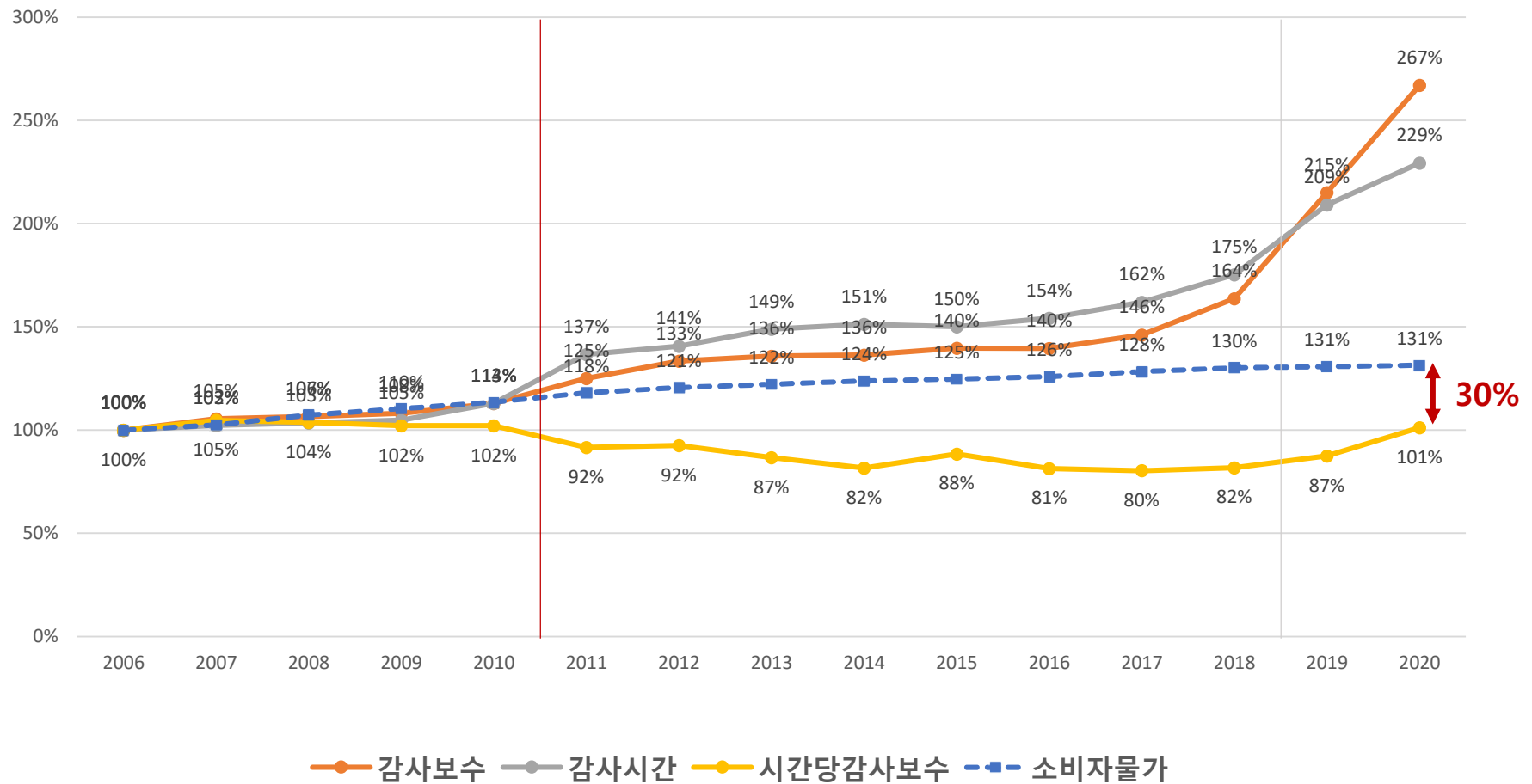
- 2006년의 감사보수/감사시간/시간당 감사보수를 기준
- 2006년 물가를 100으로 가정

년도	감사보수	감사시간	시간당 감사보수	소비자물가
2006	100%	100%	100%	100%
2007	105%	102%	105%	103%
2008	106%	103%	104%	107%
2009	108%	105%	102%	110%
2010	113%	113%	102%	114%
2011	125%	137%	92%	118%
2012	133%	141%	92%	121%
2013	136%	149%	87%	122%
2014	136%	151%	82%	124%
2015	140%	150%	88%	125%
2016	140%	154%	81%	126%
2017	146%	162%	80%	128%
2018	164%	175%	82%	130%
2019	215%	209%	87%	131%
2020	267%	229%	101%	131%

III. 실증분석결과

III-4. 2006년 기준 추세변화 (KOSPI + KOSDAQ)

- 2006년의 감사보수/감사시간/시간당 감사보수를 기준 / 2006년 물가를 100으로 가정



III. 실증분석결과

<2006년 기준 추세변화>

- 2006년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총감사보수는 약 64% 증가하였으나, 총감사시간은 75% 증가하여 총감사시간의 증가폭이 총감사보수의 증가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2019년부터 감사보수 증가폭이 감사시간 증가폭보다 커져, **2020년에는 2006년과 대비하여 감사보수는 167%증가, 감사시간은 129% 증가하였음.**
- IFRS 의무도입 해인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평균 시간당 감사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2018년까지 이어져, 2018년에는 2006년 대비 82%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러나 2019년부터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하여, 시간당감사보수가 2020년에는 2006년의 101%수준으로 회복함.
- 2006년의 물가를 100으로 가정한 경우에 2020년의 물가는 131이 되어 31% 증가함.
총감사보수는 2006년 대비 167% 증가하였으므로 총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2020년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6년 대비 101%로, 14년간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020년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6년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약 30% 정도 증가하여야 함.

III. 실증분석결과

III-5. IFRS 도입이 감사인 선임에 미친 영향

year	N	전체				KOSPI				KOSDAQ			
		B4	비중	NB4	비중	B4	비중	NB4	비중	B4	비중	NB4	비중
2006	1,566	833	53%	733	47%	439	66%	225	34%	394	44%	508	56%
2007	1,632	873	53%	759	47%	460	68%	219	32%	413	43%	540	57%
2008	1,664	863	52%	801	48%	480	70%	208	30%	383	39%	593	61%
2009	1,643	852	52%	791	48%	476	69%	211	31%	376	39%	580	61%
2010	1,661	905	54%	756	46%	493	70%	211	30%	412	43%	545	57%
2011	1,673	924	55%	749	45%	498	70%	213	30%	426	44%	536	56%
2012	1,672	936	56%	736	44%	504	70%	211	30%	432	45%	525	55%
2013	1,685	959	57%	726	43%	510	72%	201	28%	449	46%	525	54%
2014	1,753	941	54%	812	46%	501	69%	225	31%	440	43%	587	57%
2015	1,862	955	51%	907	49%	501	68%	234	32%	454	40%	673	60%
2016	1,930	940	49%	990	51%	495	67%	245	33%	445	37%	745	63%
2017	2,022	917	45%	1,105	55%	488	64%	271	36%	429	34%	834	66%
2018	2,086	923	44%	1,163	56%	498	65%	271	35%	425	32%	892	68%
2019	2,142	863	40%	1,279	60%	484	62%	293	38%	379	28%	986	72%
2020	2,204	714	32%	1,490	68%	429	55%	349	45%	285	20%	1,141	80%
Total	27,195	13,398	49%	13,797	51%	7,256	67%	3,587	33%	6,142	38%	10,210	62%

- IFRS 도입 후 2013년까지 Big4 감사인의 비중은 55%에서 57%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점점 비중이 낮아져 2020년 32%까지 떨어짐.
- 감사인 지정 사례 증가(감사인 직권지정사유 확대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영향)
- 감독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형평성' 관점에서 Big 4와 Non-Big 4 회계법인을 고르게 지정하는 경향.

III. 실증분석결과

III-6. 국가별 감사보수 비교

- 자료출처: Audit Analytics, Thomson Reuters, TS2000
- 대상 : 8개국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 (총수익 USD 10 Million 이상)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한국
- 표본 분포 (2011~2020)

YEAR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한국
2011	2,720	975	993	622	204	838	2,848	1,141
2012	2,854	1,029	1,005	662	218	879	2,930	1,183
2013	3,028	1,172	1,038	683	232	869	3,033	1,221
2014	3,163	1,176	1,086	668	251	870	3,108	1,260
2015	3,323	1,129	1,066	614	265	826	2,917	1,324
2016	3,510	1,156	1,037	583	261	793	2,832	1,407
2017	3,725	1,247	1,035	594	271	822	2,509	1,507
2018	3,902	1,157	1,049	564	271	810	2,598	1,558
2019	4,092	1,171	1,042	533	284	816	3,535	1,631
2020	4,190	1,108	985	517	278	765	3,438	1,669
Total	34,507	11,320	10,336	6,040	2,535	8,288	29,748	13,901

III. 실증분석결과

(1) 총감사보수 평균(USD)

- 주요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에서 총수익이 USD 10 백만 이상인 상장기업의 총감사보수 평균은 2011년에는 한국대비 8.9배(일본)~29.4배(미국) 수준이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2020년 4.3배(일본)~14.8배(미국)로 감소함.

YEAR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한국
2011	3,083,817	1,355,831	1,245,121	1,437,422	1,801,098	1,036,480	935,310	104,801
2012	3,098,292	1,297,390	1,292,397	1,504,949	1,554,868	1,011,067	784,943	122,086
2013	3,102,690	1,200,652	1,278,627	1,488,829	1,624,581	1,084,095	777,129	120,183
2014	3,139,615	1,160,235	1,073,045	1,338,207	1,313,894	1,035,426	701,901	115,532
2015	3,127,419	1,175,667	1,094,902	1,511,744	1,358,151	1,021,815	848,835	111,151
2016	3,171,943	1,140,779	1,064,484	1,646,781	1,174,192	1,102,180	874,998	107,151
2017	3,256,561	1,188,386	1,281,318	1,830,394	1,335,839	1,088,390	1,080,974	124,917
2018	3,332,685	1,314,943	1,248,357	1,906,185	1,279,894	1,153,511	1,050,068	135,707
2019	3,367,309	1,435,456	1,245,637	2,044,207	1,102,294	1,183,234	923,743	169,961
2020	3,346,807	1,663,755	1,359,750	2,209,242	1,303,360	1,268,485	961,852	225,520
Average	3,202,714	1,293,309	1,218,364	1,691,796	1,384,817	1,098,468	893,975	133,701
2011년 기준	29.4	12.9	11.9	13.7	17.2	9.9	8.9	1.0
기간평균기준	24.0	9.7	9.1	12.7	10.4	8.2	6.7	1.0
2020년 기준	14.8	7.4	6.0	9.8	5.8	5.6	4.3	1.0

한국대비
배수

III. 실증분석결과

(2) 총감사보수 중간값 (USD)

- 극단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총감사보수의 중간값을 비교.
- 주요 국가의 총감사보수 중간값은 2011년에는 한국대비 2.6배(프랑스)~16.9배(미국) 수준이었으나, 이러한 차이는 2020년 1.4배(프랑스)~10.7배(미국)로 감소함.

YEAR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한국
2011	1,026,000	194,937	158,166	218,604	407,632	303,911	386,520	60,695
2012	1,056,200	200,000	164,685	246,363	363,164	299,176	329,122	68,154
2013	1,099,241	178,021	168,871	223,388	337,076	291,202	290,726	71,070
2014	1,191,250	193,340	136,908	206,711	262,278	276,575	249,750	68,231
2015	1,214,000	198,000	144,484	219,771	252,432	272,329	279,851	65,273
2016	1,235,000	186,421	155,920	255,814	229,387	289,608	296,283	63,715
2017	1,320,000	179,714	172,597	272,951	265,705	279,804	352,409	73,735
2018	1,353,482	226,092	165,866	277,968	289,750	303,130	347,407	78,705
2019	1,393,478	250,000	164,693	302,497	235,441	326,894	306,208	90,689
2020	1,400,367	299,307	189,281	344,148	289,717	367,916	319,713	131,434
Average	1,228,902	210,583	162,147	256,821	293,258	301,055	315,799	77,170
2011년 기준	16.9	3.2	2.6	3.6	6.7	5.0	6.4	1.0
기간평균기준	15.9	2.7	2.1	3.3	3.8	3.9	4.1	1.0
2020년 기준	10.7	2.3	1.4	2.6	2.2	2.8	2.4	1.0

한국대비
배수

III. 실증분석결과

(3) 1인당 GDP 대비 총감사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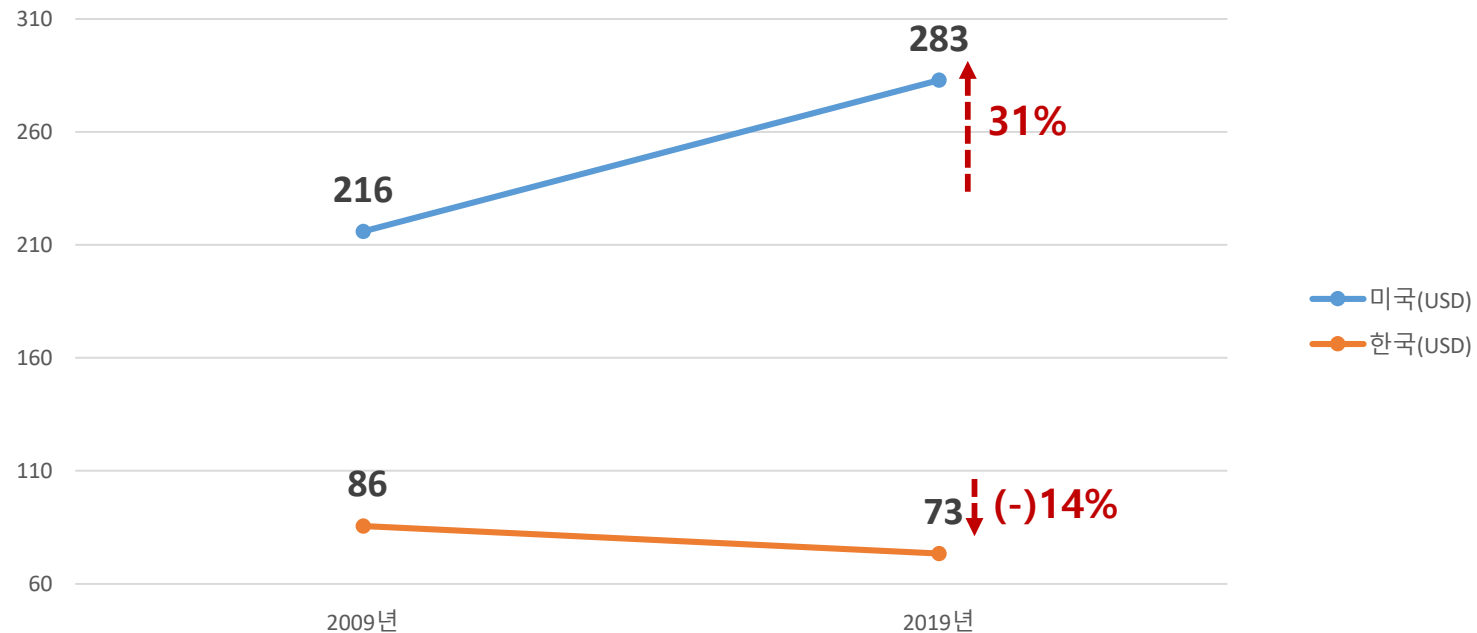
- 1인당 GDP대비 총감사보수(평균, in USD)의 차이

YEAR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한국
2011	61.8	27.2	28.4	30.8	46.7	19.8	19.4	4.2
2012	60.0	25.8	31.6	34.3	44.4	19.2	16.2	4.8
2013	58.4	23.7	30.0	32.2	45.7	20.6	19.2	4.4
2014	57.0	21.0	24.9	27.9	37.0	20.3	18.4	4.0
2015	55.0	22.5	29.9	36.8	44.9	23.4	24.6	3.9
2016	54.7	24.5	28.7	39.1	38.0	26.0	22.6	3.7
2017	54.2	26.7	33.1	41.2	41.3	24.1	28.2	4.0
2018	52.8	28.2	30.1	39.9	37.0	24.8	26.8	4.1
2019	51.6	32.1	30.8	44.0	32.8	25.5	23.0	5.3
2020	52.7	40.7	35.2	48.3	41.1	29.3	23.9	7.1
기간평균기준	55.6	27.1	30.2	37.4	41.0	23.1	22.0	4.6
2011년 기준	14.8	6.5	6.8	7.4	11.2	4.8	4.7	1.0
기간평균기준	12.2	5.9	6.6	8.2	9.0	5.1	4.8	1.0
2020년 기준	7.4	5.7	4.9	6.8	5.8	4.1	3.4	1.0

III. 실증분석결과

(4) 시간당 감사보수의 비교

- Financial Executives Research Foundation(FERF)에서 2019년에 발표한 서베이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시간당 감사보수는 2009년 216달러에서 2019년 283달러로 31% 증가하였음. 감사보수의 주된 증가 이유는 새로운 회계기준의 채택(new accounting standards)임.
- 반면 동일기간 한국의 감사보수는 2009년 86달러에서 2019년 73달러로 14% 감소함(2019년 기준 미국이 한국의 3.9배 수준).



(출처: FERF 10th ANNUAL AUDIT FEE SURVEY REPORT, TS2000)



사단법인
한국회계정보학회
www.kaia-edu.or.kr

PART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1. 전문가 인터뷰(기업)

- IFRS 도입 후 **재무제표 작성 난이도** 증가
 - 원칙중심주의에 따라 경영자 판단사항 증가
ex. 실질지배력 및 손상징후 판단, 공정가치 평가
 - 회계처리 복잡(Ex. 리스 회계처리)
- IFRS 도입 후 **재무정보 생산 비용**(과거 대비 3~4배 수준) 증가
 - IFRS 시행 후 감사범위 및 시간 증가로 감사보수 증가,
신외부감사법 시행 후 더욱 증가
 - 또한 각종 외부용역으로 감사보수 외 재무정보 생산 비용 크게 증가
ex. 회계법인 공정가치 평가보고서, 법무법인 법률검토 의견서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1. 전문가 인터뷰(기업)

- IFRS 도입 후 **법률리스크(불확실성) 증가**
 -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불일치(회계법인간, 회계법인내 감사팀 vs. 품질관리팀) 증가
 - 감사인지정제 등 신외부감사법 시행 후 의견불일치 현상 증가
 - 감사품질 저하로 인식될 우려
 - 회사가 고심하여 회계정책을 수립하더라도, 감사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 빈번
 - 그 결과 경영진이 주요 의사결정을 외부에 의존하려는 경향 심화
 - 또한, 적정한 회계처리를 고민하기보다 보수적 회계처리를 선호하는 경향 발생
- IFRS 도입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적, 물적자원 부족**
 - 기업의 회계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전문인력 확보
 - cf. 실무이슈는 교육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내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 따라서 회계인력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 필요
 - 다만, 경영진의 인식 전환 없이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제고는 요원
 - ex. 회계품질 제고 중요성 및 인적/물적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성 인지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1. 전문가 인터뷰(기업)

- IFRS 도입 후 증가된 **법률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 (질의회신) 신속성 低, 결론 유용성 低, 과거 내역 공개 X → 활성화 필요
 - (감독지침) 감독당국이 기준서상 모호한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 제시 필요
 - (회계감리) 사후결과에 기초해 과거 회계처리를 문제시(즉, hindsight bias)하는 경향 최소화 필요
- IFRS 도입 관련 **기타사항**
 - (회계신인도 & 회계투명성) IFRS 도입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 (연결재무제표) 기본적으로 유용,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은 비효율적
 - (ESG보고)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 아직까지는 기업홍보 수단에 가까움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1. 전문가 인터뷰(감사인)

- IFRS 도입 후 **감사업무 난이도 증가**
 - 기본적으로 기업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을 위한 감사인의 시간(노력) 투입 증가
ex. 원칙중심 기준서 해석 난이도 상승, 증거 검토범위 확대, 주식공시량 증가
 - 신외감법(특히, 감사인지정제) 시행 후 감사위험 증가로 감사업무 난이도 가중
 - 다만, 회계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감사인 역할 및 중요성 증가
- IFRS 도입 후 **법률리스크(불확실성) 증가**
 - 회계처리 의견불일치(회계법인간, 회계법인내 감사팀 vs. 품질관리팀) 증가
 -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는 향후 감리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우려
 - 특히, IFRS 도입에도 불구하고 Global practice보다 감독당국의 시각이 더욱 중시되는 경향 여전
 - 또한, IFRS 도입 후 시장 monitoring 강화로 감사위험이 더욱 증가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1. 전문가 인터뷰(감사인)

- IFRS 도입 후에도 **감사보수**는 여전히 낮은 편
 - 기업이 감사보수 급증을 호소하나, 이는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기존 감사보수가 정상화되는 과정
 - 표준감사시간제도로 감사시간 및 시간당 감사보수도 함께 현실화되고 있음
 - 그럼에도 경제규모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할 때 감사보수는 더 증가될 필요
- IFRS 도입 후 **감사문화** 크게 변화
 -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조직 규모 증가 및 품질관리담당자 책임 강화
 - cf. 상장사 감사를 위한 법인등록 요건에 따른 품질관리 지침 영향도 존재
 - 감사 시 품질관리조직에 consultation하는 문화 정착 → 집단지성 활용도 증가
 - ex. 품질관리조직의 검토를 요하는 필수 항목(required consultation items) 지정
 -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 등 회계법인 내 전문교육 상시화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1. 전문가 인터뷰(감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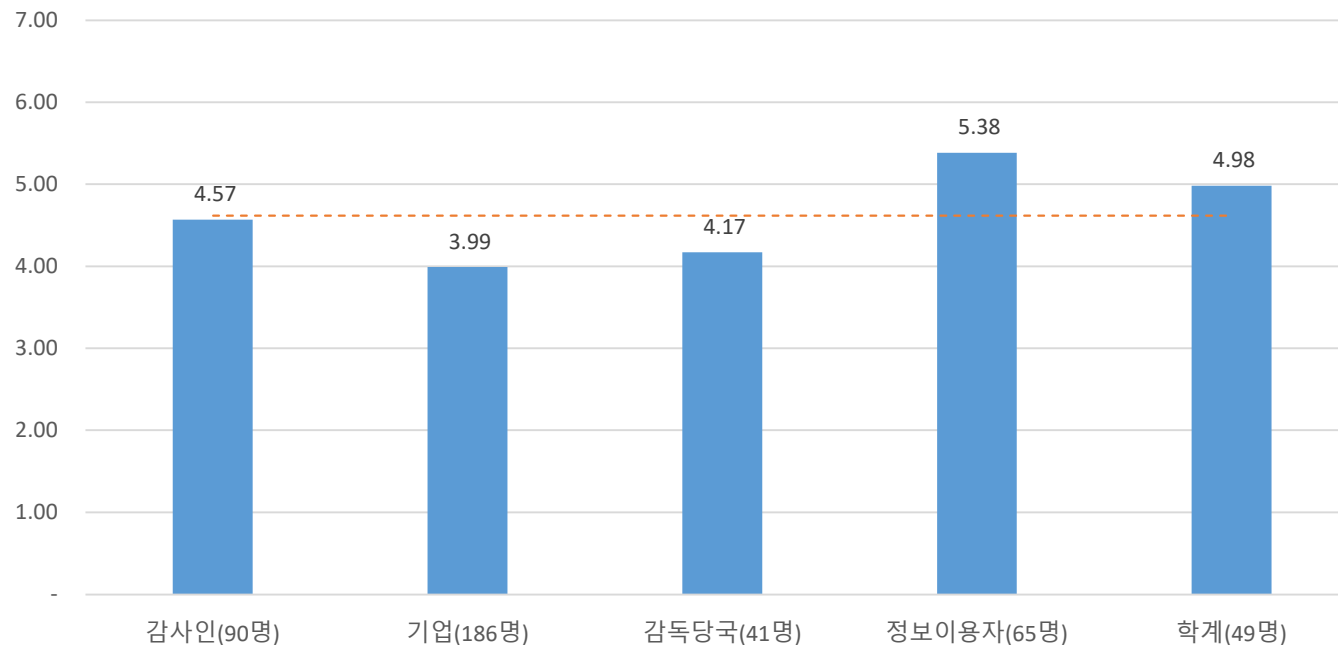
- IFRS가 도입되었음에도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은 더욱 제고될 필요
 - 신외부감사법 시행 후 기업의 회계역량 전반적으로 향상,
 -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활동도 정상화
 -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IFRS에서 요구되는 회계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Ex. 문서화 미비,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 미인지)
- **회계품질 제고**를 위한 제언
 - (기업) 재무제표 작성 역량 제고가 IFRS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
→ 주요 회계이슈를 외부에 의존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해결하려는 mind set 필요
 - (감독당국) 전문가 판단의 상이성을 인정하고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기조 변화 필요(Ex. 미국 SEC의 Comment Letter)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전체 공통 질문)

Q1-1. K-IFRS 도입 이후 **감사품질**이 향상되었는가?

- 전체적으로 다소 개선(평균 4.62)되었다고 답변
- 통계적으로 평균 수준인 감사인(4.57) 대비, 기업은 부정적($\Delta 0.58$, $p\text{-value}=0.0040$), 정보이용자는 긍정적 ($+0.82$, $p\text{-value}=0.0004$), 감독당국과 학계는 유사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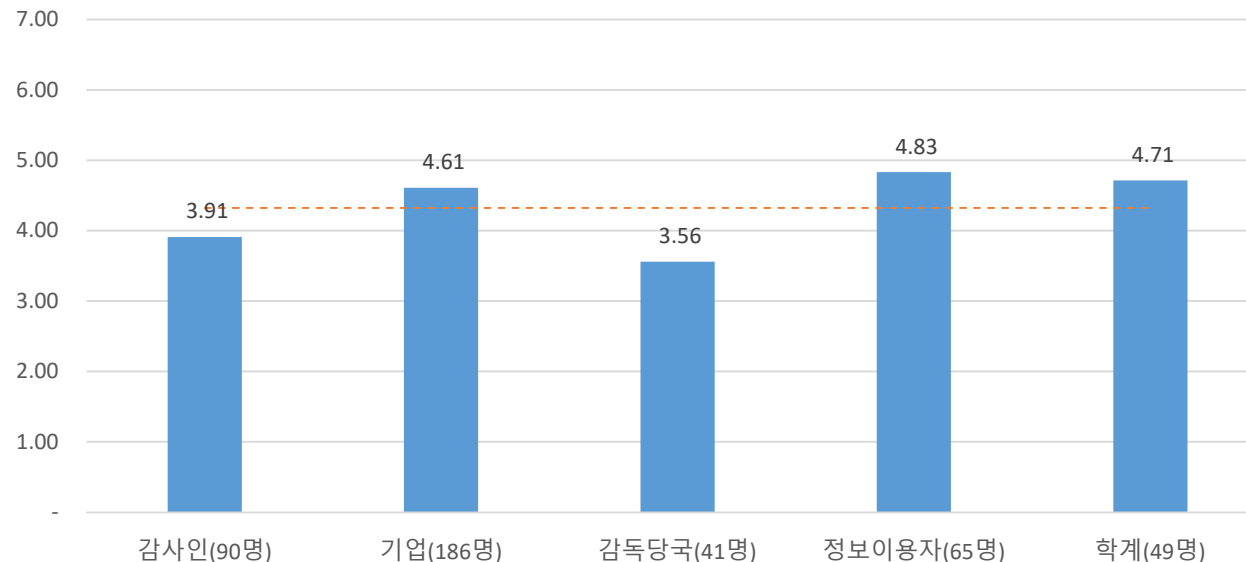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전체 공통 질문)

Q1-2. K-IFRS 도입 이후 투입된 **감사시간**이 적절한가?

- 전체적으로 **적절한 수준**(평균 4.33)이라고 답변
- 통계적으로 부족하다고 답변한 **감사인**(3.91) 대비, 감독당국은 유사한 인식을 보였으나, **기업**(+0.70, $p\text{-value}=0.0001$), **정보이용자**(+0.92, $p\text{-value}=0.0001$), **학계**(+0.80, $p\text{-value}=0.0013$)는 다소 과하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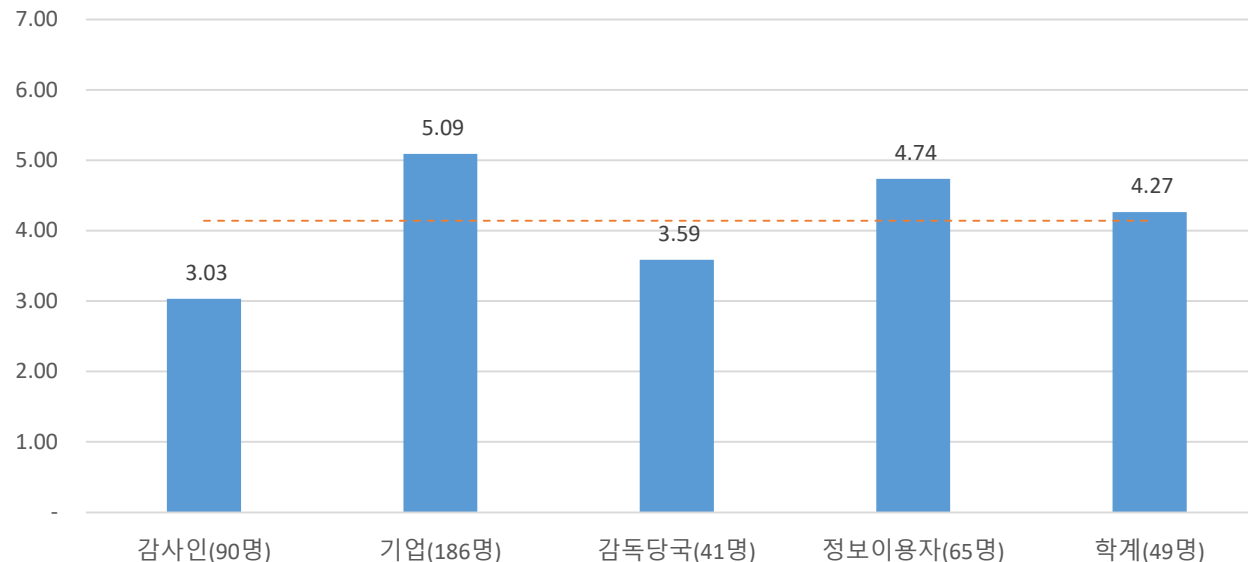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전체 공통 질문)

Q1-3. K-IFRS 도입 이후 투입된 감사시간에 비추어 **총감사보수**가 적절한가?

- 전체적으로 **적절한 수준**(평균 4.14)이라고 답변
- **감사인**(3.03)이 가장 부족하다고 답한 가운데, 감독당국(+0.55, $p\text{-value}=0.0186$)도 감사인만큼은 아니나 다소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계**(+1.23, $p\text{-value}<0.0001$)는 적정, **기업**(+2.06, $p\text{-value}<0.0001$), **정보이용자**(+1.71, $p\text{-value}<0.0001$)은 과하다고 답변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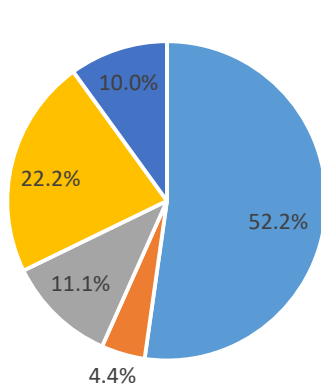
IV-2. 설문조사 결과(전체 공통 질문)

- 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제고
- ② 회계법인 내 교육과 연구기능의 제고
- ③ 감사인 간 또는 감사인과 회사 간 상호존중 문화의 제고
- ④ 충분한 감사시간의 투입

Q1-4. K-IFRS의 회계신인도 제고 기여를 위해 **감사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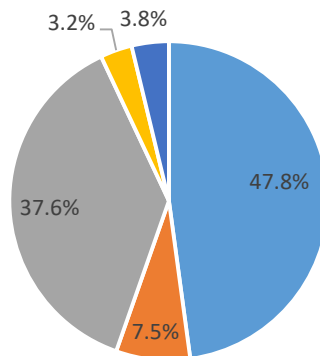
- 공통적으로 ‘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제고(연파랑)’를 가장 필요한 요소로 답변한 가운데, 감독당국이 이러한 인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기업은 ‘③ 감사인 간 또는 감사인과 회사 간 상호존중 문화의 제고(회색)’를 두 번째 요소로 답한 반면, 정보이용자, 학계는 이와 함께 ‘④ 충분한 감사 시간의 투입(황토색)’이 필요하다고 답함. 그러나 감사인, 감독당국은 전자(③)보다 후자(④)가 더욱 필요한 두 번째 요소라고 답함.

감사인(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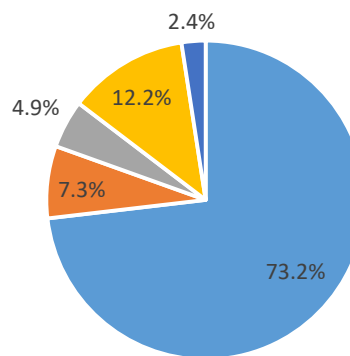
■ 1 ■ 2 ■ 3 ■ 4 ■ 기타

기업(18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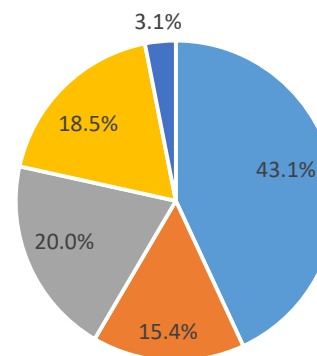
■ 1 ■ 2 ■ 3 ■ 4 ■ 기타

감독당국(4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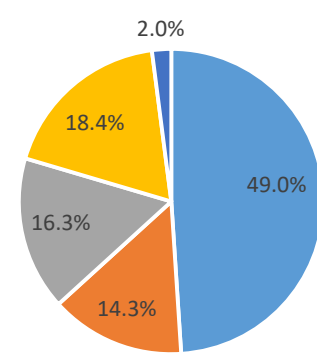
■ 1 ■ 2 ■ 3 ■ 4 ■ 기타

정보이용자(65명)



■ 1 ■ 2 ■ 3 ■ 4 ■ 기타

학계(4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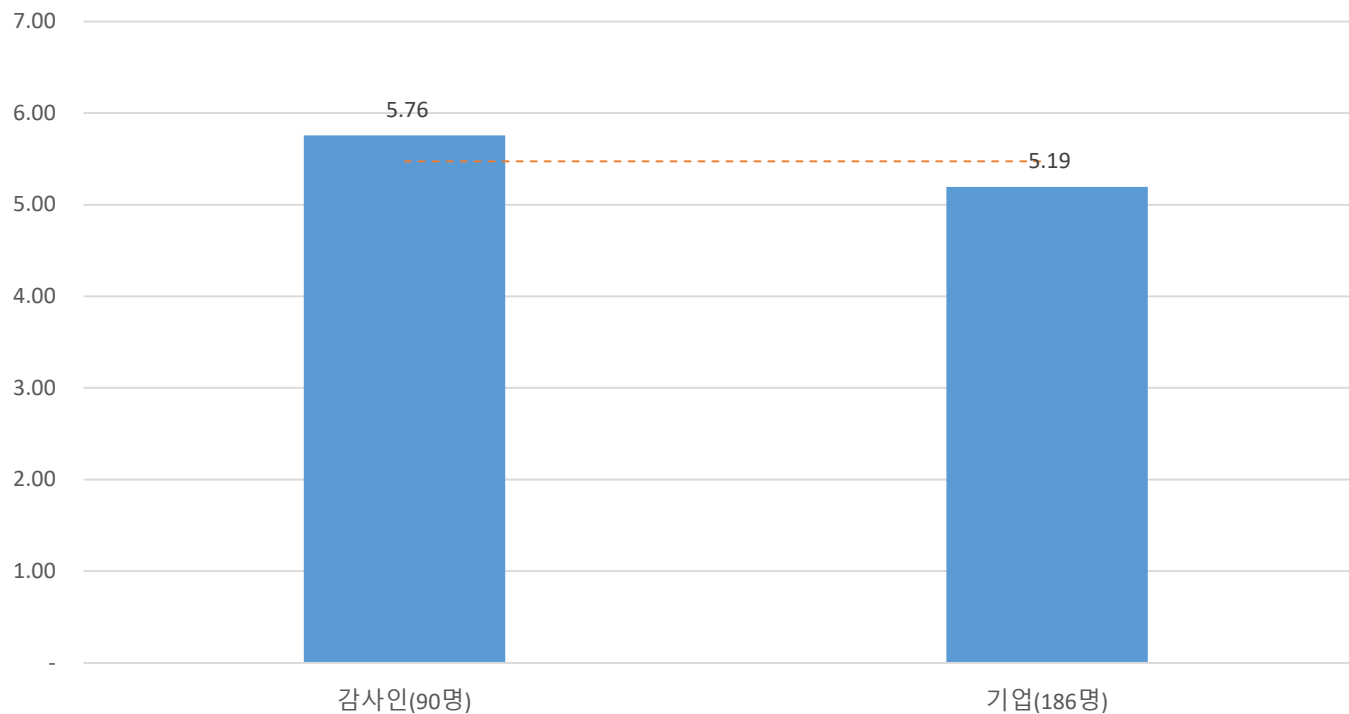
■ 1 ■ 2 ■ 3 ■ 4 ■ 기타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감사인, 기업 공통 질문)

Q2-1. K-IFRS 도입 이후 경영자와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가 증가하였는가?

- 감사인, 기업 모두 **상당히 증가**(평균 5.47)했다고 답변
- **감사인(5.76)이 기업(5.19)보다 의견 불일치 증가 정도(+0.57, $p\text{-value}=0.0006$)가 높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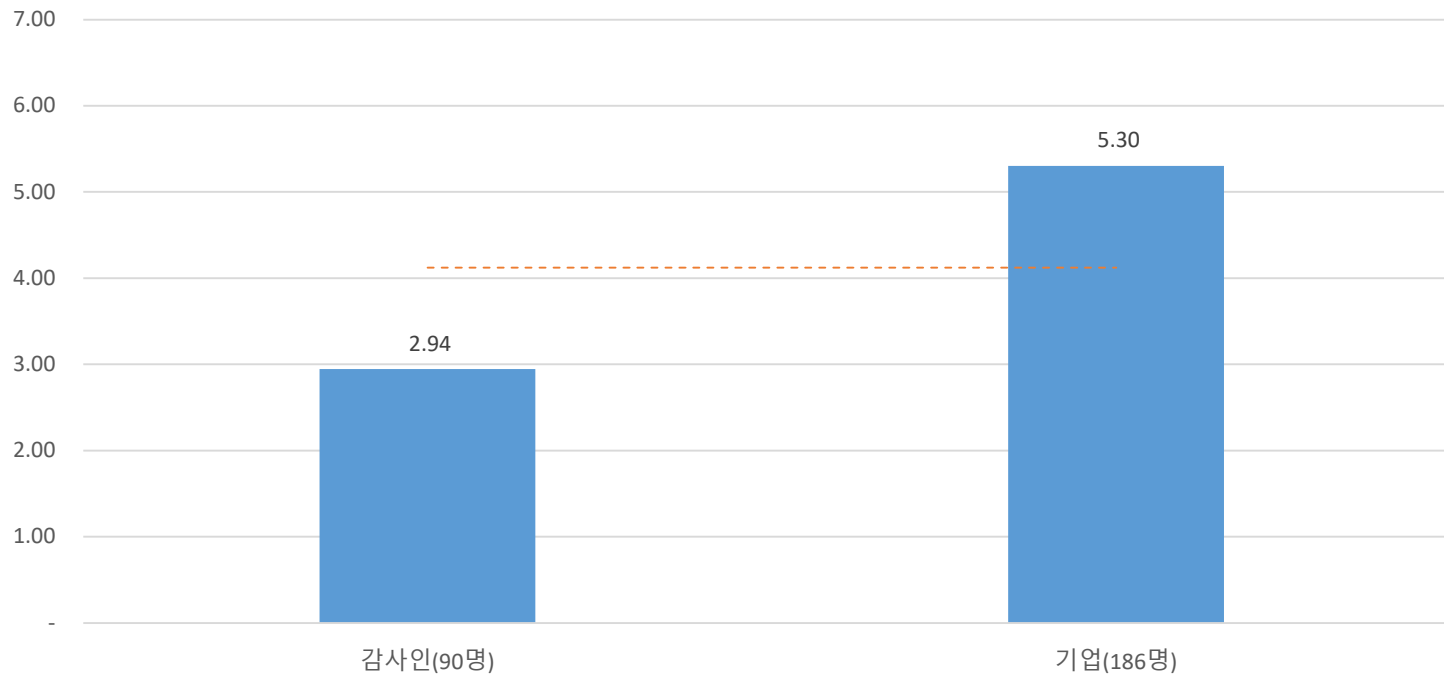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감사인, 기업 공통 질문)

Q2-2. K-IFRS 도입 이후 시간당 감사보수가 충분히 지급되고 있는가?

- 평균적으로 적절한 수준(평균 4.12)으로 나타났으나, 감사인과 기업 인식이 상이
- **감사인**(2.94)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기업**(5.30)은 다소 과하다고 답변하여 명확한 인식 차이(차이 2.36, $p\text{-value}<0.0001$)를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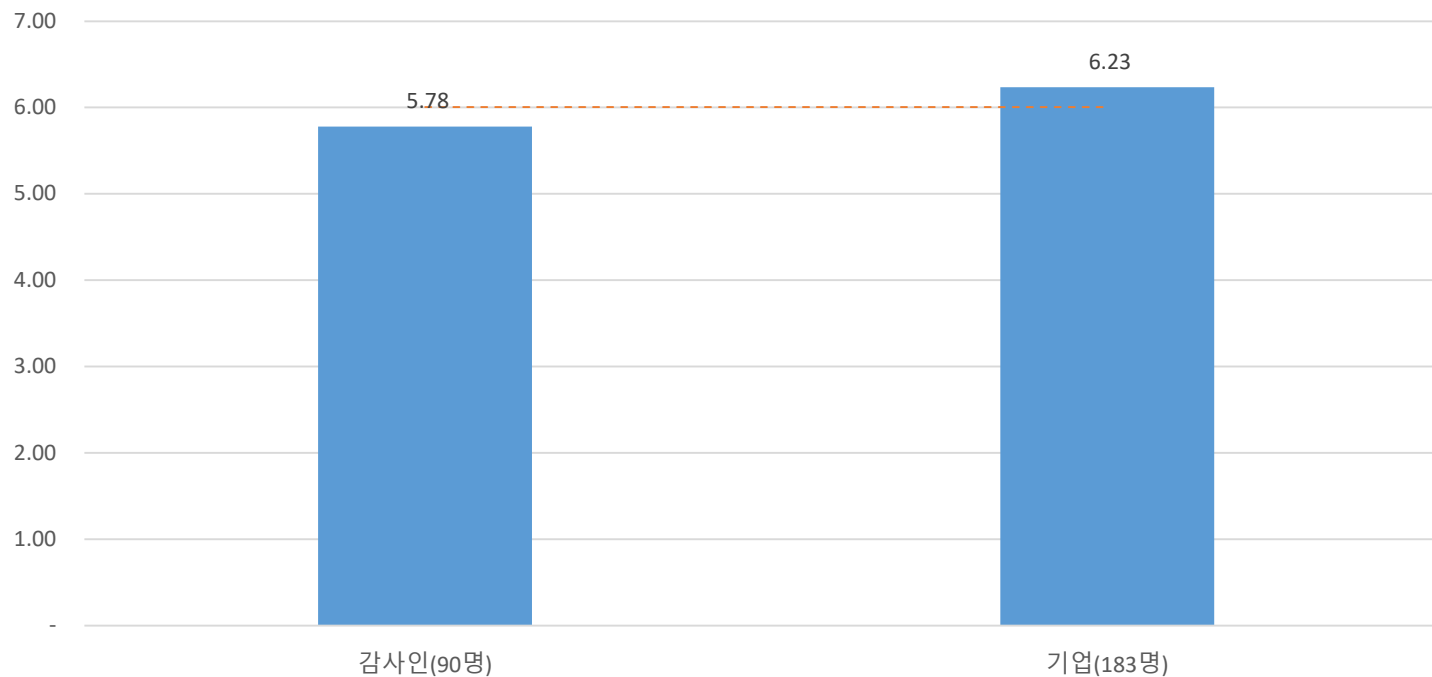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감사인, 기업 공통 질문)

Q2-3. K-IFRS 도입 이후 비감사서비스(Private Account)가 많이 증가하였는가?

- 감사인과 기업 모두 높은 수준으로 증가(평균 6.01)한 것으로 답변
- 다만, 감사인(5.78)에 비해 기업(6.23)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답변(차이 0.46, $p\text{-value}=0.0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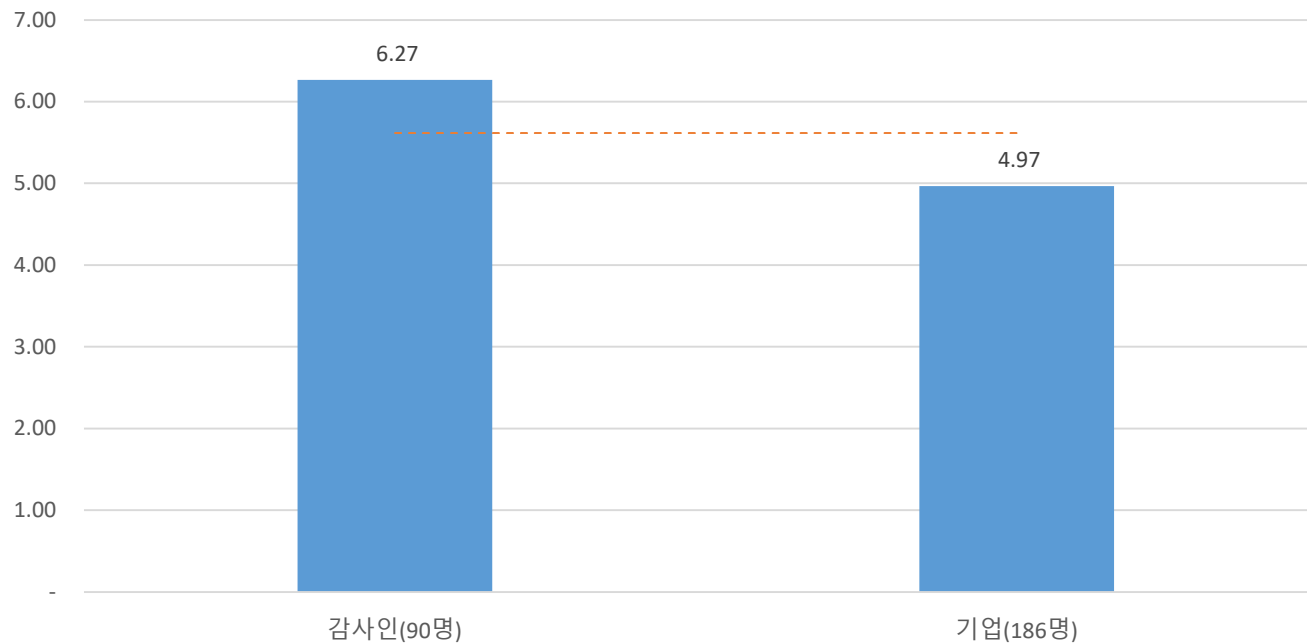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감사인, 기업 공통 질문)

Q2-4. K-IFRS 도입 이후 **감사위험**(감리지적가능성, 소송위험 등)이 증가하였는가?

- 감사인과 기업 모두 **증가**(평균 5.62)한 것으로 답변
- 다만, **감사인(6.27)**이 **기업(4.97)**보다 감사위험 증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차이 1.30, $p\text{-value}<0.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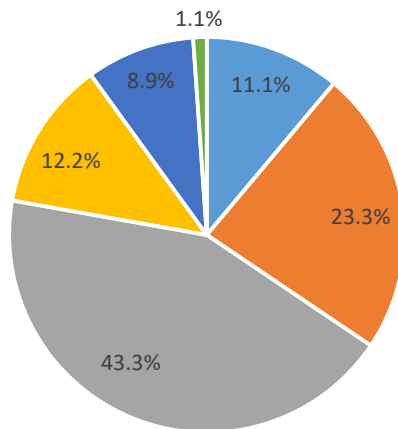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감사인, 기업 공통 질문)

Q2-5. K-IFRS의 회계신인도 제고 기여를 위해 **회계법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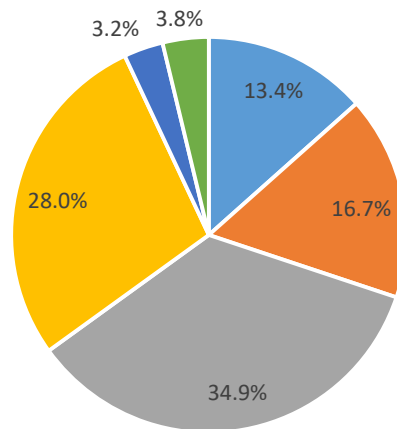
- 감사인, 기업 모두 '감사 참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제고(회색)'를 가장 필요한 요소로 답변
- 두 번째 필요 요소의 경우 감사인은 '회계법인 내 교육과 연구기능의 강화(주황색)'를, 기업은 '실적보다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파트너 평가제도 개선(황토색)'으로 답하며 약간의 인식 차를 드러냄

감사인(90명)



■ 1 ■ 2 ■ 3 ■ 4 ■ 5 ■ 기타

기업(186명)



■ 1 ■ 2 ■ 3 ■ 4 ■ 5 ■ 기타

(선택보기)

- ①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 관련 부서의 역할 강화
- ② 회계법인 내 교육과 연구기능의 강화
- ③ 감사 참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제고
- ④ 실적보다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파트너 평가제도 개선
- ⑤ 회계법인의 엄격한 감사시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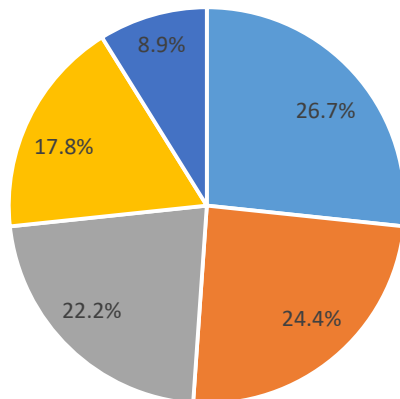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감사인, 기업 공통 질문)

Q2-6. K-IFRS의 회계신인도 제고 기여를 위해 회계업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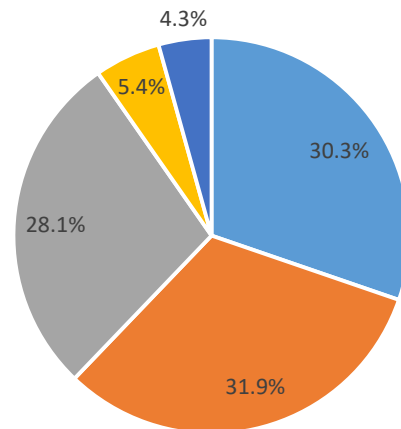
- 감사인, 기업 모두 '감사인 간 상호존중 문화의 형성(연파랑)', '감사인 간 실적 위주의 과다 경쟁 지양(주황색)', '대형회계법인과 중견·중소회계법인의 상생협력 문화 형성(회색)' 등 여러 요인을 필요 요소로 답변
- 다만, 감사인의 경우 '상장법인감사인등록제의 정착(황토색)'의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

감사인(90명)



■ 1 ■ 2 ■ 3 ■ 4 ■ 기타

기업(186명)



■ 1 ■ 2 ■ 3 ■ 4 ■ 기타

(선택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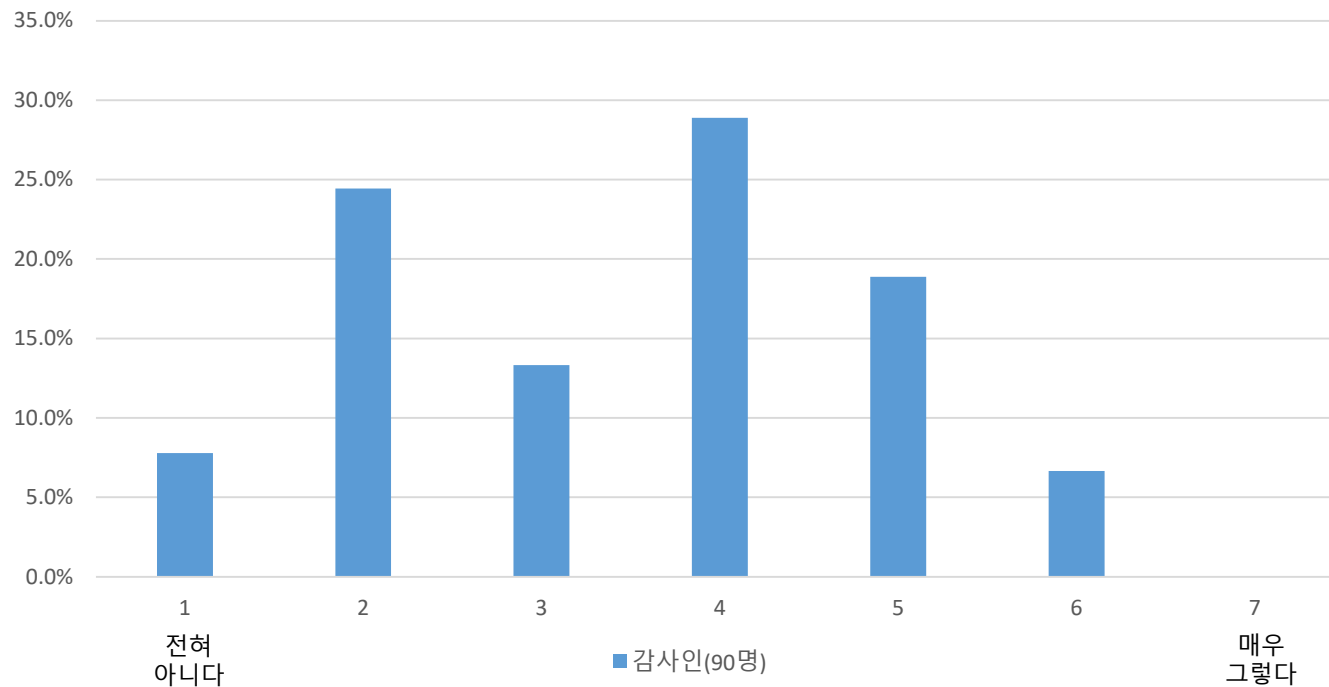
- ① 감사인 간 상호존중 문화의 형성
- ② 감사인 간 실적 위주의 과다경쟁 지양
- ③ 대형회계법인과 중견·중소회계법인의 상생협력 문화 형성
- ④ 상장법인감사인등록제의 정착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감사인 고유 질문)

Q3-1. K-IFRS 도입 이후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졌는가?

- 전체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역량이 여전히 **다소 부족**(평균 3.47)하다고 답변
- 이러한 인식은 회계법인 유형별로 큰 편차 없이 전체적으로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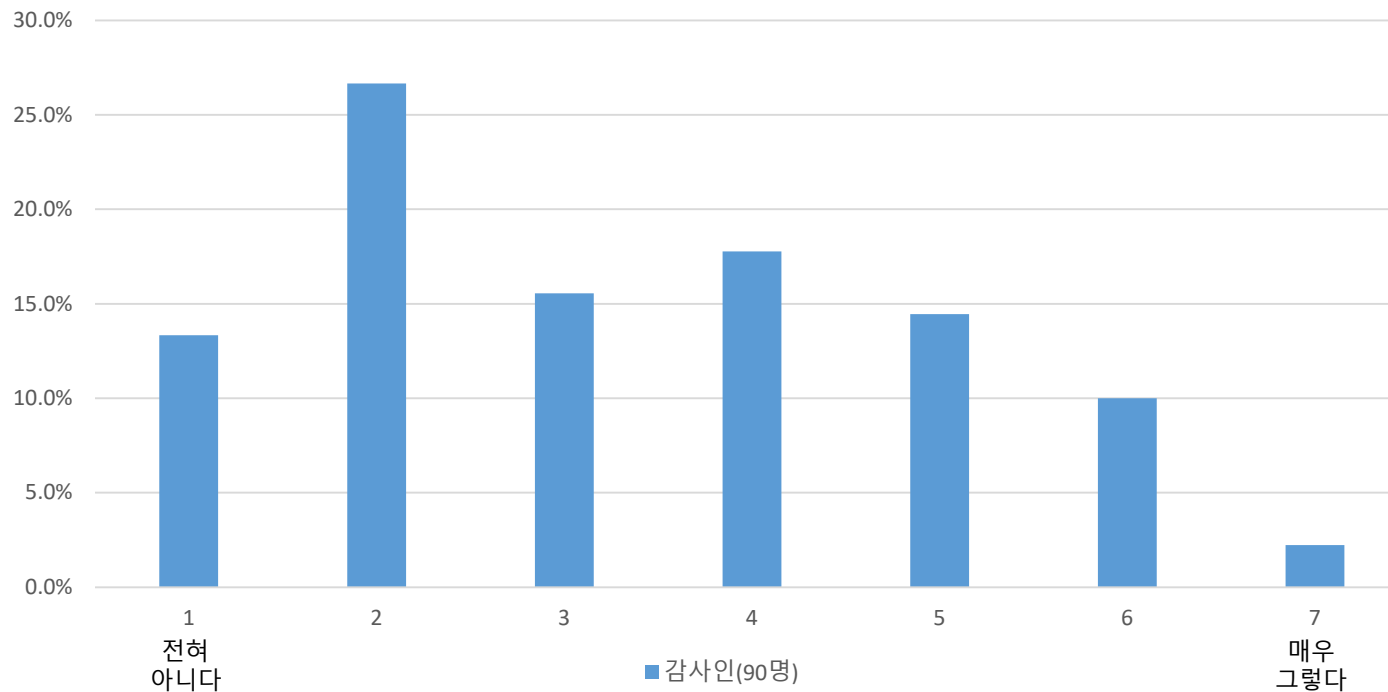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감사인 고유 질문)

Q3-2. K-IFRS 도입 이후 이해관계자의 연결재무제표 활용 정도가 높은가?

- 전체적으로 연결재무제표 활용도가 낮은 수준(평균 3.32)인 것으로 답변
- 이러한 인식은 회계법인 유형별로 큰 편차 없이 전체적으로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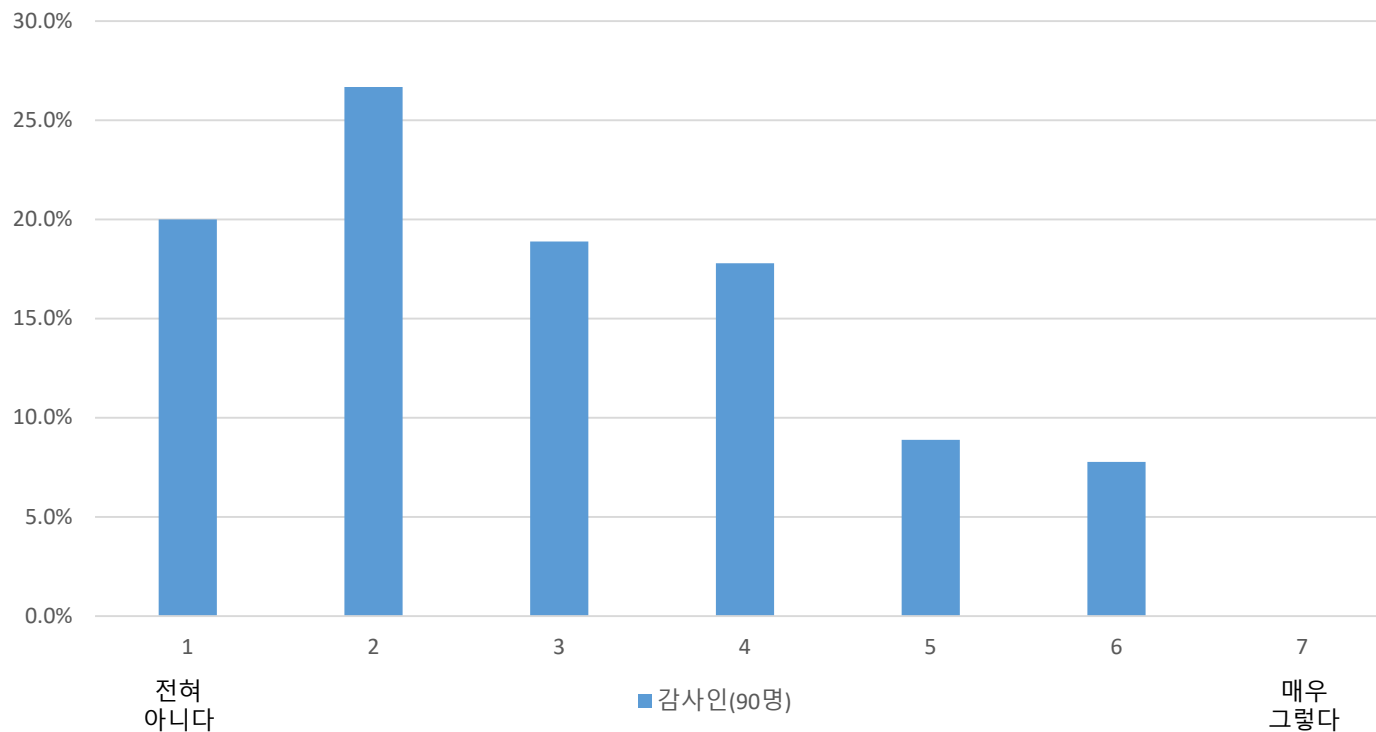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감사인 고유 질문)

Q3-3. K-IFRS 도입 이후 질의회신 업무가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 전체적으로 질의회신 업무가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평균 2.92)고 답변
- 이러한 인식은 회계법인 유형별로 큰 편차 없이 전체적으로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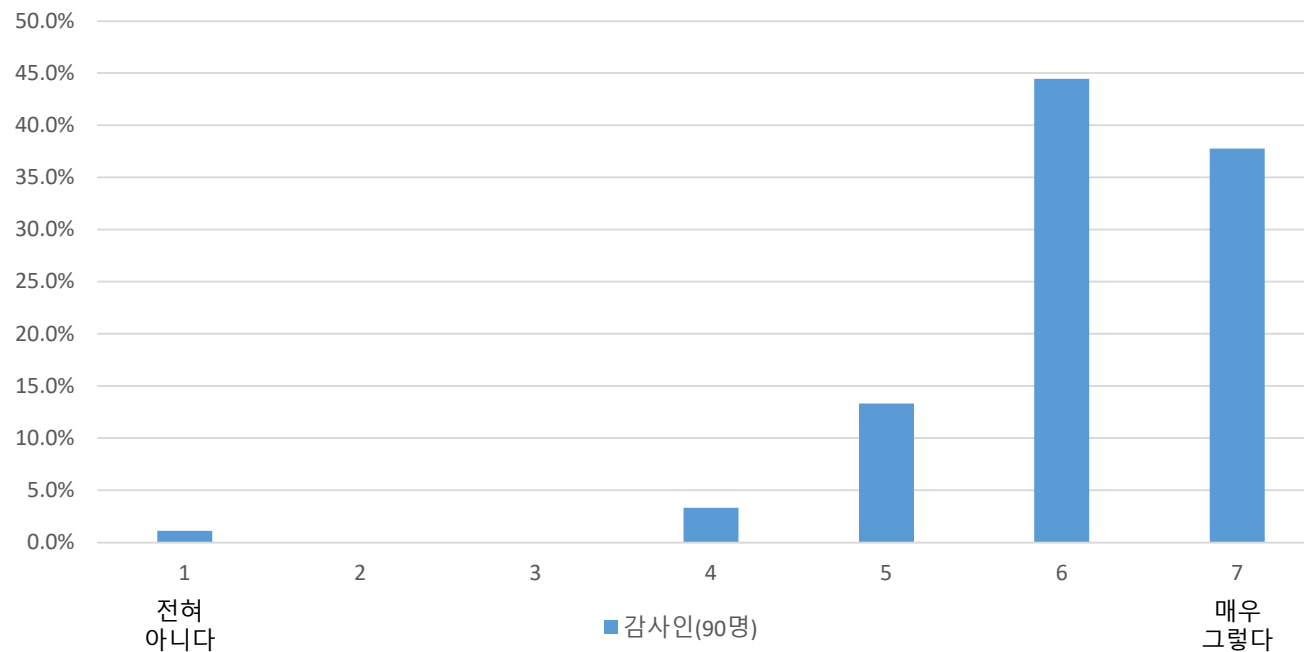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감사인 고유 질문)

Q3-4. K-IFRS 도입 이후 회계법인에서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는가?

- 전체적으로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증가**(평균 6.12)했다고 답변
- 품질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장법인감사인 **등록법인**(Big4 6.20, Non-Big4 6.18)이 **미등록법인**(Non-Big4 5.86, 감사반 5.50)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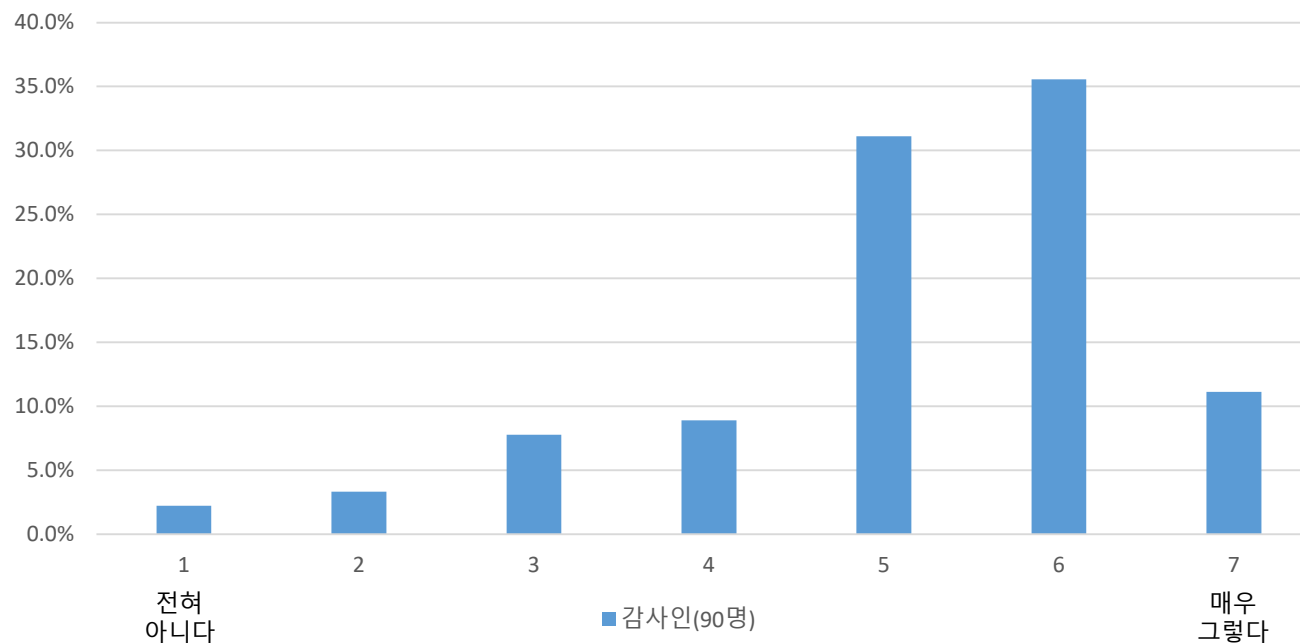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설문조사 결과(감사인 고유 질문)

Q3-5. K-IFRS 도입 이후 회계법인에서 교육과 연구기능이 강화되었는가?

- 전체적으로 교육과 연구기능이 **상당히 강화**(평균 5.14)되었다고 답변
- 다만, 교육과 연구기능 강화 현상은 **4대 회계법인**(5.73)이 다른 유형의 회계법인(등록 Non-Big4 4.78, 미등록 Non-Big4 4.71, 감사반 5.2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사단법인
한국회계정보학회
www.kaia-edu.or.kr

PART

V

소결 및 정책제언

V. 소결 및 정책제언

V-1. IFRS 도입이 감사 분야에 미친 영향

[기업]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난이도 증가와 IFRS 전문인력 부족
- 재무정보 생산비용 증가

[기업과 감사인 및 감독당국]

- 기업과 감사인 및 감독당국 간 의견불일치 증가

[감사인]

- 감사업무 난이도 증가와 불확실성 증가로 감사위험 증가
- IFRS 도입 후 법률리스크 증가

V. 소결 및 정책제언

V-2. 감사 분야의 개선방안

[기업]

- 재무제표 작성역량 제고와 주요 회계이슈를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회계 전문인력 확보
- 기업내 회계정보의 중요성 인식과 회계 관련 인력에 대한 지출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최고경영진의 인식 전환 필요
- PA(Private Accountant)서비스(공정가치 평가보고서, 법률검토 의견서 등) 활용

V. 소결 및 정책제언

V-2. 감사 분야의 개선방안

[감사인]

- 회계법인 내 **품질관리제도의 정착과 품질관리의 중요성 강화**
예) 감사 시 품질관리부서의 검토를 요하는 필수항목 지정 등
- 회계법인 내 **교육과 연구기능의 강화**와 감사 참여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제고**
예) 산업전문 공인회계사 양성
- 회계법인 내 **감사시간의 관리 강화**로 감사시간의 신뢰성 확보
- 감사인 간 **상호존중 문화** 제고

V. 소결 및 정책제언

V-2. 감사 분야의 개선방안

[감독당국]

- 감사분야에서 바라본 감독 관련 개선방안

- **유연하고 예측가능한 감독과 제재보다 계도 중심의 감독 확대**
- **기업과 감사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감독. 복수의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감독 실시.**
예) 오류가 아닌 새로운 사실에 의한 추정 변경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재작성이 아닌 전진적인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 감리 제외 검토.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법인의 등록요건의 재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예) 실질적인 one firm 운영, 감사품질에 의한 파트너 실질적인 평가 유도.

V. 소결 및 정책제언

V-3. 소결

- 본 연구는 IFRS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IFRS 도입이 감사 분야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IFRS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함
 - 이러한 평가를 통해 IFRS 도입이 회계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IFRS 도입 10년의 평가를 통해 향후 10년간 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개선할 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향후 과제를 제안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의 시행을 통해 **향후 10년간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한 IFRS 발전 로드맵(감사분야)**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회계감사 과정의 효율성과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우리나라가 회계신인도 평가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감사 분야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장 감독

김이배(덕성여대), 정광화(강원대), 박성종(안양대), 최승욱(경희대)

목차

- I. 서론
- II. 문헌 및 규정 검토
-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 IV. 향후 정책 대안
- V. 결론

PART

서론

I. 서론

I-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필요성

- IFRS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 동안 IFRS 도입이 우리나라 회계 감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우리나라 회계발전을 위하여 회계감독제도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

- 목적

- 본 연구는 IFRS 도입이후 회계감독분야의 변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미래의 한국 회계 발전을 위한 회계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 서론

I-2. 연구 내용 및 방법

- IFRS 도입 이후 회계감독제도 검토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회계제도의 변천
- 문헌검토
 - 2020 회계선진화 비전과 전략 (2010년)
 -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1년)
 - 한국의 IFRS 도입 5년 : 성과와 과제 (외부감사와 회계감독제도) (2016년)
 -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 (2016년)
 - 회계감리제도 선진화를 위한 재무제표 심사 및 외부감사인 감리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8년)
 - 원칙중심 회계 (2019년)
- FGI 및 설문조사
 - 금융감독원 / 회계법인 / 기업

PART



문헌 및 규정 검토

II. 문헌 및 규정 검토

II-1. 연구 대상 제도

- 외감법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재무제표
심사
 -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 2)재무제표
감리
 -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3)감사인
감리

II-2. 문헌 및 규정 검토

PART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FGI 대상: 금융감독원 / 회계법인

- 1. IFRS 도입은 회계감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기준이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으로 하여금 올바른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회계감독의 근본 목적에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됨
 - IFRS 도입이 회계감독방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IFRS 도입은 적용되는 GAAP의 변화일 뿐이므로 회계감독의 변화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음)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1. IFRS 도입은 회계감독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 IFRS 도입 자체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회계감독제도 분야에서의 유의적인 변화는 실질적으로 크게 없음
 - 단, IFRS 자체의 복잡성이나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이 기존보다는 더 빈번하게 발생
 - 회사의 자발적 재무제표 재작성에 대해 감독기관이 심사나 감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심사나 감리 건수도 증가
- 요약: IFRS 도입으로 인한 유의적인 회계감독제도의 변화는 없었으나, IFRS 적용시 감독기관과 감사인 및 피감기업 사이에 해석의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2. IFRS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독기관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방식 자체가 유의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
 - 감리방식 등의 변경으로 인한 어려움의 증가 역시 크지 않음
 - 다만, IFRS 하에서 연결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로 인한 감독기관과 회사(및 감사인)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상황이 과거에 비해 증가
 - 감독기관이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 결론을 부정적으로 또는 오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 발생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2. IFRS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 부문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보고서를 받은 경우, 이후 종속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추후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연결감사인으로서 어디까지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 존재
 - 회계감사기준 600(그룹재무제표 감사)에 의한 연결감사시 이에 대한 감사계획 및 이행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함

- 요약: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방식에 유의한 변경은 없었음. 다만, 연결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의 차이 및 부문감사인과 연결감사인의 책임 문제 존재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3. 회계심사 제도(테마심사 포함)와 관련하여 귀하의 클라이언트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심사 착수 및 진행 시기 결정시 기말 결산 및 감사업무가 집중되는 기간(12월말 1~3월)을 제외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감사업무 집중 시기의 심사 착수는 회사와 감사인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어려움
 - 이는 부실 감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실제로 회사가 공시시준임을 고려하여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례도 있음
 - 심사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말시즌을 피해 심사가 착수 및 종료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3. 회계심사 제도(테마심사 포함)와 관련하여 귀하의 클라이언트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감독당국과의 이견은 빈번하게 발생. 예를 들어, 연결대상여부에 대한 판단,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수익인식 등
 - 현재 심사과정에서 심사, 감리를 담당하는 감독당국 담당자를 설득하는 방법 외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심사를 담당하는 감독당국 담당자의 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음
 - 재무제표 심사 자료 요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자료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 요약: 회계심사에 있어 사실관계 판단시 감독당국과 기업, 감사인 사이의 이견 빈번하게 발생. 심사결과 등이 감독당국 담당자의 성향에 많이 좌우되어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4. 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감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독당국의 감리기간(재무제표 심사도 마찬가지로)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할 필요 있음
 - 회계처리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동 기간 중 심사나 감리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기준원 등 감독당국이 아닌 외부기관을 통해 이견이 되는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증선위가 심사나 감리의 연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를 고려할 필요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4. 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감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 회계처리 판단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View 인정 필요
 - 원칙중심의 IFRS하에서 특정 회계처리의 판단에 있어 의견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소수의 의견이 조치를 받을 정도의 명백한 오류인지 재검토 필요함
 - 조치기관이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의 해석 필요
 - 이해관계가있는 조치기관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민간기구인 회계기준원의 전문적인 기준서에 대한 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
 - 감리담당자의 판단에도 도움이 되며 피조치자 수용성도 제고될 것
 - 조치 예정(안)의 열람 허용이 필요함
 - 피조치자는 위반 근거, 위법행위 동기에 대한 감리집행기관의 주장을 알지 못하여 정보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감리가 진행됨
 - 따라서 감리위나 증선위에 참석하기전 조치예정(안)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부여가 필요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4. 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감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 감리담당자 변경 최소화
 - 감리장기화로 담당자가 변경되면 기재출 자료 및 논의 중 이슈에 대하여 자료를 다시 제출하거나 반복 설명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 초래
 - 감리기한 및 예상 일정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시 제한적으로 변경
 - 감리착수후 소송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감리가 1-2년 동안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 연관된 소송이 있거나 회사의 자료 제출이 비협조적인 경우 등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리 착수 후 1년내에 종료하도록 하는 기한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심사는 3개월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담당자가 동 기한내에 종료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긍정적인 효과 있음
 - 요약: 회계처리 판단사항에 대한 다양성 인정 필요, 감리기간의 연장시 연장기간의 상한성을 제도화 할 필요, 감독기관 담당자 변경 최소화, 감독기관과 기업 사이의 이견 발생시 독립적인 제3기관의 해석을 받는 것 필요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5. 품질관리 감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품질관리시점마다 감리담당자 별로 편차가 커 공정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절차 및 통제에 대한 점검 시 발견된 사항에 대한 지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전에 허용 오류를 정의하고 질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금감원이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인지한 Best Practice들을 사전에 주기적으로 회계법인들에게 안내하여, 회계법인들 스스로 이를 품질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
- 요약: 담당자 변경 최소화 필요,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품질의 적정성을 감리이전에 파악하여 사전에 회계법인이 자체적으로 우수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 필요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6. 재무제표 심사, 감리(재무제표 감리 및 감사보고서 감리), 품질관리 감리에서 기업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취한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갈등 경험 과정에서 감사인께서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있으며, 또한 연결범위에 대한 이견, (전임/신임) 감사인 사이의 이견, 무형자산, 이연법인세 등에서 이견이 많음
 - 감독기관은 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려고 노력
 - 내부적으로 내부 팀장회의, 필요시 국장회의 등을 거쳐서 객관적인 의견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객관적 의견을 위한 노력을 IFRS 체제하에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6. 재무제표 심사, 감리(재무제표 감리 및 감사보고서 감리), 품질관리 감리에서 기업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해당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취한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갈등 경험 과정에서 감사인께서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계속)
 -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해 회사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회계처리하였으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인정되지 않았음
 - 연결범위와 관련하여 지분율, 영업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연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처리 판단에 다양한 관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치기관이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의 해석 필요
- 요약: 감독기관은 최대한 객관적인 조치 및 판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피감리자의 체감도는 다소 떨어짐. 감사인은 IFRS하에서 회계처리 판단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이 잘 안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독립적인 기관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7. 향후 회계감독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감독기구에는 어떤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에서도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시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
 - 회사의 IFRS 위반에 대하여 기계적인 양정을 적용하기 보다 각 개별 상황별 회계처리 위반이 외부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유연화 할 필요가 있음
 - 원칙중심 IFRS이지만 그 원칙이 맞는지 의구심이 있으며 이는 성선설이 옳느냐, 성악설이 옳느냐의 문제와 유사
 -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대형회계분식에 대한 감독방향에 대해서는 (1)기업의 역할 (2)감사인의 역할 (3)그 다음 감리의 역할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1. FGI 결과

- 7. 향후 회계감독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감독기구는 어떤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 우리나라의 회계감독기구는 자본시장 전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일부 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는 바 감독대상기업 대비 회계감독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
 - 조직 내 순환근무로 전문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
 - 독립적인 회계감독기구의 설치를 통한 감독인력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
 - 요약: 일부 감독기구의 전문가들은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에서 기계적인 양정기준 적용보다 각 상황별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회계감독체계를 갖추어 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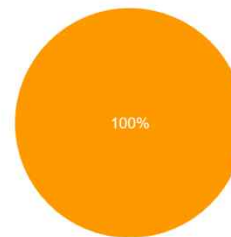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대상: 금융감독원 (41부) / 회계법인 (90부)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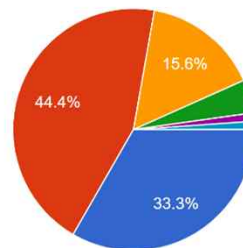
응답 41개



- 한국거래소
- 애널리스트
- 금융감독기관
- 대학교
- 유가증권 상장사
- 코스닥 상장사
- 기타

- 감사인

응답 9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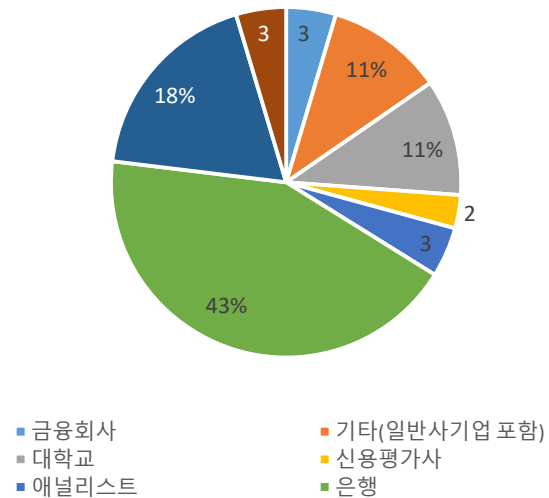
- ① 4대 회계법인(Big4)
- ② 상장법인감사인 등록법인(nonBig4)
- ③ 상장법인감사인 미등록법인(nonBig4)
- ④ 감사반
- 한국공인회계사회
- 법무법인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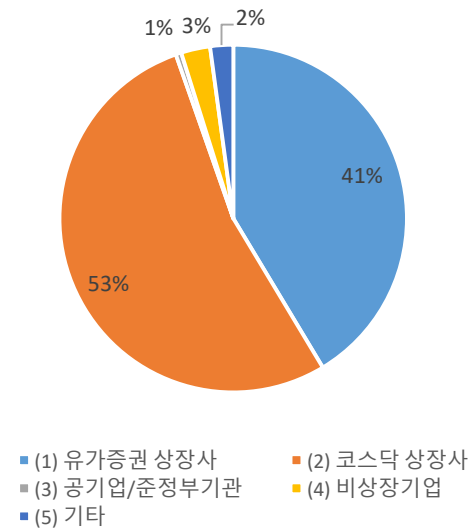
III-2.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대상: 이용자 (65부) / 작성자 (184부) / 학계 (49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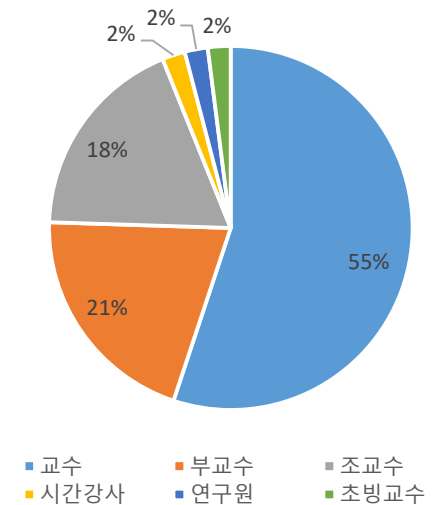
● 이용자



● 작성자



● 학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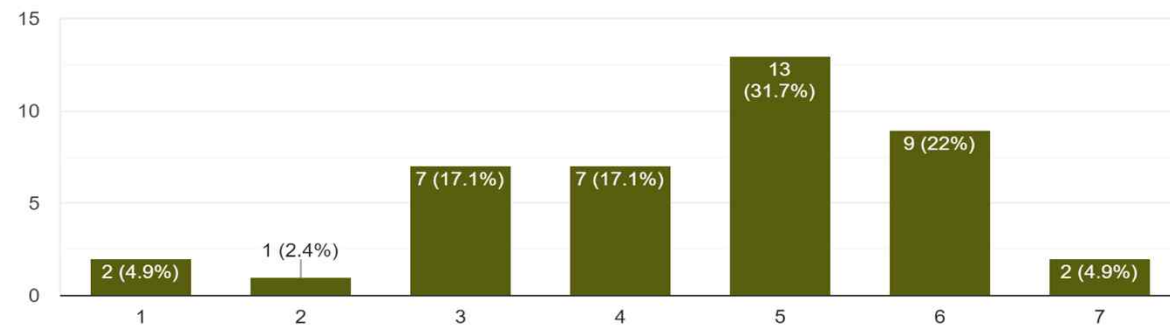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
(평균 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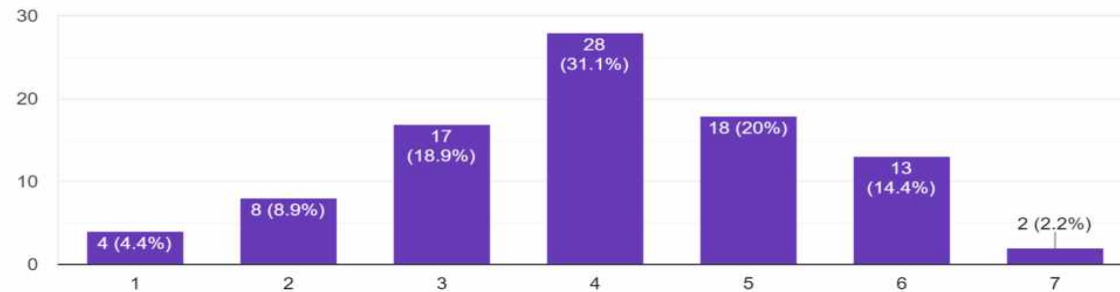
1. IFRS 도입은 우리나라 회계감독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4.06)

응답 90개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IFRS의 도입이 회계감독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이 다소 우세 /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는 IFRS의 도입 영향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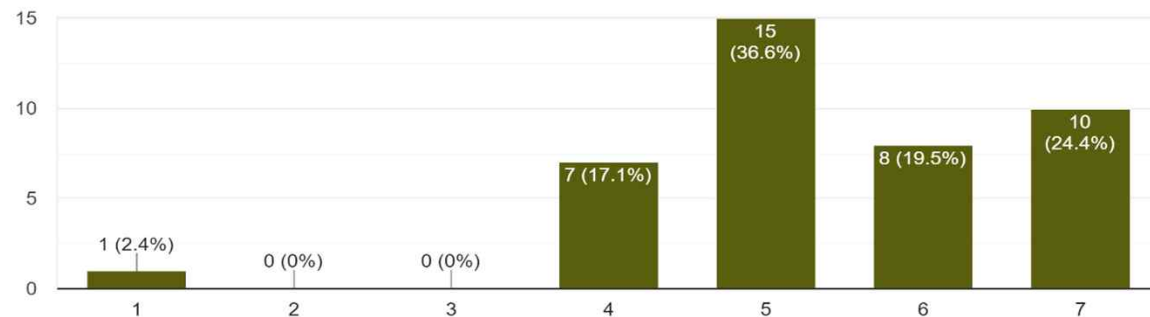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
(평균 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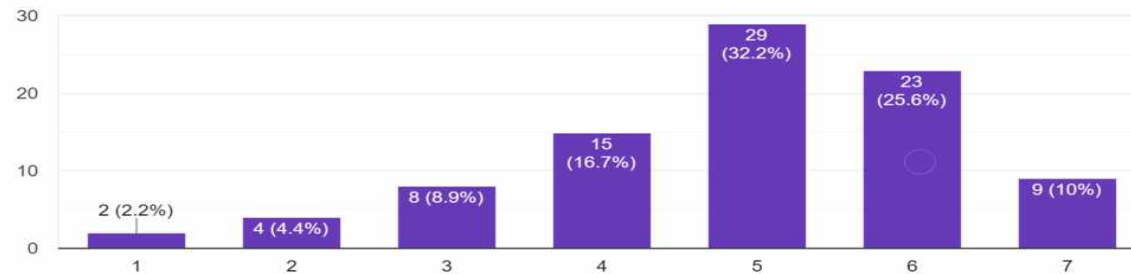
2-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감리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4.89)

응답 9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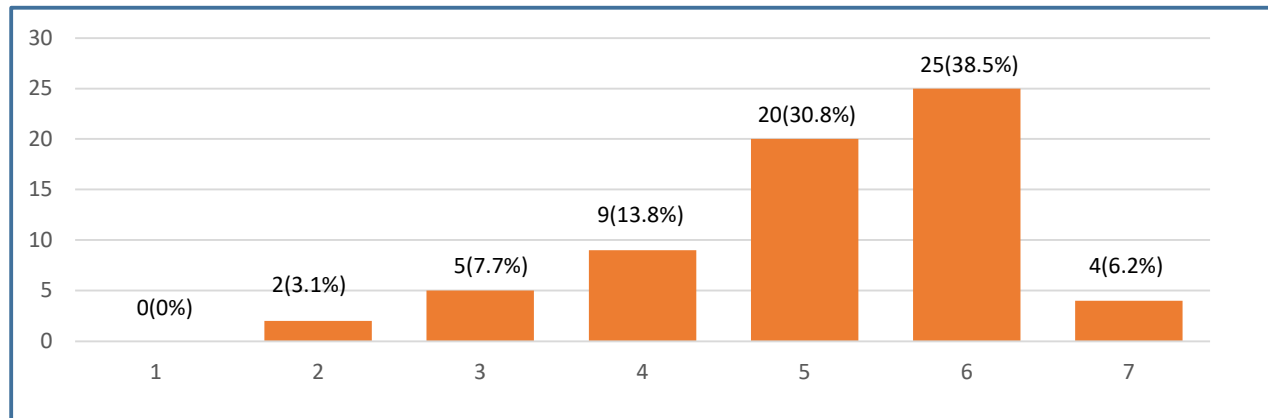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IFRS의 도입 이후 감리제도에 변화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 /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 감리제도에 변화가 다소 있다는 것으로 판단됨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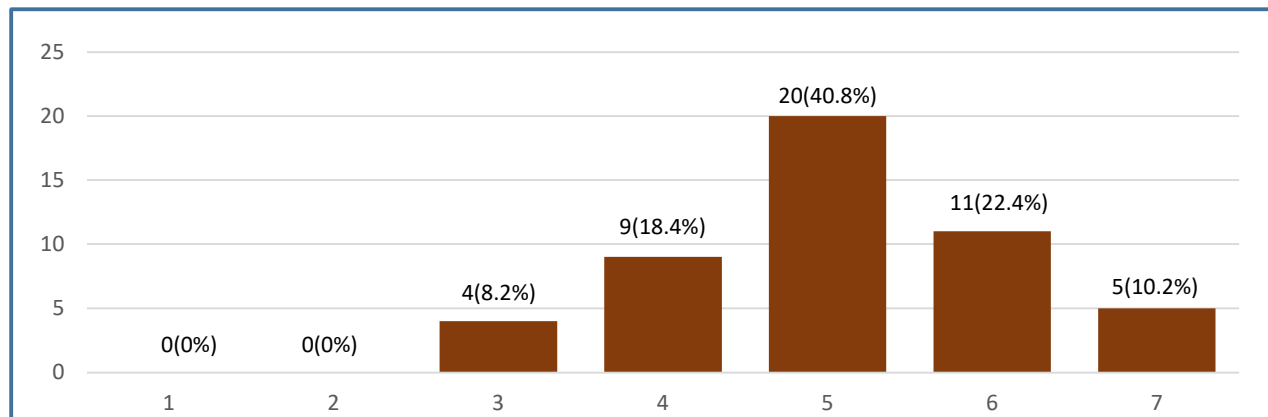
III-2. 설문조사 결과

2-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감리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자
(평균 5.12)



● 학계
(평균 5.08)



- 결과 요약: 회계정보 이용자와 학계의 응답자 모두 변화가 있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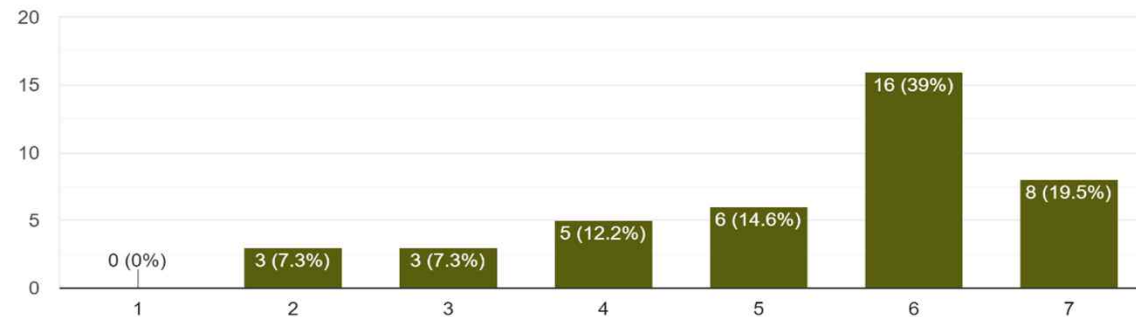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감리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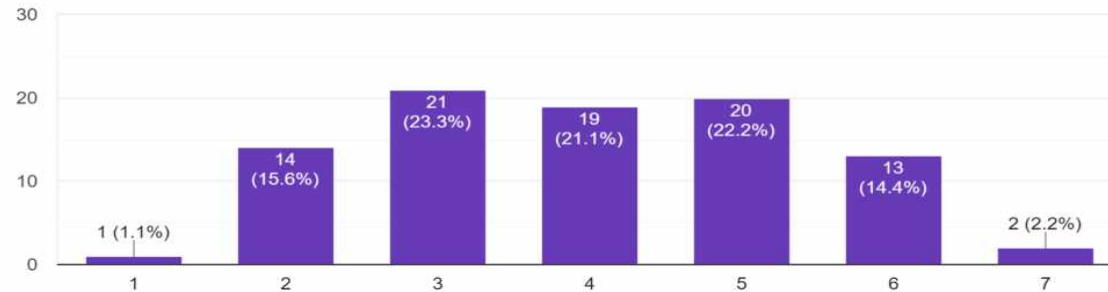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
(평균 5.29)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4.01)

응답 9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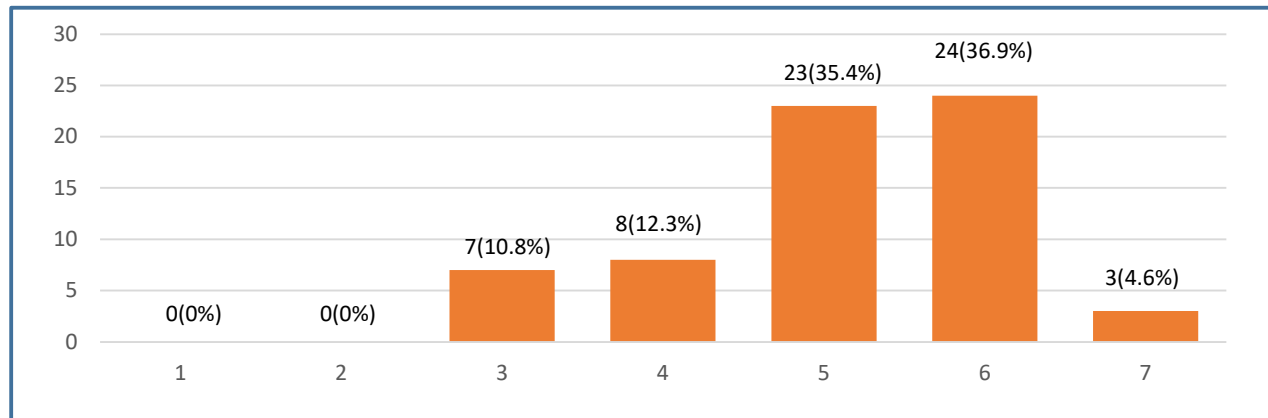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IFRS의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감리제도가 정착되었다는 시각이 우세함 / 반면,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는 정착되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음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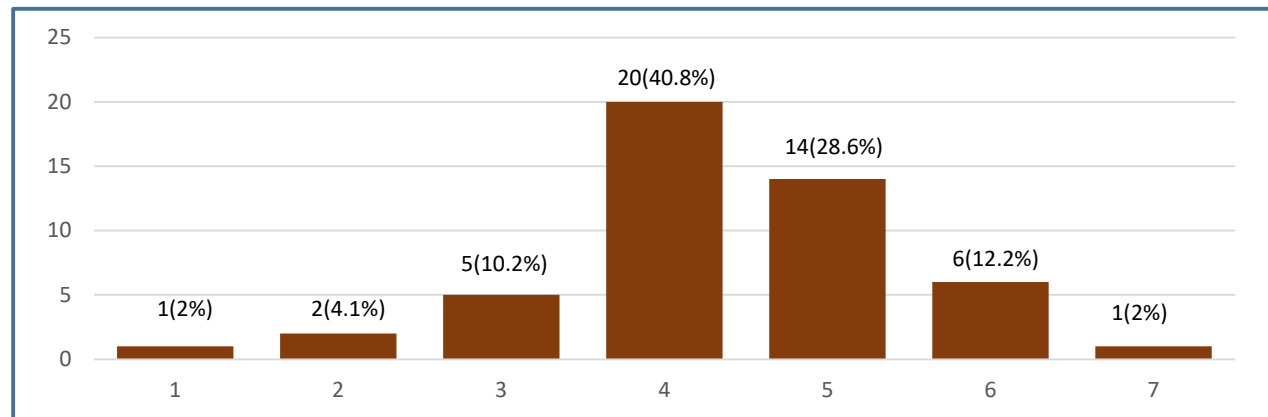
III-2. 설문조사 결과

2-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위주의 감리제도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자
(평균 5.12)



● 학계
(평균 4.35)



- 결과 요약: 회계정보이용자는 대체로 정착되었다는 판단이 우세, 학계는 이견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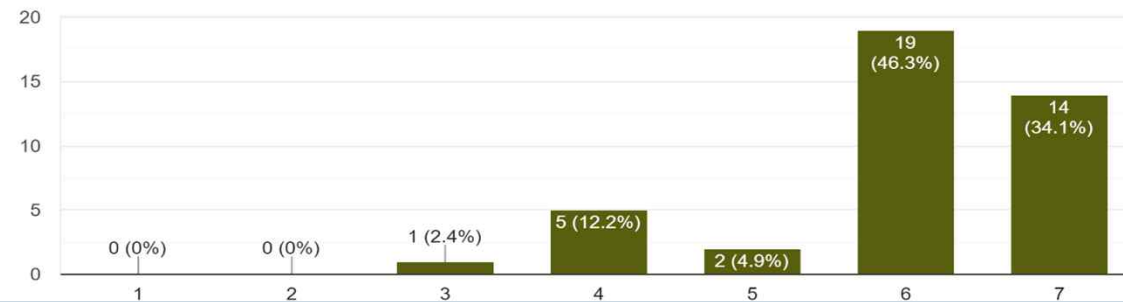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2-3. 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테마감리를 실시하였으며, 재무제표 심사가 도입된 이후에는 테마감리 대신 테마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테마감리(테마심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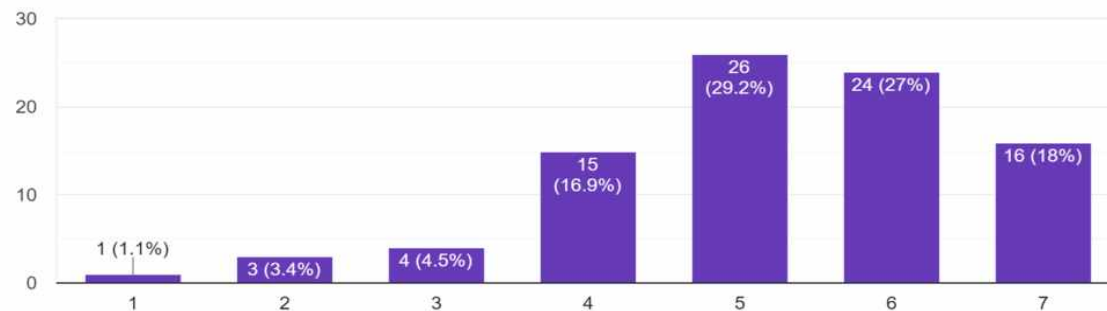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
(평균 5.98)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5.17)

응답 89개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테마감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 역시 테마감리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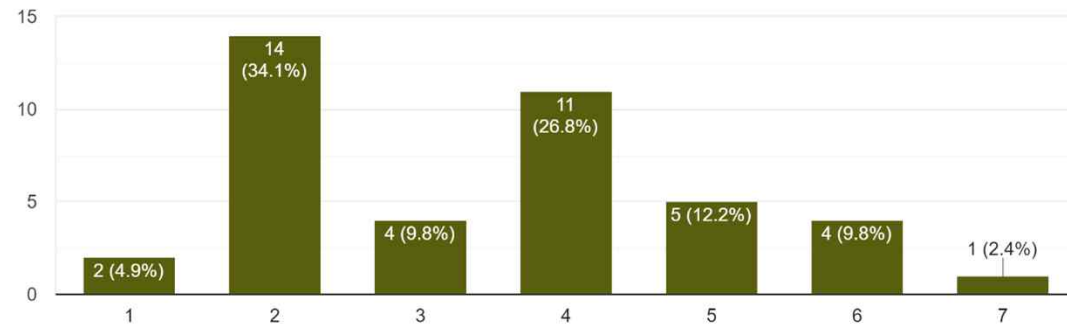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
(평균 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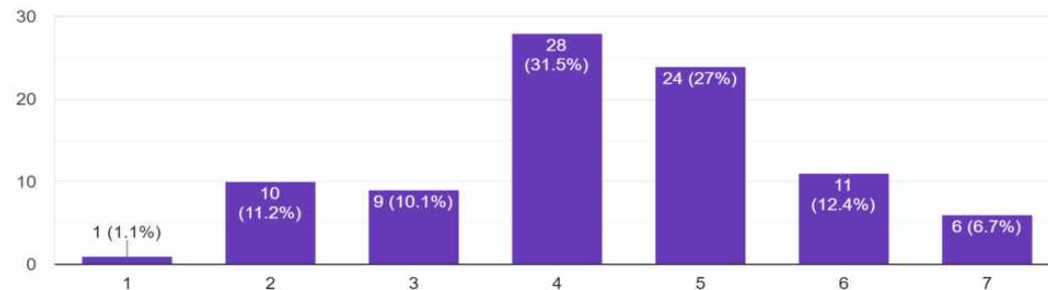
3-1. 현행 재무제표 심사 제도의 변경 필요성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4.31)

응답 89개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현행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함 /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 역시 상반된 의견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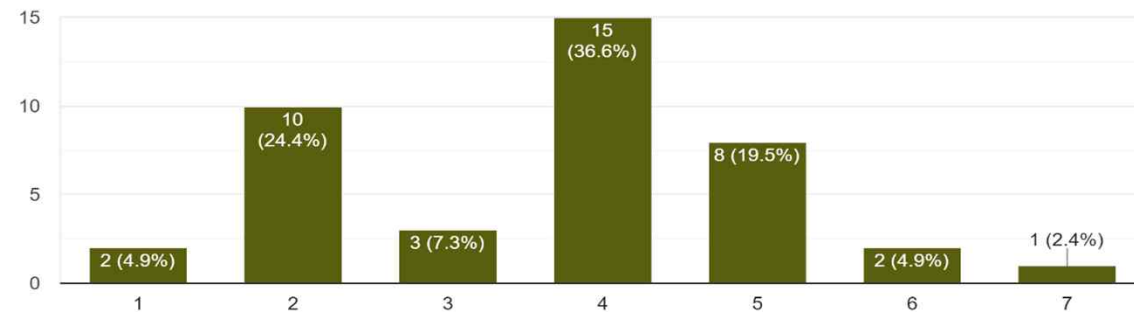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
(평균 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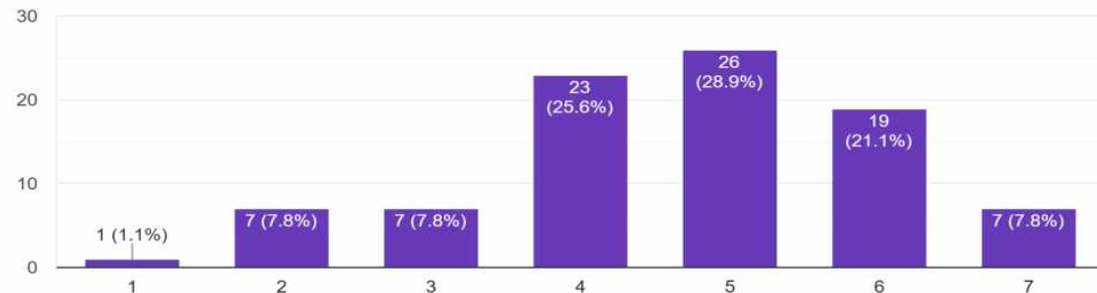
3-2. 현행 재무제표 감리 제도의 변경 필요성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4.68)

응답 90개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현행 재무제표 감리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 / 반면,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는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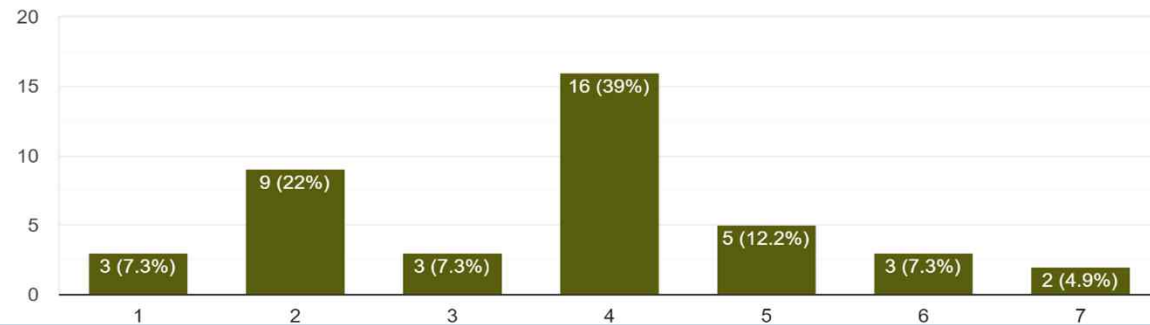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
(평균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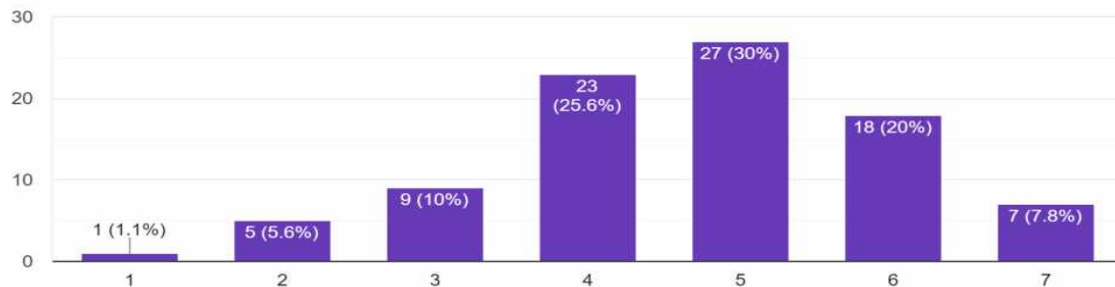
3-3. 현행 감사인 감리 제도의 변경 필요성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4.69)

응답 90개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현행 감사인 감리 제도의 변경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 / 반면,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는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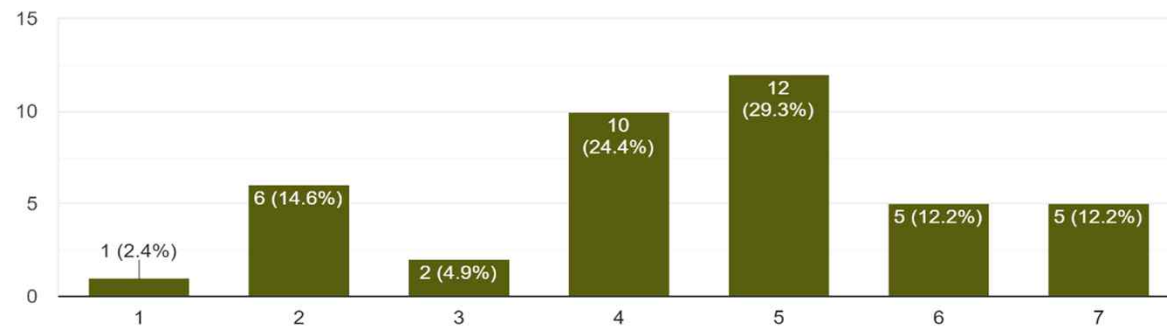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
(평균 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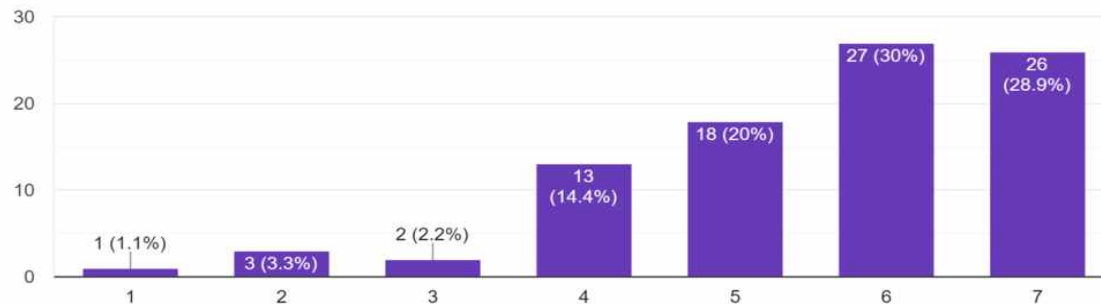
3-4. 원칙중심회계에 따른 현행 감독방향을 향후 재정립할 필요성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5.54)

응답 90개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현행 감독방향을 향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에서는 재정립 필요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확연히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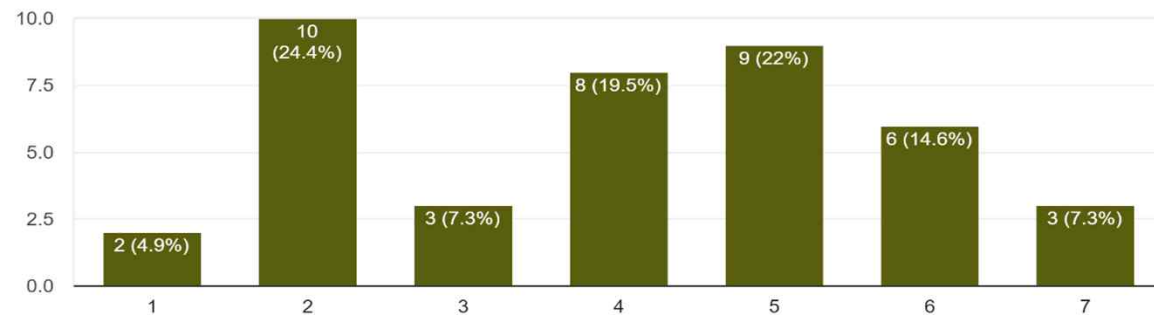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
(평균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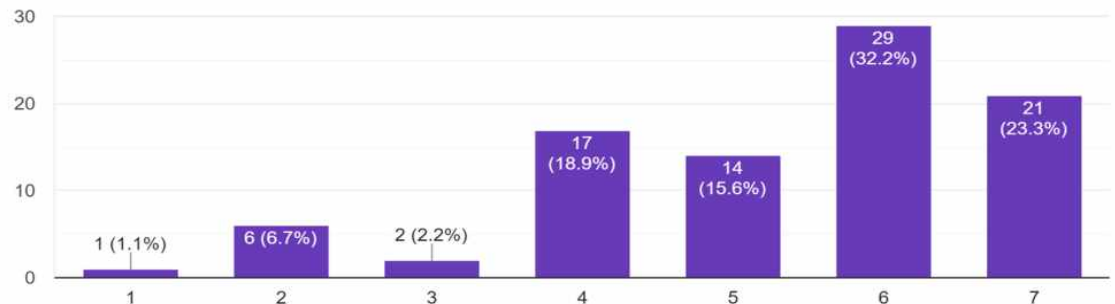
3-5. 자율규제 및 자율감독을 강화할 필요성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5.31)

응답 90개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자율규제 및 자율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 / 반면,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는 자율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우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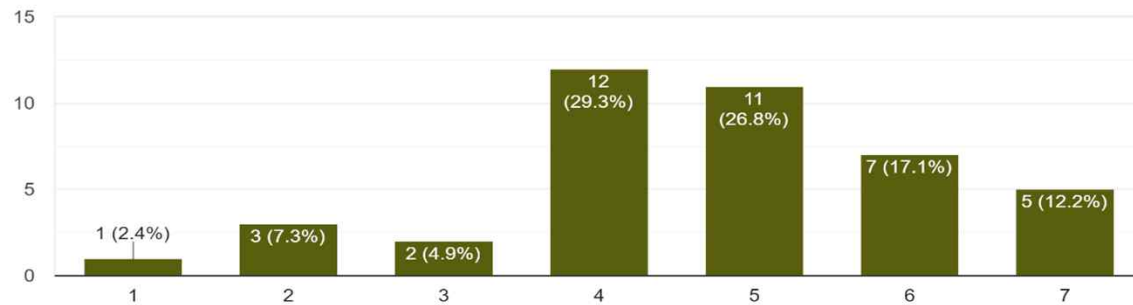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
(평균 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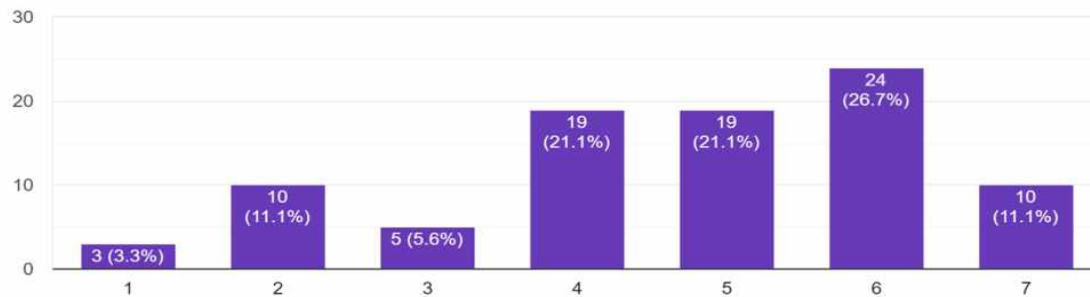
3-6. 향후 사전 감독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4.70)

응답 90개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사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소 우세함 /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 역시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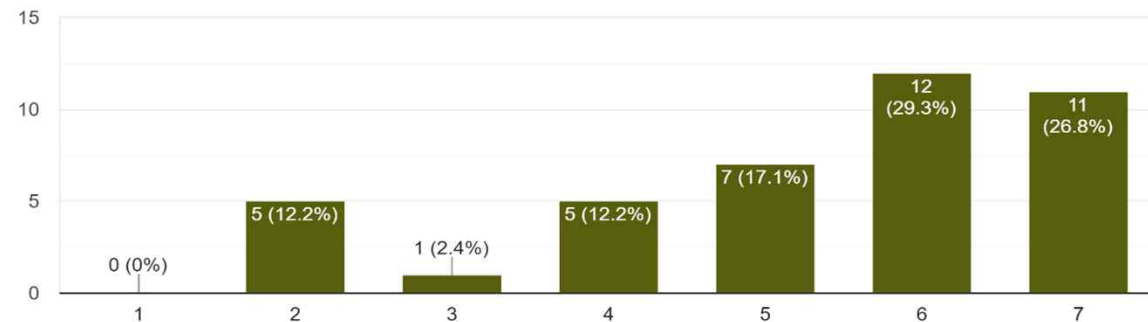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
(평균 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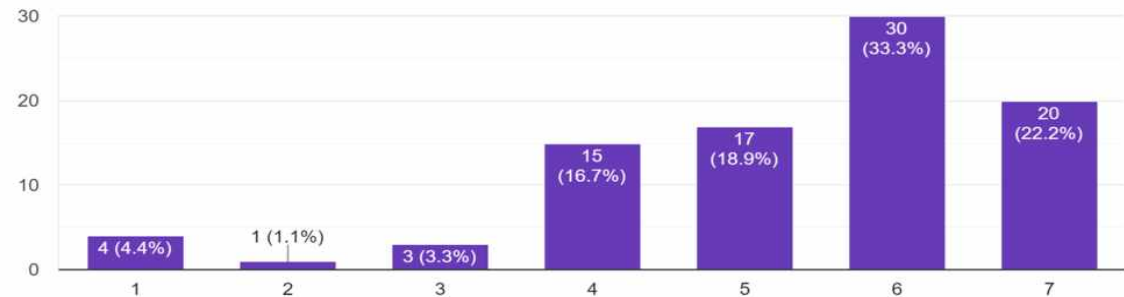
3-7. 회계감독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5.33)

응답 90개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회계감독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에서도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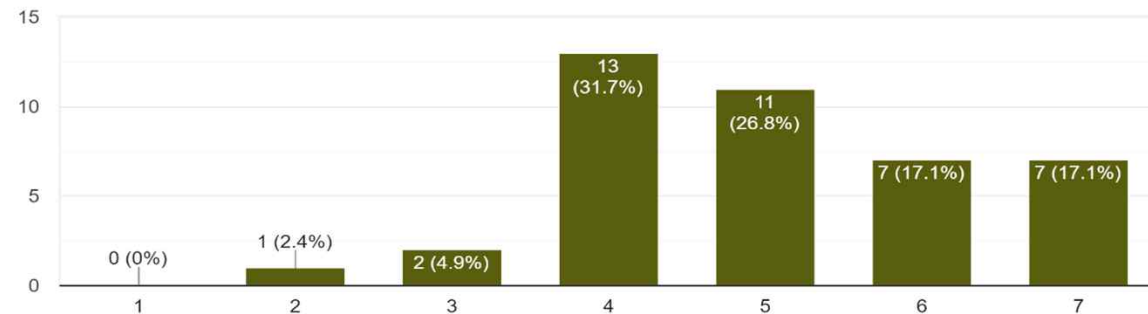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
(평균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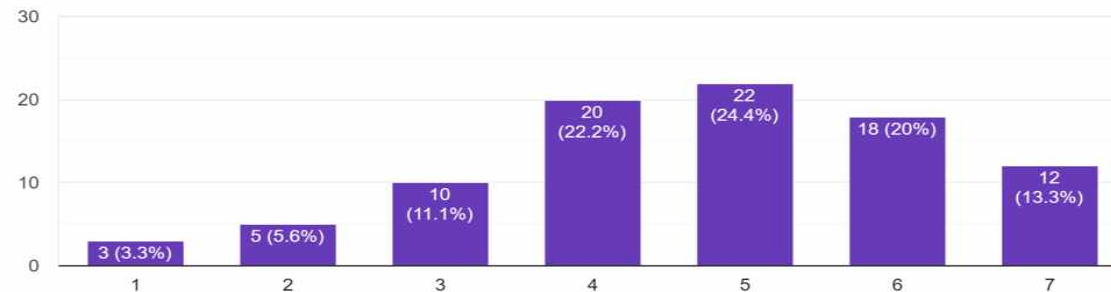
3-8. 회계감독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4.72)

응답 90개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회계감독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 역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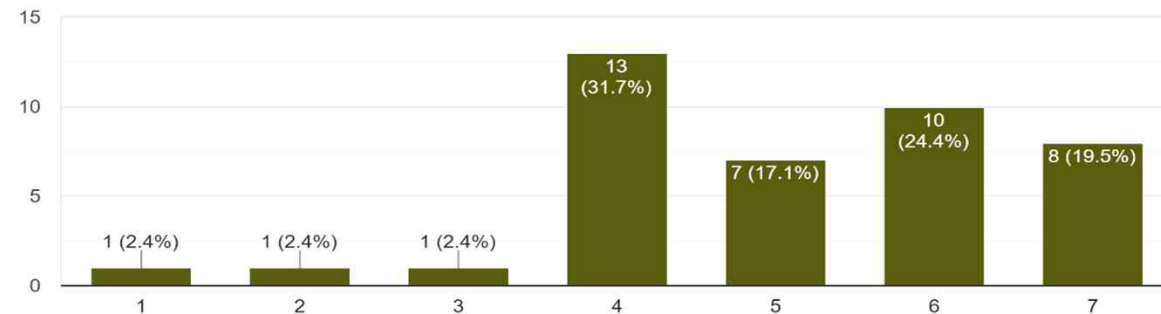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
(평균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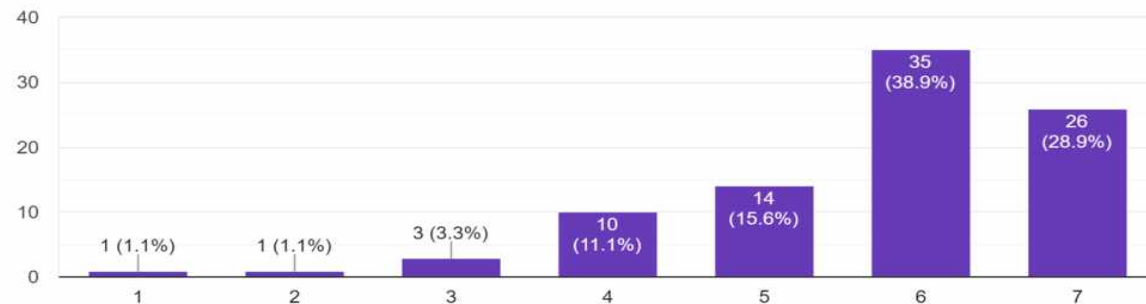
3-9. 회계감독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

응답 41개



- 감사인
(평균 5.71)

응답 9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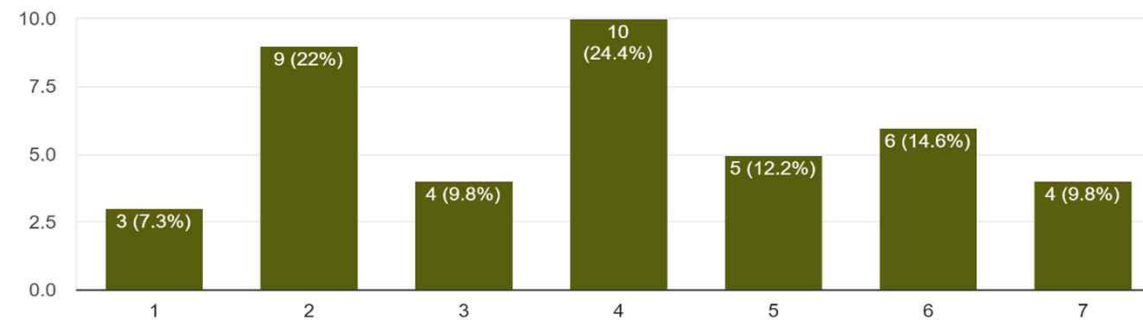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 역시 이와 유사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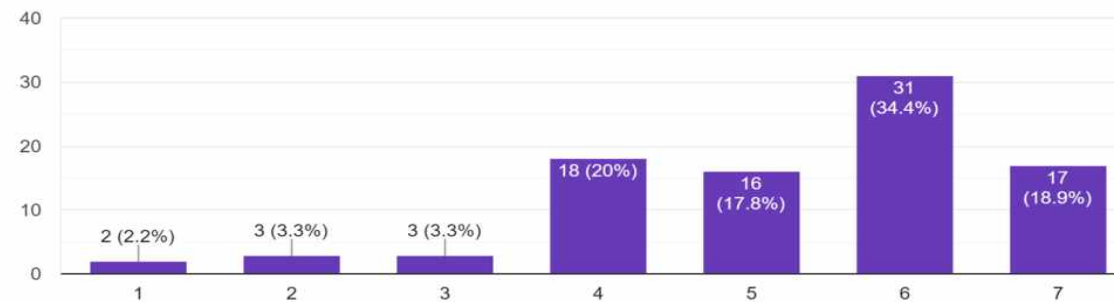
3-10.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감사원의 감사, 국민여론 등과 같은 외부요인이
감리결과에 미치는 영향

응답 41개



- 금융감독원
(평균 3.95)

응답 90개



- 감사인
(평균 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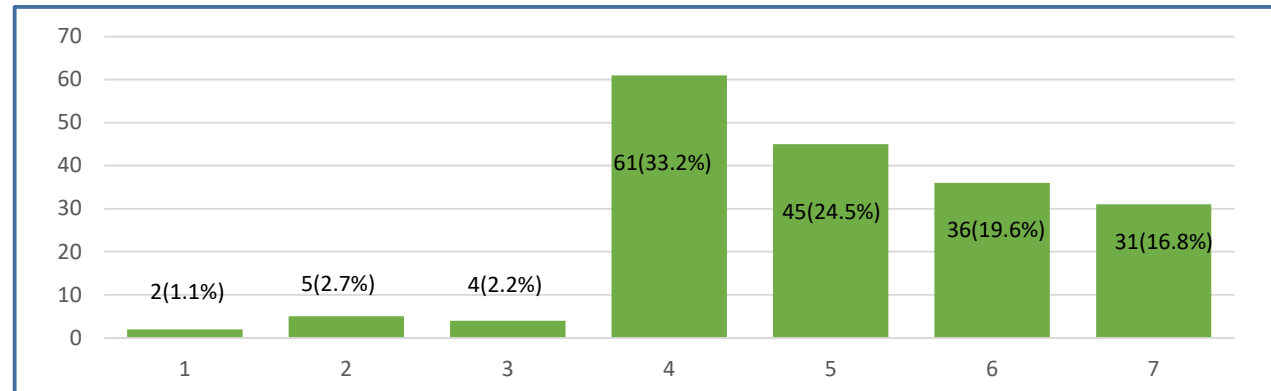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외부요인이 감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대해 이견이 존재함 / 반면,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는 외부요인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3-10.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위의 경영평가, 감사원의 감사, 국민여론 등과 같은 외부요인이 감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작성자
(평균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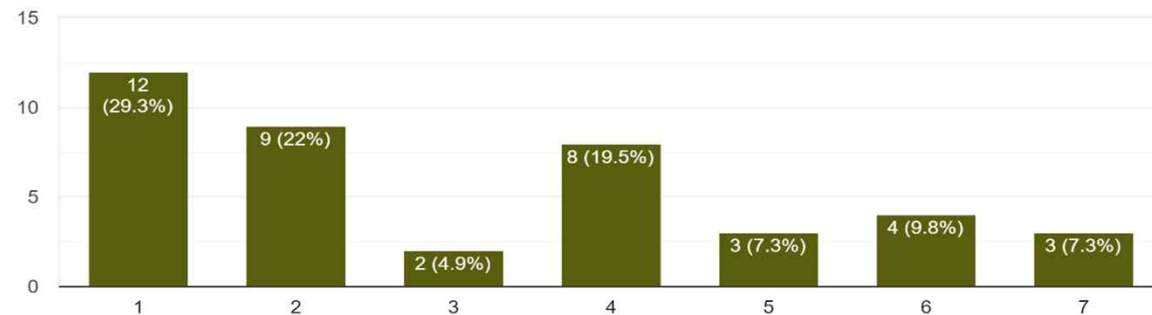
- 결과 요약: 회계정보 작성자는 외부요인이 감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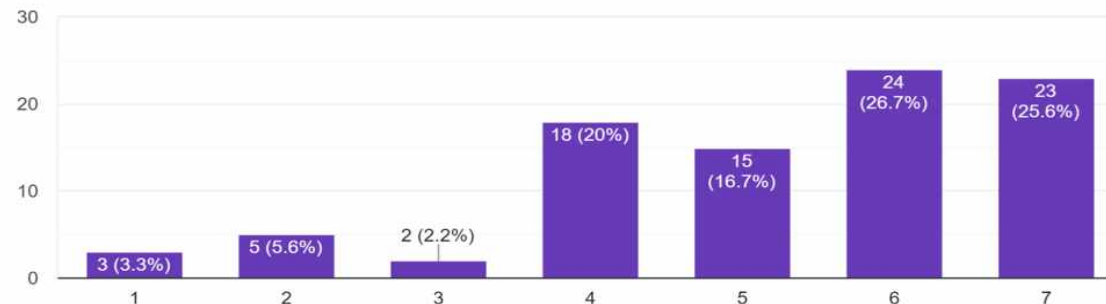
3-11. 감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 등을
운용할 필요성

응답 41개



- 금융감독원
(평균 3.12)

응답 90개



- 감사인
(평균 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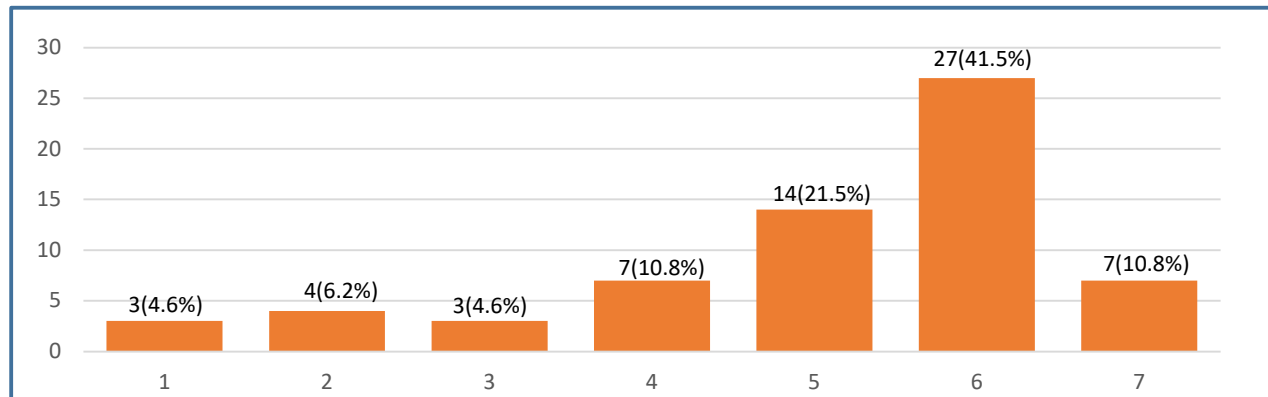
- 결과 요약: 금감원의 응답 결과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운용할 필요성에 대해 필요없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함 / 반면, 회계법인의 응답
결과는 외부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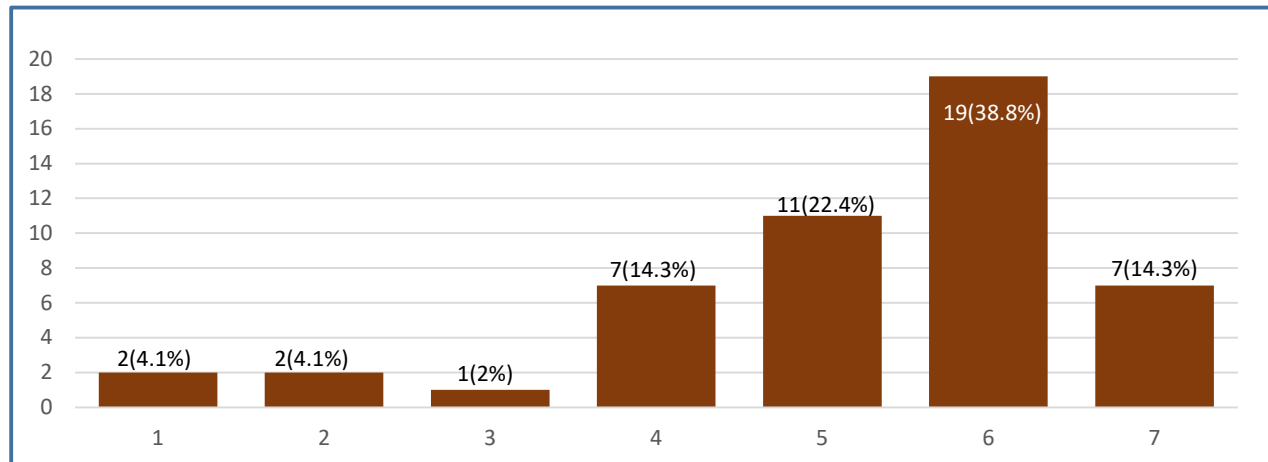
III-2. 설문조사 결과

3-11. 감리결과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 등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용자
(평균 5.06)



● 학계
(평균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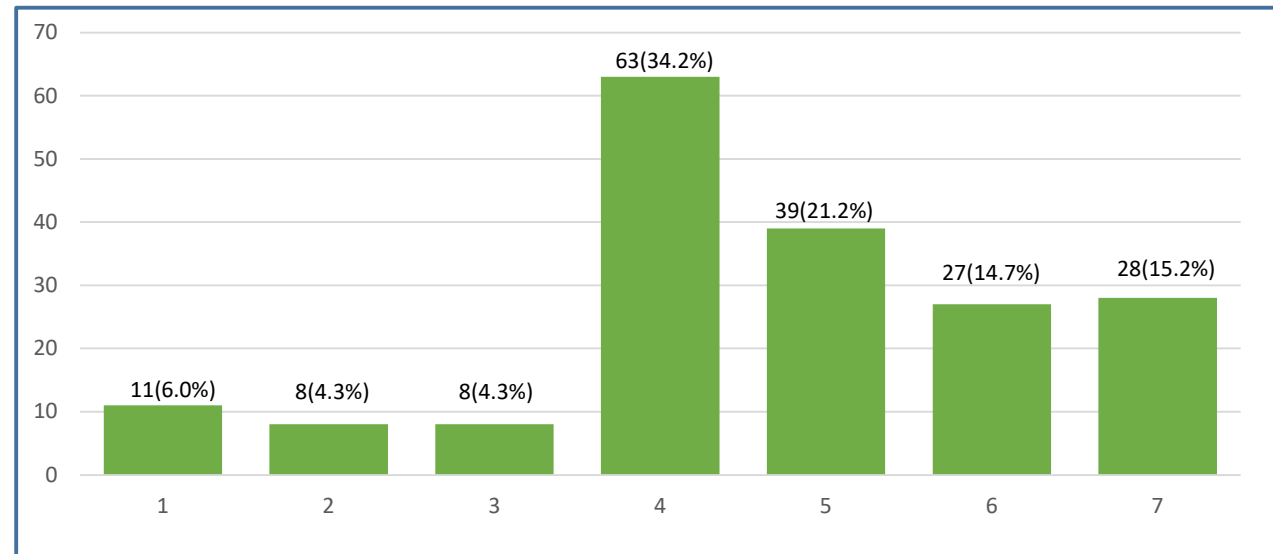


III. FGI 및 설문조사 결과

III-2. 설문조사 결과

3-11. 감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형태의 위원회 등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작성자
(평균 4.65)



- 결과 요약: 세 그룹 모두 새로운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학계에서 이러한 요구가 더 강하게 나타남

PART IV 향후 정책 대안

IV. 향후 정책 대안

IV-1. 단기 과제

- 재무제표 심사 사안에 대하여 감리자 및 피감리자 양측의 견해에 대해 공시하게 함으로써 자율감리 효과성 강화(미국 SEC 회계심사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독기관 의견을 공시할 때 피감회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 참조)
- 감리기간의 예측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감리시에 발생하는 감리자 및 피감리자의 기준해석 차이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및 실질적 운영
- 해외 원격감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 마련

IV. 향후 정책 대안

IV-1. 단기 과제 (계속)

- 품질 높은 회계정보 제공 기업이 실질적인 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징벌위주의 처분보다 감독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을 시장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공시하는 방법 개발
- 재발행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감독기관의 성과평가 KPI에 재발행 감리실적이 반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재무제표 심사 시 금융감독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오류사항에 대해서만 재무제표 수정을 권고하도록 제도 개선
- 재무제표 심사, 감리 담당자의 연속성 확보 필요(순환근무 배제 등)
- 품질관리감리 과정에서 인지한 사례들을 적시에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IV. 향후 정책 대안

IV-2. 중장기 과제

- 감독정책의 효과성을 연구 및 검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기구) 마련
- 현 제도하에서 감독기구를 모니터링하는 기관(감사원, 금융위 등)보다 IFRS환경에서 회계감독기능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 기구의 설립

* 예: 호주 정부는 회계감독기능 효과에 초점을 맞춘 금융감독기관평가국
(Financial Regulator Assessment Authority, FRAA)을 창설(21년 6월 23일)

- 감독기구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대한 다양한 view를 반영

* 예: PCAOB의 경우 18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Standards Advisory Group이
자문 역할 수행할 예정(21년 3월 자문위원 모집, 자문기구 설치)

PART V

결론

V. 결론

V-1. IFRS 도입의 공과

- 공

- 원칙중심회계의 도입으로 인해 '정답을 제시하고 이를 이탈하면 제재하던 과거의 감독방식'에서 벗어나게 되었음(과거 제재조치 위주의 사후적 감독방식은 감독효과의 적시성 결여라는 근본적 한계 존재)
- 회계감독의 방향성 전환으로 '올바른 회계정보의 적시성 있는 자본시장 전달'이라는 회계감독의 근본 목적에 집중
-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감독업무의 무게중심 이동

V. 결론

V-1. IFRS 도입의 공과

- 공 (계속)

- 상세한 내용의 주석공시로 인하여 회계처리의 사후 적정성에 대하여 시장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여 감독기구의 검증결과에 대한 의존도 다소 감소
- 감독기구로 하여금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하여 감독기구의 개편 및 감독인력의 일부 확충이 이루어짐
- 회계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킴에 따라 우리 감독기구의 감독정책의 효과성 및 감독정책의 수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될 계기가 마련됨

V. 결론

V-1. IFRS 도입의 공과

- 과

- 원칙에 대한 이견이 이해관계자별로 첨예하게 대립(예: 기업·감사인 VS. 감독기구, 전임감사인 VS. 후임감사인 등)
- 감독기구의 제재조치에 대한 수용성 저하
- 감리자와 피감리자 간의 회계기준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반면에 이를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 어려움에 따라 감리기간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함
- 감독기구의 감독 효과성에 대한 정의가 어려움에 따라 적절한 감독정책 방향 설정이 다소 어려워짐
- 기준서의 빈번한 개정으로 감독당국 조차도 감독실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

V. 결론

V-1. IFRS 도입의 공과

- 과 (계속)

-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감독당국이 국내 현실을 반영한 정책방향을 달성하고 기업 및 감사인을 유도하는데 있어 예측 가능성과 효과성이 감소됨
- IFRS의 복잡성과 해석상의 어려움, 전임 및 후임감사인간의 이견으로 감독기구에게 중재자로서 필요이상으로 개입을 요청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됨
-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됨에 따라 감독기구와 피감대상기관(감사인)이 각각 생각하는 책임의 경계가 다소 불일치하는 경우 발생

V. 결론

V-2. 향후 10년 발전방향

- 감독에 따른 제재 조치는 의도적인 회계부정 사안으로 한정(예: IFRS를 악용하여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기업 및 감사인으로 명확하게 인정된 경우 사안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는 방향으로 강화)
- 원칙에 대한 판단은 시장 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예: 감독기구와 기업의 회계처리에 견해가 불일치하면 각각의 견해와 그에 따른 예상결과를 공시 기능을 통해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이 스스로 판단하게 함)
-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실질적인 역할이 중시되어야 함
-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는 IFRS체계에 부합하는 자율성을 인정하는 감독제도 마련
- 감독정책의 효과성 및 정당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의견의 청취 및 소통이 상시 가능하도록 열린 감독기구 및 정책유연성을 추구하는 자세 견지



4장 공시

이영한(서울시립대), 강평경(서강대), 김성환(광운대)

목차

- I. 서론
- II. 문헌연구
- III. 실증분석 결과
-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 V. 소결 및 정책제언

PART

서론

I. 서론

I-1. 연구 목적

- **IFRS가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회계정보 수요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평가**
 - 기업가치 평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재무성과 예측에 도움을 주었는가?
 - 공시 정보의 불확실성을 낮추어 정보비대칭과 자본비용 수준을 낮추었는가?
- **IFRS의 고유특성이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
 - IFRS 주요 특성 : **"원칙중심 회계", "연결재무제표 중심 공시", "주석증가"**
 - IFRS 주요 특성이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정보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 필요
- **IFRS의 공시측면의 제도변화 추세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제시**
 - 최근 IASB는 공시 체계의 변화 및 성과지표에 대한 보고방식 변화를 진행중
 - 공시체계 변화추세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I. 서론

I-1. 연구방법론

- **IFRS가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회계정보 수요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평가**
 - 전문가 인터뷰 및 설문조사
 - 이익의 질, 정보비대칭 변수,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편의, 자본비용의 IFRS 도입전후 분석
- **IFRS의 고유특성이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
 - 원칙중심회계, 연결중심 공시의 영향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분석
 - 개별F/S 작성기업과 연결F/S 작성기업의 정보비대칭 변수 실증분석
- **IFRS의 공시측면의 제도변화 추세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제시**
 - 관련 연구 및 IASB 공시원칙 개편 Project 동향파악
 - 설문 및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해 대응방안 분석

PART



문헌연구

II. 문헌연구

II-1. K-IFRS 도입 이후 사업보고서 관련 공시 제도 변화

- IFRS와 K-GAAP의 주요 차이(Jang et al., 2016)

K-GAAP	IFRS	제도 변화의 영향
규칙 중심의 회계	원칙 중심의 회계(경제적 실질에 기반한 회계처리)	경영자의 재량권 향상
개별재무제표 중심	연결재무제표 중심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의 향상
취득원가 중심의 장부가 기록	공정가치 적용의 확대	공정가치 평가금액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능
제한적인 주석공시	주석공시사항의 확대	회계정보의 질 향상/ 기업의 부담 증가

- 재무제표 구성의 주요 차이(금융감독원 2014)
 - 재무상태표 개선 : 소분류항목 삭제(당좌자산, 재고자산등)
 -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범위 확대: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표시범위를 확대한 자본변동표 포함

II. 문헌연구

II-1. K-IFRS 도입 이후 사업보고서 관련 공시 제도 변화

- 연결공시제도
 - 기본 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화함
 - K-IFRS에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갖고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연결회계 적용
 - 별도재무제표는 보충적 자료로 공시
- 현금흐름표 상 현금흐름 분류의 차이 : 이자, 배당금, 법인세지급의 분류변화
- 공시량의 증가
 - K-IFRS는 원칙주의 중심의 회계처리를 도입함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된 계정과목들에 대한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를 주석에 표기하도록 요구
 - K-IFRS 도입으로 신설 및 추가된 공시사항들이 다수 존재, 공시량이 증가
 - 비용성격별 분류공시, 금융상품 위험관리, 퇴직급여제도 공시 등..

II. 문헌연구

II-2. IASB의 공시관련 기준개정 추이

- IASB는 “Better Communication in Financial Report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Disclosure Initiative—Principles of Disclosure” 토론회를 2017년 발표하고 공시원칙 관련 기준서 개정작업을 진행중임.



- “Disclosure Initiative—Principles of Disclosure”의 주요 논의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제시
 - 재무제표에 제시되는 정보의 3가지 범주에 대한 논의
 - 주요재무제표와 주석의 역할과 구분에 대한 논의
 - 재무제표에 제시되는 성과측정치에 대한 규정정비(EBIT, EBITDA 표시등)

II. 문헌연구

II-2. IASB의 공시관련 기준개정 추이

- IASB의 주요재무제표(Primary Financial Statements) 프로젝트(2019)
 - 재무제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포괄손익계산서의 공시에서 영업손익 공시 등 새롭게 정의된 중간합계(subtotal)공시, 정보세분화, 회계기준에서 요구하지 않는 경영자 성과측정치(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s)공시방법 제시
 - 손익계산서 항목을 **영업범주(영업손익)**, 필수적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 법인세범주, 중단영업범주로 구분함. 영업범주의 subtotal인 “영업손익”은 다른 범주에서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익 비용을 포함하는 “잔여범주 접근법”을 사용하여 공시

II. 문헌연구

II-3. 관련 선행연구 결과

- **공시품질 제고의 효과(이아영과 김길훈 2014, 변정희와 김상현 2021 외 다수)**
 - 우수한 공시품질은 타인자본비용 하락과 기업가치 제고효과 존재
- **K-IFRS 도입과 정보비대칭(신세나와 최관, 2013, 안형태 등 2019 외 다수)**
 - K-IFRS 기준 정보공시가 자본시장 참여자간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완화한
다는 결과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혼재
 - 주가변동성,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 주식변동성, 재무분석가 예측분산
- **K-IFRS 도입과 자본비용, 기업가치(Daske et al. 2008, 김문철외 2015, 다수)**
 - 국내외 실증연구는 IFRS도입으로 자본비용 하락하였다는 결과가 지배적
 - 재무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

II. 문헌연구

II-3. 관련 선행연구 결과

- **IFRS 도입과 재무분석가**

- 해외연구는 IFRS 도입으로 재무분석가 예측 정확성이 높아지고 예측분산은 감소하였으며, 개별 기업에 대한 재무분석가 분석보고서도 증가.
- 국내도 IFRS 의무도입 이후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정확성이 높아지고, 분산이 감소하였다는 실증 결과가 보고(남혜정 2015 등), 그러나 재무분석가의 낙관적 예측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도 보고(윤나영과 모경원 2016)

- **K-IFRS 도입과 신용평가(신세나와 최관, 2013, 안형태 등 2019 외 다수)**

- IFRS 도입이후 회계부실요인에 대한 신용등급 민감도 증가(Wu and Zhang(2009), K-IFRS 도입이후 손익 변동성이 신용위험과 관련성 제고
- 이익조정은 감소, 이익조정과 신용위험과의 관련성은 감소

PART



실증분석결과

III. 실증분석결과

III-1. 연구 목적

국제회계기준 도입

- 국제 정합성 제고
- 원칙중심 회계
- 연결중심 공시
- 주식정보량 증가
- 감독, 감사제도 강화

자본시장 정보비대칭 완화

- 공시품질->정보비대칭완화
- 수익률 변동성, Bid-ask spread, 거래회전율

재무분석가 예측편의

- 공시품질->재무분석가 예측오차 완화
- 재무분석가 예측오차

신용평가 등급

- 공시품질->신용평가 등급의 정확성 제고
- 회계정보에 기반한 정상신용평가 등급과의 편의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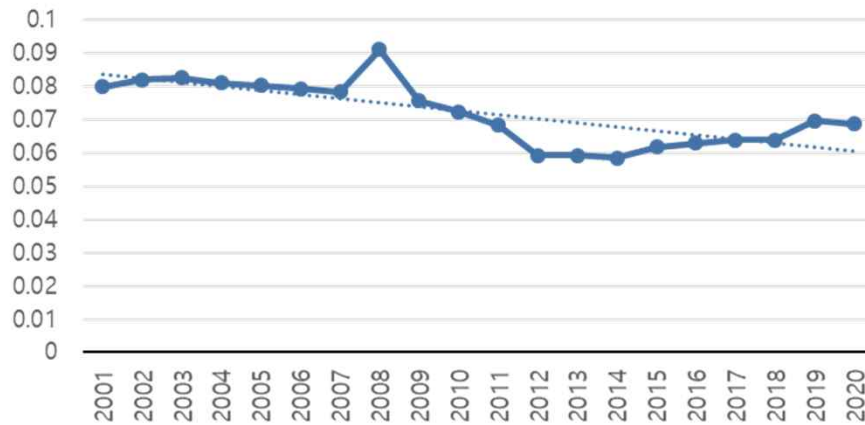
자본비용

- 공시품질->투명성제고, 불확실성 완화-> 자본비용하락
- 자본비용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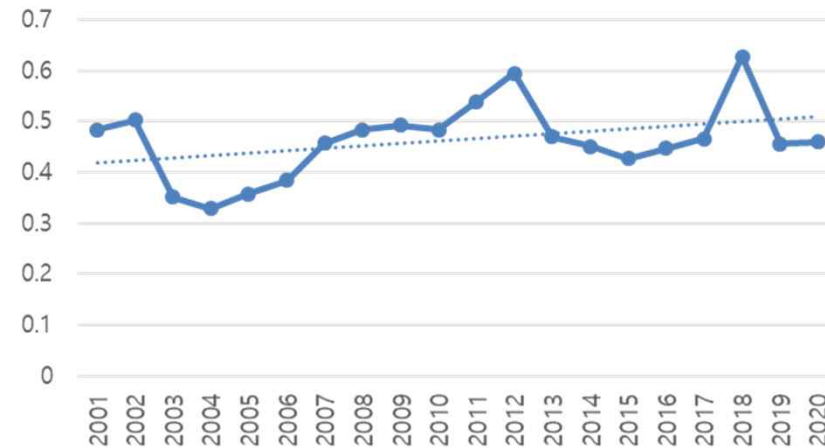
III. 실증분석결과

III-2. IFRS 도입전후 이익의 질 지표변화 - 재량적 발생액/이익지속성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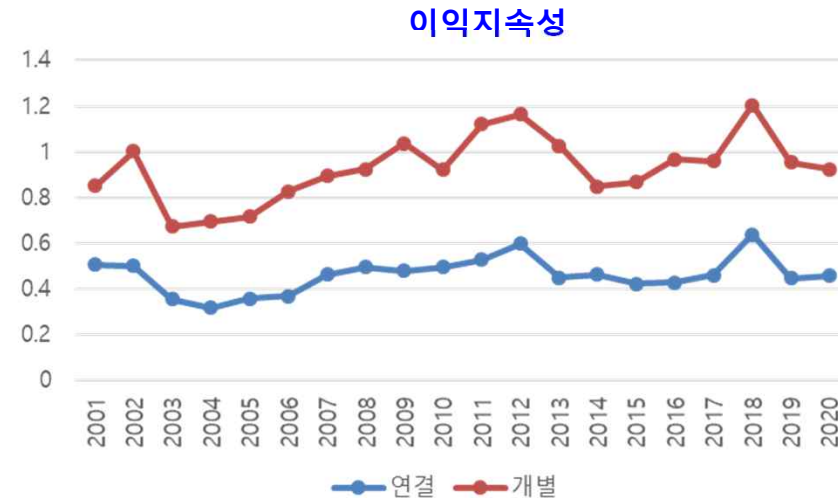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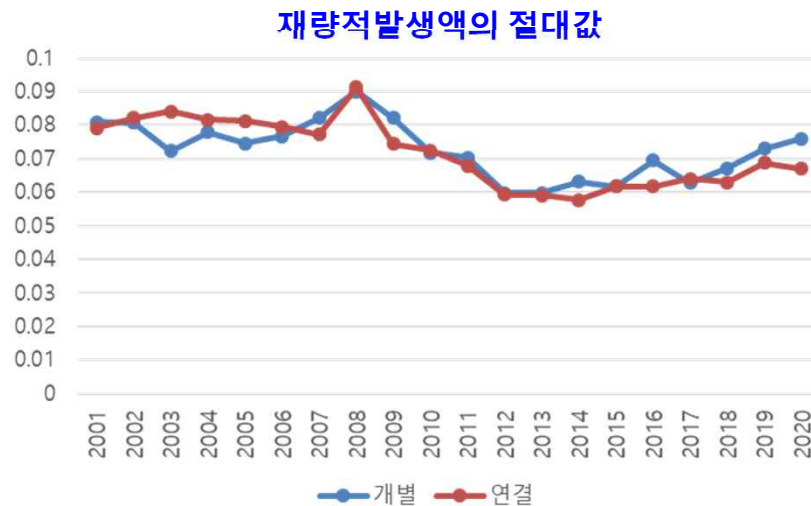
이익지속성



- 연도별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2008년도에 재량적발생액이 급증하지만 그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임
- K-IFRS 도입 직후인 2011년과 2012년에는 재량적발생액이 급감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근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신외감법이 도입된 2018년부터는 재량적발생액의 증가폭이 조금씩 커지는 양상을 보임
- T-test 결과, IFRS 도입 이전과 이후의 재량적발생액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t-value: -19.16**, N: 29,552개)
- 연도별 이익지속성은 대체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임
- K-IFRS를 도입한 2011년과 그 다음해인 2012년도에는 이익지속성이 급상승함
- 2012년도 이후부터는 이익지속성이 다소 감소하다 신외감법이 처음 도입된 2018년에 다시 급상승함
- K-IFRS 도입과 신외감법 도입으로 이익의 질이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남
- T-test 결과, IFRS 도입 이전과 이후의 이익지속성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t-value: 2.16**, N: 22,262개)

III. 실증분석결과

III-2. IFRS 도입전후 이익의 질 지표변화 - 재량적 발생액/이익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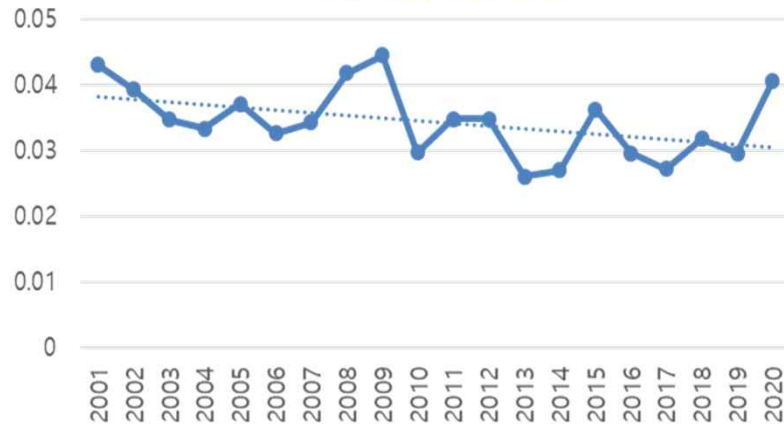


- K-IFRS 도입이후 이익조정가능성을 나타내는 재량적발생액 절대값이 전반적으로 감소
- K-IFRS 도입 이후에는 개별재무제표 작성기업들의 재량적발생액 절대값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들에 비해 대체로 더 큰 양상을 보임.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업의 이익조정 추세가 전반적으로 더 감소
- T-test 결과,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집단의 IFRS 도입 이전과 이후의 재량적발생액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연결: (t-value: -18.31***, N: 24,462개) 개별: (t-value: -5.68***, N: 4894개)
- 이익지속성은 K-IFRS 도입직후인 2011년, 2012년에 큰 폭으로 상승. 그 이후 다시 하락하다가 2017년 신외감법 직후 다시 큰폭으로 상승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룹에 비해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룹의 이익지속성이 모든 연도에 걸쳐서 더 높게 나타남
- T-test 결과,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집단만 IFRS 도입 이전과 이후의 이익지속성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t-value: 2.71***, N: 3,603개)

III. 실증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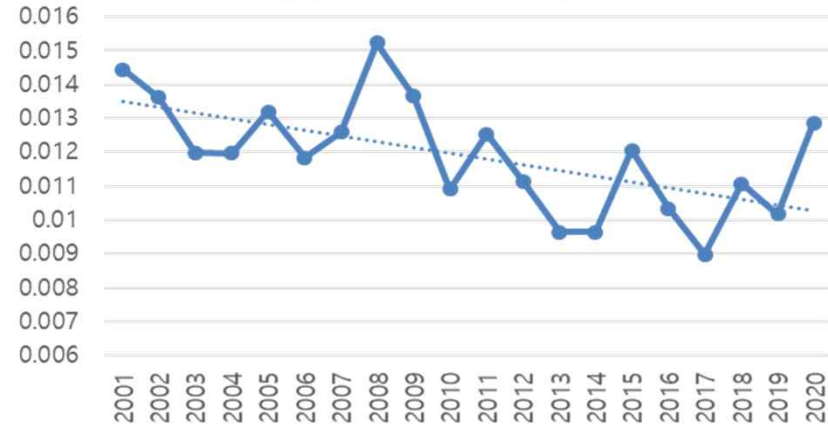
III-3. IFRS 도입전후 정보비대칭 관련 지표변화

주식수익률의 변동성



- 연도별 일별주가수익률의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K-IFRS 도입 직전인 2008년~2009년에 일별주가수익률 변동성이 급증하다가 2010년에 급감한 후 등락을 반복하며 감소 추세를 보임
- 신외감법 도입시기인 2018년에는 일별주가수익률 변동성이 소폭 상승하였다가 다음 연도에 감소함
- K-IFRS의 도입으로 정보비대칭성은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 T-test 결과, IFRS 도입 이전과 이후의 일별주가수익률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t-value: -9.91***, N: 26,523개)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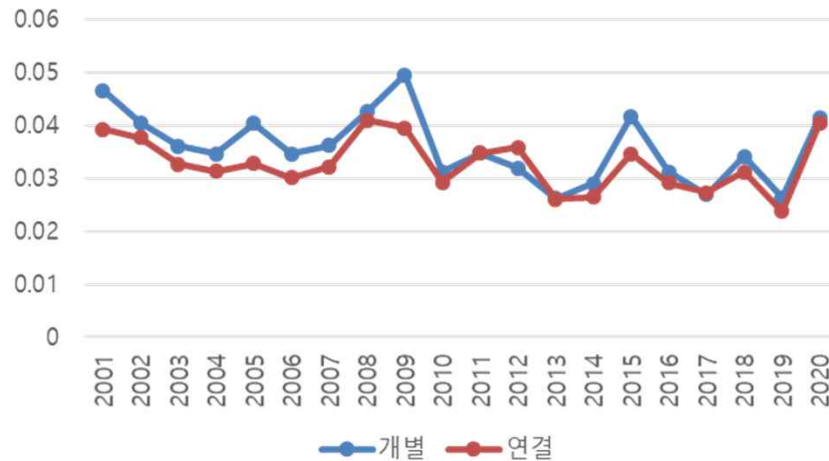


- 연도별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비대칭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 K-IFRS 도입 전인 2008년에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급증하였다가 급감함
- K-IFRS이 도입된 2011년에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소폭 상승하다가 2014년까지 급감함
- 2018년 신외감법 시행 이후 부터는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T-test 결과, IFRS 도입 이전과 이후의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t-value: -41.86***, N: 26,745개)

III. 실증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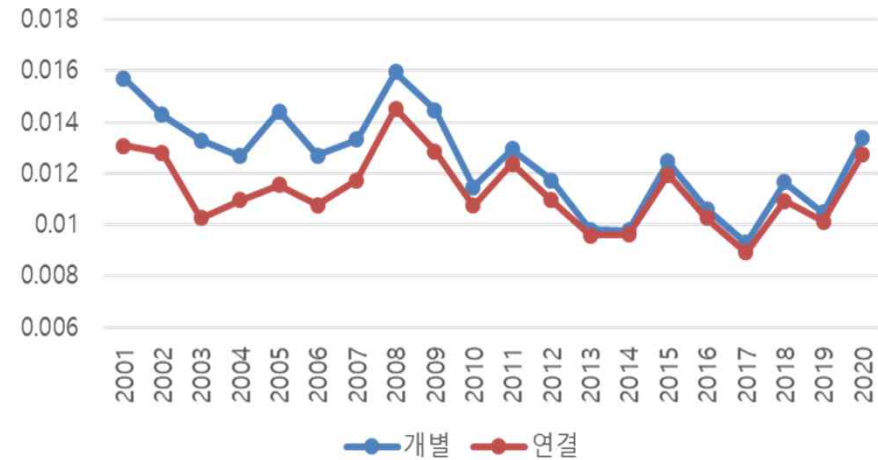
III-3. IFRS 도입전후 정보비대칭 관련 지표변화

주식수익률의 변동성



- K-IFRS 도입이후 : 연결F/S 기업과 개별 F/S기업 모두 주식수익률 변동성이 낮아짐.
- 전반적으로 연결F/S 작성기업 주가수익률 변동성이 개별F/S 작성기업보다 더 작음.
- T-test 결과,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작성 기업의 IFRS 도입 이전과 이후의 연간 주식거래 호전율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연결: (t-value: -3.78***, N: 17,983개)
- 개별: (t-value: -8.82***, N: 8,540개)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



- K-IFRS 도입이후 : 연결F/S 기업과 개별 F/S기업 모두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 낮아짐.
- 전반적으로 연결F/S 작성기업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가 개별F/S 작성기업보다 더 작음.
- T-test 결과,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작성 기업의 IFRS 도입 이전과 이후의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연결: (t-value: -18.91***, N: 18,128개)
- 개별: (t-value: -29.35***, N: 8,617개)

III. 실증분석결과

III-4. IFRS 도입이 재무분석가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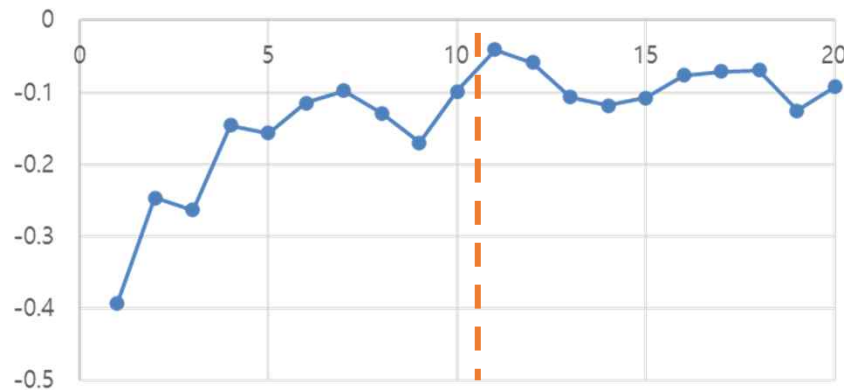
- IFRS 도입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IFRS 도입 이전과 이후 이익예측 정확성, 이익예측 낙관적 편향의 분석
 - IFRS 도입으로 공시의 양이 증가하고 정보환경이 개선되어 재무분석가가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낮아진다면 이익예측 정확성은 높아질 것임.
 - 또한 이익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익예측의 낙관적 편향의 발생가능 : IFRS 도입으로 정보환경이 개선된다면 이익예측의 낙관적 편향은 줄어들 수 있음.
- 분석표본: IFRS 도입 이전과 이후(2001년~2020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연도 중에서 재무분석가 예측치(Consensus)를 보유한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 → 9,074 기업-연도
- 분석 방법: 재무분석가 예측 정확성, 예측의 편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IFRS 도입 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다변량 회귀분석 수행

III. 실증분석결과

III-4. IFRS 도입이 재무분석가에 미치는 영향

- 단변량 분석 결과: IFRS 도입 이후 이익예측 정확성 향상, 낙관적 편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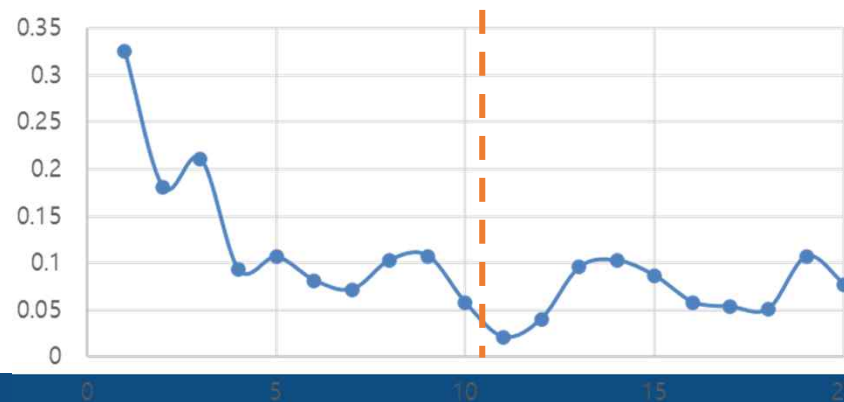
이익예측 정확성 차이



T-test

구분	이익예측 정확성	Mean-Diff	t-value
IFRS 이전	-0.1459	-0.0540	-8.89 (<0.0001) ***
IFRS 이후	-0.0919		

이익예측 낙관적 편의 차이



T-test

구분	이익예측 편의	Mean-Diff	t-value
IFRS 이전	0.1030	0.0278	4.43 (<0.0001) ***
IFRS 이후	0.0752		

III. 실증분석결과

III-4. IFRS 도입이 재무분석가에 미치는 영향

- 분석 모형

$$ACCR_t(BIAS_t) = a + b_1 * IFRS_{t-1} + b_2 * AQ_{t-1} + b_3 * ROA_{t-1} + b_4 * SIZE_{t-1} + b_5 * VOL_{t-1} + b_6 * BETA_{t-1} + b_7 * BIG4_{t-1} + b_8 * LEV_{t-1} + b_9 * MTB_{t-1} + b_{10} * FOR_{t-1} + b_{11} * OWN_{t-1} + \sum b_n * IND_n + e$$

종속변수 : $ACCR_t$: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이익예측 편의 절대값 $\times (-1)$)

$BIAS_t$: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편의((주당이익예측치-실제주당이익)/종가)

Panel A: IFRS 도입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 유의적 양의 계수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value	p-value
IFRS	0.0178	0.0076	2.33**	0.0197
Control	Included			
Adj. R ²	0.0604			

Panel B: IFRS 도입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편의(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 유의하지 않음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value	p-value
IFRS	-0.0001	0.0080	-0.02	0.9867
Control	Included			
Adj. R ²	0.0366			

III. 실증분석결과

III-4. IFRS 도입이 재무분석가에 미치는 영향

- 분석 모형

Panel A: 회계품질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 (IFRS 도입 이전, N=5,672)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value	p-value
AQ	0.0355	0.0666	0.53	0.5941
Control	Included			
Adj. R ²	0.0692			

Panel B: 회계품질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 (IFRS 도입 이후, N=5,672)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value	p-value
AQ	0.1236	0.0494	2.50**	0.0125
Control	Included			
Adj. R ²	0.0729			
F-value	11.28(<0.0001)***			

AQ_{t-1}: 회계이익의 질(Pae(2005) 모형에 의한 추정치*-1),

III. 실증분석결과

III-5. IFRS 도입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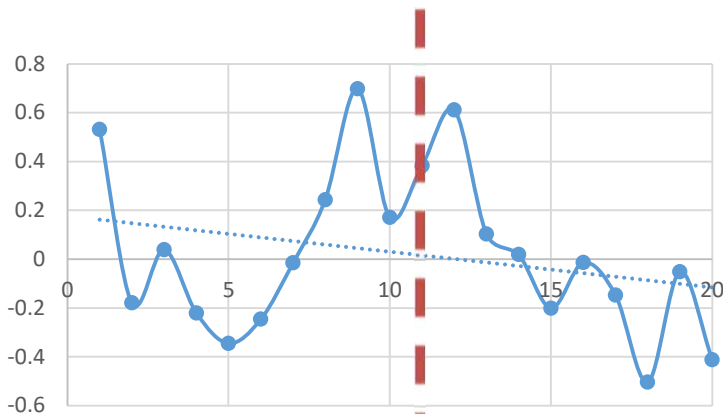
- 신용평가사와 관련되어 신용평가등급의 고평가(인플레) 경향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노세진 2001; 강경훈과 이준서 2011; 오세경과 황인덕 2012; 김성환과 김태동 2014).
- IFRS 정보가 기업의 신용평가 위험평가에 유용하다면,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재무적 위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부족으로 인한 저평가를 막을 수 있음.
- IFRS 도입으로 투자자의 정보환경이 개선된다면, 정보의 매개자인 신용평가사는 명성의 손상 등을 우려하여 신용등급을 고평가하지 못할 수 있음.
- 따라서 IFRS 도입 이후 신용평가사의 고평가 행태가 변화되었는지 분석함.
- 분석표본: IFRS 도입 이전과 이후(2001년~2020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연도 중에서 신용평가등급(채권)을 보유한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
→ 3,836 기업-연도

III. 실증분석결과

III-5. IFRS 도입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 분석모형 : 회계정보와 위험과 변동성변수로 신용평가예측모형을 설정 -> 예측모형에서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 신용등급 산출 => IFRS 도입전후 비정상 신용등급의 비교분석
- IFRS 도입으로 정보환경 개선시 회계정보등이 설명하지 못하는 비정상신용등급 감소예상
- 신용등급예측 모형 :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등 회계정보와 베타, 주가변동성 등 위험 요인 및 시장,산업 변수 고려
- IFRS 도입이후 비정상신용등급(낙관편의)과 비정상신용등급의 절대값(예측오차)이 유의적 감소

$$RANK_t = a_0 + b_1 * SG_{t-1} + b_2 * OM_{t-1} + b_3 * IC_{t-1} + b_4 * LEV_{t-1} + b_5 * QR_{t-1} + b_6 * CF_{t-1} + b_7 * AR_{t-1} + b_8 * SIZE_{t-1} + b_9 * BETA_{t-1} + b_{10} * VOL_{t-1} + b_{11} * DA_{t-1} + b_{12} * MKT_{t-1} + \sum b_i * IND_{t-1} + \epsilon_t$$



구분	비정상 신용등급	Mean-Diff	t-value
IFRS 이전	0.0812	0.1560	2.37 (0.0179) **
IFRS 이후	-0.0748		

III. 실증분석결과

III-6. IFRS 도입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IFRS의 도입은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감소시킬 것인지 실증분석
- IFRS의 도입은 높은 공시수준을 유도하여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며(Leuz and Verrecchia 2000),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위험에 대한 보상수준을 낮추게 됨(Botosan 1997).
- 분석표본: IFRS 도입 이전과 이후(2001년~2020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비금융업에 속하는 기업-연도 중에서 자본비용 추정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
- $$\text{COC}(\text{COE_GM}, \text{COE_PEG}, \text{COD}) = a + b_1 * \text{IFRS} + b_2 * \text{SIZE} + b_3 * \text{BETA} + b_4 * \text{MTB} + b_5 * \text{LEV} + b_6 * \text{ROA} + b_7 * \text{OWN} + b_8 * \text{FOR} + b_9 * \text{VOL} + b_{10} * \text{MKT} + \sum b_n * \text{IND}_n + e$$

COC : 자본비용

COE_GM : GM모형(Gode and Mohanram 2003)으로 계산된 자기자본비용

COE_PEG : PEG모형(Easton 2004)으로 계산된 자기자본비용

COD : 타인자본비용 (총금융비용/평균이자발생부채)*(1-실효세율)

(표본수 : 기업-연도, GM모형: 3,876 기업-연도, PEG모형: 4,716 기업-연도, COD: 24,437 기업-연도)

III. 실증분석결과

III-6. IFRS 도입이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Panel A: 자기자본비용을 GM 모형으로 측정(N=3,876) : 평균 8.62% 감소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value	p-value
IFRS	-0.0799	0.0046	-16.82***	<0.0001
Control	Included			
Adj. R ²	0.1298			

구분	자기자본 비용(GM)	Mean-Diff	t-value
IFRS 이전	0.1639	0.0862	22.15 (<0.0001)
IFRS 이후	0.0777		

Panel B: 자기자본비용을 PEG 모형으로 측정(N=4,716) : 평균 5.92% 감소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value	p-value
IFRS	-0.0348	0.0047	-7.37***	<0.0001
Control	Included			
Adj. R ²	0.1220			

구분	자기자본 비용(PEG)	Mean-Diff	t-value
IFRS 이전	0.2149	0.0592	16.57 (<0.0001)
IFRS 이후	0.1557		

Panel C: IFRS 도입이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N=24,437) : 평균 1.41% 감소(세금효과반영)

변수	계수값	표준오차	t-value	p-value
IFRS	-0.0152	0.0006	-27.16***	<0.0001
Control	Included			
Adj. R ²	0.1546			

구분	타인자본 비용	Mean-Diff	t-value
IFRS 이전	0.0590	0.0141	29.63 (<0.0001)
IFRS 이후	0.0449		

참고 : 기준 금리는 IFRS도입전 평균 3.6%, 도입후 평균 1.8%이며
차이는 1.8%

III. 실증분석결과 - 소결

- IFRS 도입전후 이익의 질 관련 지표 분석결과 IFRS 도입이후 재량적 발생액은 줄고, 이익지속성은 상승
- IFRS 도입전후 정보비대칭 관련 지표인 주식수익률 변동성,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 분석결과 IFRS 도입후 유의적으로 정보비대칭 현상 완화됨.
- 따라서 IFRS 도입이후 이익의 질은 개선되고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등 정보환경 개선으로 시장참여자간 정보비대칭 현상이 완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재무분석가에 대한 영향 : IFRS 도입이후 재무분석가의 예측정확성은 유의적으로 상승하고 이익예측의 낙관적 편의는 하락하지만 유의하지 않음.
- IFRS 도입이후 회계품질과 이익예측 정확성과의 관련성이 높아짐. 이는 재무분석가의 회계정보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반증으로 해석가능.
- 신용평가에 대한 영향 : IFRS 도입이후 회계정보를 기반으로 한 예측모형에 의한 비정상 신용등급이 감소하며, 신용평가등급의 낙관적 고평가 경향이 줄어듦.
-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IFRS 도입이후 자기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WACC가 모두 하락

PART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 전문가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 전문가 FGI 목표

-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전문가들의 IFRS 도입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
 - IFRS 공시정보의 질적 특성과 향후 IFRS 공시방향 변화에 대한 의견조사

- 면담대상 전문가

- 한국거래소(10/1) :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 및 공시, 심사 담당 팀장면담
 - KB증권(10/18) : 주식 애널리스트
 - 한국기업평가(10/1) : 신용평가 애널리스트
 - 슈피겐코리아(10/18) : 코스닥 상장회사 공시담당부장

- 설문조사

- 설문대상 : 회계정보이용자(애널리스트, 신용평가분석가, 금융기관심사역 등) 65명
 - 설문기간 : 2021년 10월 20일- 25일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1. 전문가 FGI 주요 질의 및 응답결과

● IFRS의 도입효과

- 긍정평가 : 회계 글로벌 정합성 향상, 외국인투자자 DISCOUNT 문제 해소, 주석가치 상승
- 정보환경 영향 : 정보해석 난이도, 거래, 비교가능성 저하로 인한 부정적 평가
- 연결 F/S 공시 : 대체로 긍정평가. 기업실질 더 정확한 반영, 대규모 기업체의 평가정확성
- 유용한 정보 : 비용분류 등 비용관련 정보 유용,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은 적정성 우려.

● IFRS 관련 공시정책 변화에 대한 견해

- 영업손익 관련 : 영업손익은 상장규정상 중요수치이나 재무분석가의 경우 영업손익 공시방법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음. EBITDA 등 F/S본문 공시의 경우 유용성에 의문
- ESG공시등 비재무공시 : 필요성은 인정되나 표준공시방식 필요. 업종별 차이가 클 것임. 측정이 용이하고 중요한 영역부터 순차적 확대가 필요함.
- 연결중심 공시는 관련 불성실 공시가 감소하는 등 정착단계에 있으나, 상장규정의 진입, 퇴출 기준등 일부 개별Fs기준 규정 존재. 연결중심 규정의 확대검토 필요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회계정보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 **IFRS 도입 효과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견**

구분	비고	평균
정보비대칭	매우악화(1), 매우 완화(7)	5.00
자본시장 거래효율성	매우하락(1), 매우 향상(7)	5.22
재무분석가 기업가치 평가 정확성	매우 하락(1), 매우 향상(7)	5.08
원칙중심 회계특성이 개별기업 경제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지 여부	매우 비동의(1), 매우 동의(7)	4.66
IFRS 재무정보가 기업분석이나 심사에 충실한 정보제공 여부	매우 비동의(1), 매우 동의(7)	5.05
IFRS 재무정보의 이해가능성	매우 낮아짐(0), 매우 높아짐(7)	4.80
IFRS 회계정보의 기업간 비교가능성	매우 낮아짐(0), 매우 높아짐(7)	4.60
연결F/S 중심공시가 기업분석과정에서의 회계정보의 유용성	증대되지 않음(0), 매우 높아짐(7)	4.98

- **대체로 IFRS 도입이 자본시장 정보비대칭, 거래효율성, 가치평가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
- **질적 속성이나 기업분석의 정보유용성에 대해서도 소폭 긍정적 평가**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2. 회계정보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정보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7가지 원칙중 현행 우리나라 국제회계기준 회계정보 공시 실무에서 이 7가지 원칙중 가장 부합하지 못하는 원칙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Percent
① 기업특유의 정보가 제시되어야 함	9	13.9
② 정보는 명확하고 단순하게 제시되어야 함	17	26.2
③ 정보는 중요한 사안을 강조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9	13.9
④ 정보는 다른 관련 정보와 연계되어 제시되어야 함	11	16.9
⑤ 정보는 불필요한 중복이 없이 제시되어야 함	5	7.7
⑥ 정보는 비교가능해야 함	12	18.5
⑦ 정보는 적절한 양식으로 제시되어야 함	2	3.1
Total	65	100.0

- IASB가 지정한 IFRS 회계정보의 공시문제 3가지 중 우리나라 공시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Percent
① 목적적합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아니함	12	18.46
② 관련 없는 정보가 공시됨	13	20.00
③ 재무정보가 이용자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되지 아니함	38	58.46
결측	2	3.08
Total	65	100.00



PART

V

소결 및 정책제언

V. 소결 및 정책제언

IV-1. 분석결과 소결

● 실증분석결과

- IFRS도입이후 이익의 질 향상, 정보비대칭 현상 완화 등의 정보환경 개선이 나타났음.
- IFRS 도입이후 재무분석가의 예측정확성이 향상되고 신용평가사의 낙관적 예측이 줄어들었음.
- IFRS 도입이후 자본비용이 감소하였음.
- 이러한 요인은 비회계적 요인의 영향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

●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결과

- IFRS 도입효과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정보의 양이 증가하였고, 연결중심공시의 효과가 있었으며, 외국인투자자의 유입효과와 Discount 해소에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
- 그러나 설문조사결과 정보의 명확, 단순성이 부족하고,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며, 재무정보 이용자와의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함.
- ESG 공시, EBITDA 등 대체성과평가정보 공시, 영업손익 공시방법 개선 등의 정책변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존재하나 표준화, 신뢰성, 비교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함.

V. 소결 및 정책제언

IV-2. 평가와 정책제언

● 단기적 공시 정책방안

- 주식공시 표준 : 비교가능성 문제의 지적이 많음. IFRS 표준계정, 주식공시 Sample 등 계정의 비교가능성,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침과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 단, 원칙중심회계의 재량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공될 필요.
- 커뮤니케이션 문제 : 공시되는 주식정보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이용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며, 어떤 주식공시방법이 유용한지에 대한 feedback 필요함.
- 연결 공시문제 : 현행 거래소 상장규정 등은 개별 재무제표 중심 규정, 현재까지 개별F/S중심 규제에 대한 연결중심 공시로의 규제의 추가적 개편가능성검토

V. 소결 및 정책제언

IV-2. 평가와 정책제언

- 중기 공시정책방향

- IASB의 공시원칙 프로젝트에 대응한 정책이 필요 - IASB의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원칙”에 부합하는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점검할 필요
 - 설문결과 정보의 명확, 단순한 제시, 비교가능성, 다른정보와 연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지적
 - 주식공시 표준지침에서 정보의 명확, 단순성, 표준화를 통한 비교가능성제고, 상호참조 등 비재무적 정보와의 연계제시를 통해 정보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의 모색
- ESG 관련 정보 공시정책과 가이드라인의 마련 필요
 - 설문조사 및 전문가 조사결과 ESG정보공시의 필요성은 인정됨.
 - ESG 평가지표의 상관관계가 낮은 점, 평가의 신뢰성 우려 -> 재무보고서는 신뢰성이 중요
 - 공시되는 ESG 평가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V. 소결 및 정책제언

IV-2. 평가와 정책제언

- 장기 공시정책방향

- 새로운 비재무적 정보, 대안적 성과평가측정치 공시수요에 대한 대응방법, 신뢰성제고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비재무적 정보, 다양한 경영성과 측정치 등, 특히 지적재산이나 무형자산 가치비중이 늘어남에 따른 공시정보의 변화가 필요
 - 비재무적 공시정보에 대한 검토 혹은 감사
 - 대안적 성과평가 측정치에 대한 연구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보상방안과의 연계논의 필요
- Big Data 정보수요에 대한 대응
 - 전문가 인터뷰 과정에서 애널리스트 등은 주석정보의 양이 많더라도 별도의 가공을 통해 충분히 이용가능하다는 견해
 - automatic readable 환경 제공 : XBRL, API 제공 등 정보이용자가 가공하기 편한 데이터 환경제공



5장 회계신인도

정석우(고려대), 김기영(명지대), 임태균(전북대),
정남철(홍익대), 최정운(대구대)

목차

- I. 서론
- II. 문헌연구
- III. 실증분석 결과
-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 V. 소결 및 정책제언

PART

서론

I. 서론

I-1. 연구 목적

- K-IFRS 도입 10년의 공과를 회계신인도 관점으로 분석
- 향후 10년의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한 발전적 로드맵 제시

I-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회계신인도 및 회계투명성과 관련한 선행연구 조사
- 실증분석
 - K-IFRS 도입 이후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객관적 재무자료를 통하여 실증
- 전문가인터뷰
 - 국내 회계신인도 현황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인터뷰 실시
- 설문조사
 - 회계산업의 모든 당사자에 대한 설문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분석

PART



문헌연구

II. 문헌연구

II-1. 회계신인도(회계투명성)의 개념

- 회계신인도 : “회계와 관련한 정보를 믿고 인정하여 의심하지 않는 정도”
 - ‘회계신인도’는 대외적 국가경쟁력 수준을 나타낼 때 추상적으로 사용되고, 회계정보가 그 자체로 또는 산출과정이 얼마나 투명한지를 나타내는지를 측정할 경우 ‘회계투명성’이란 용어를 더욱 빈번히 사용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회계투명성 정의: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높은 질적 속성을 가진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

II. 문헌연구(계속)

II-1. 회계신인도(회계투명성)의 개념

- 회계투명성(accounting transparency)의 개념

연구자	회계투명성의 개념
IMF Working Group(1998)	○ 투명한 회계정보는 적시성, 완전성, 일관성, 위험관리 등을 포함
PwC(2001)	○ 회계 불투명성을 "명확하고, 정확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이나 절차가 부족한 정도"로 정의
Bhattacharya et al. (2003)	○ 회계이익 불투명성 : "회계이익이 경제적 성과를 충실히 전달 못하는 상태"
Bushman and Smith(2003)	○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투자기회, 지배구조, 기업가치 및 위험과 관련되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배포하는 것"
곽수근 외(2003)	○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의 기록과 공개 및 예측성과 관련된 투명성"
송인만 외(2007)	○ 회계투명성은 정보품질, 제도, 지배구조, 공시시스템 등 자본시장 환경과 광범위하게 관계된 개념
이영한 외(2011)	○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높은 질적 속성을 가진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
Barth et al. (2003)	○ 이익투명성을 "기업가치에 대한 이익정보의 통계적 설명력"로 정의

II. 문헌연구(계속)

II-3.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평가결과 - (1) 국제 경쟁력 평가기관

- IMD의 국가경쟁력 및 회계투명성 순위
 - IMD에 의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하위권/최하위권에 해당
 - 2016년 및 2017년의 경우 조사대상 중 최하위를 기록
 - 우리나라 회계제도 및 신인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인식하게 한 중요 계기
 - 2020년(46위), 2021년(37위) 등 최근 조사결과 급격한 순위 상승

구분/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가수	55	57	58	59	59	60	60	61	61	63	63	63	63	64
국가경쟁력	31	27	23	22	22	22	26	25	29	29	27	28	23	23
회계투명성	51	39	46	47	41	58	59	60	61	63	62	61	<u>46</u>	<u>37</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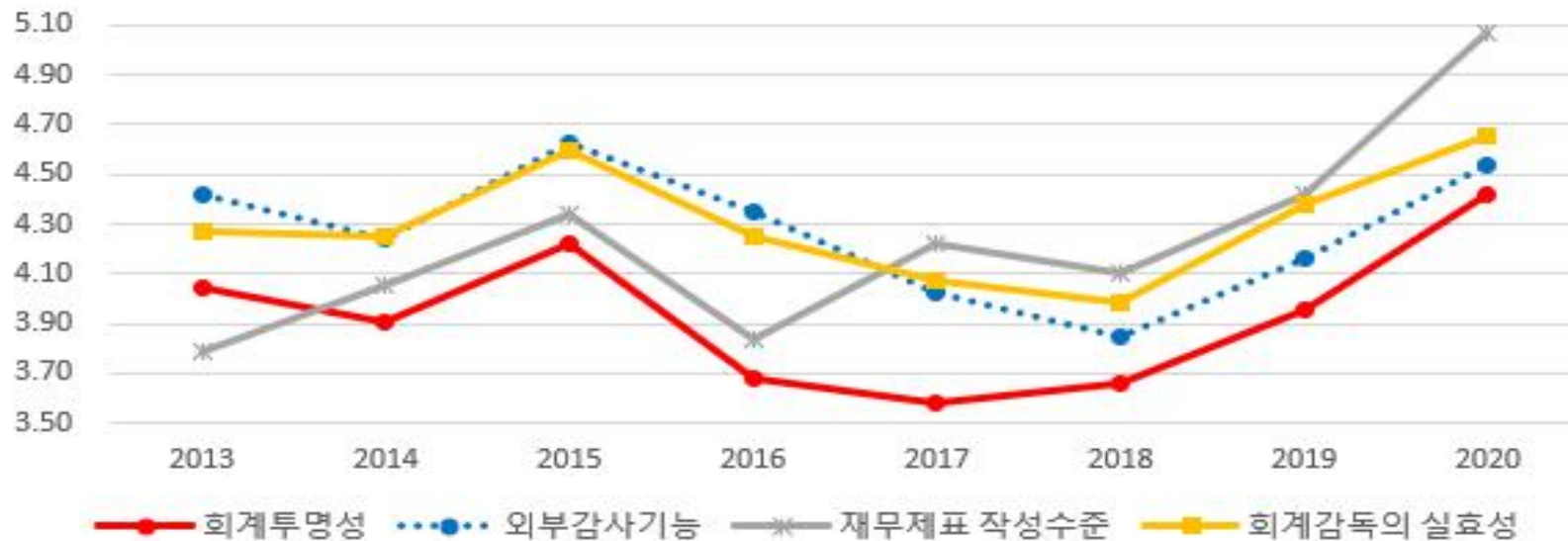
- WEF의 국가경쟁력 및 회계투명성 순위
 - 국가경쟁력 순위 대비 회계투명성은 낮게 평가되었으나, 2018년 이후 상승

구분/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가수	134	133	139	142	144	148	144	140	138	137	140	141
국가경쟁력	13	19	22	24	19	25	26	26	26	17	15	13
회계투명성	36	58	95	96	75	91	84	72	62	63	<u>50</u>	<u>37</u>

II. 문헌연구(계속)

II-3.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평가결과 - (3) 금융감독원

- (요약)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평균 이상이며, 점차 개선 중에 있음
 - 평가개요 : 2013년부터 매년 경영진, 회계사, 학계 및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
 - 매년평가 : 회계투명성, 외부감사기능, 재무제표 작성수준, 회계감독 실효성
 - 평가결과 :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회계분식 의심사건 발생시점(2017-2018)에 다소 낮은 점수였으나, 평균(3.5점/7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
 - 신외감법 실시 이후인 2019년부터 회계투명성 등이 점차 개선 중



II. 문헌연구(계속)

II-3.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평가결과 - (4) 한국공인회계사회

- (요약)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IMD/WEF의 평가결과보다 높게 나타남
 - 평가개요 : 2011년~2013년 기업실무(CEO/CFO)를 대상으로 회계투명성 설문
 - 평가항목 : 회계기준 적절성 등 세부평가(2011년~2013년)와
IMD/WEF와의 비교목적을 위한 총괄평가(2013년) 설문을 실시
 - 평가결과 : 세부평가는 5점 만점 중 3점 대 중반으로 “양호한 결과”
 - 총괄평가는 IMD, WEF 기준으로 각각 5.00점과 5.36점을 제시 받아,
IMD(4.00점) 및 WEF(4.30점)의 원점수보다 높고, 모두 31위 순위에 해

당

평가항목 / 연도	2013	2014	2015	2015년 기준 순위
세부평가(5점 척도)	3.57	3.64	3.48	-
총괄평가(IMD 기준, 7점 척도)			5.00	31위
IMD의 2013년 평가	N/A	N/A	4.00	58위
총괄평가(WEF 기준, 7점 척도)			5.36	31위
WEF의 2013년 평가			4.30(91위)	91위

PART



실증분석

III. 실증분석

III-1. 연구방법

-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
 - Francis et al. (2013): 국가별 상대적 수준
-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성
 - Francis et al. (2005), 상장협/한공회(2016): 재량적 발생액의 5년간 표준편차
- 주가수익비율(PER) 및 주가순자산비율(PBR)
 - Graham and King (2000), Chue (2015), 이영한과 박주영(2016)
- 외국인투자
 - Chen et al. (2014), 안윤영 등(2005), 김성혜 등(2012)

III. 실증분석

III-2. 표본

- 2011년부터 2020년
- Compustat North America, Compustat Global
 - 재량적 발생액 및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성, PER/PBR
- KIS-VALUE
 - 외국인투자
- IMD 순위대상 64개국 한정: IMD 회계투명성 순위와 비교
- 요건
 - 변수누락이 없는 경우
 - 금융업 및 유틸리티 업종이 아닌 경우
- 변수 상·하위 1% 제거

III. 실증분석

III-3. 실증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

-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 분석 이유
 - 재량적 발생액=총발생액 중 비재량적 발생액 이외의 부분
 - 이익조정의 대용치(Dechow et al. 1995)
 - 낮은 재량적 발생액 → 낮은 이익조정 ⇒ 높은 회계투명성
-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Kothari et al. 2005)의 IMD 조사 대상 64개 국가별 평균치 비교(Francis et al., 2013; 상장협/한공회 2016)

III. 실증분석

III-3. 실증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 (계속)

- 전체기간(2011~2020) 재량적 발생액 평균수준 : 한국 19위(IMD 64개국 중)

국가	순위
일본	2
독일	3
캐나다	4
호주	6
스웨덴	9
중국	13
인도	15
태국	16
한국	19
대만	20
프랑스	35
말레이시아	51
홍콩	52
싱가포르	53
영국	54
미국	55

III. 실증분석

III-3. 실증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성

-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성 분석 이유
 - 재량적 발생액이 지속적이라면 시장이 예측 가능함(Francis et al. 2005)
 - 재량적 발생액이 예측 불가능할 때, 불확실성이 존재
 - 재량적 발생액 변동성 증가 → 낮은 예측 가능성 ⇒ 낮은 회계신인도
- 분석 방법: 재량적 발생액(Dechow and Dichev 2002)의 5년간 표준편차(변동성) (Francis et al. 2005; 상장협/한공회 2016)
- IMD 조사대상 국가 간 재량적 발생액 변동성의 수준을 비교
 - 재량적 발생액의 표준편차가 적을수록 회계신인도 우수(예측가능성 우수)

III. 실증분석

III-3. 실증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성 (계속)

- 전체기간 재량적 발생액 표준편차 평균수준 : 한국 17위(IMD 64개국 중)

국가	순위
아일랜드	4
미국	5
캐나다	10
이스라엘	13
프랑스	14
일본	15
대만	16
한국	17
영국	20
중국	22
호주	23
홍콩	24
독일	29
싱가포르	30
스웨덴	32
인도	33

III. 실증분석

III-3. 실증결과: PER & P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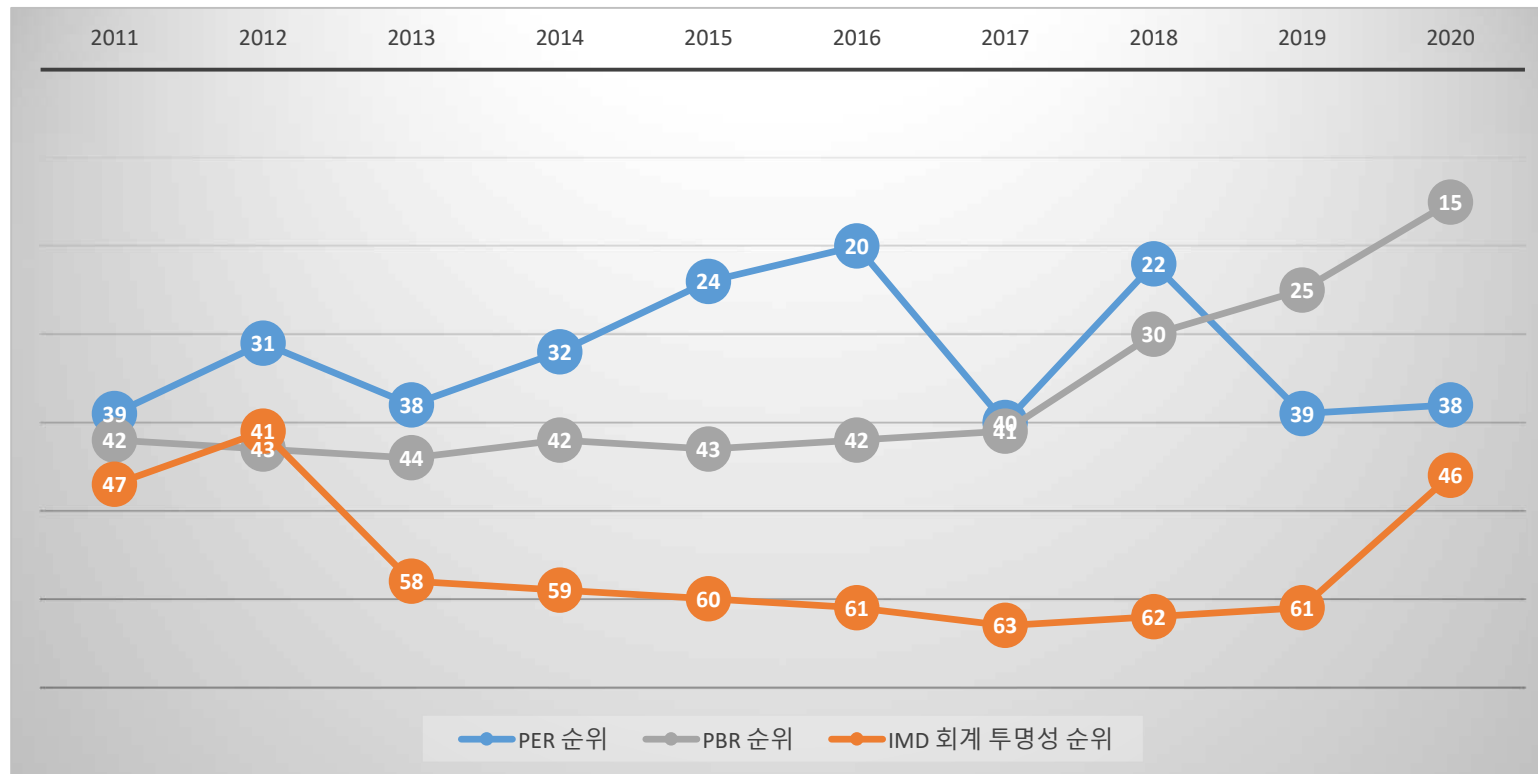
- 주가수익비율(PER) 및 주가순자산비율(PBR) 분석 이유
 - 주당이익(장부)에 대한 평가(주가)
 - 회계이익의 품질이 높다면, 긍정적 시장의 평가 → 주가상승
 - 따라서 높은 PER/PBR ⇒ 높은 회계신인도
- IMD 조사대상 국가 간 PER, PBR 평균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
 - 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이 회계신인도 우수하다고 평가

III. 실증분석

III-3. 실증결과: PER & PBR

(계속)

- 전체기간 PER 한국 평균수준 : 37위(IMD 64개국 중)
- 전체기간 PBR 한국 평균수준 : 42위(IMD 64개국 중)
- 한국의 PER, PBR 연도별 순위 변화: IMD 64개국 대상



III. 실증분석

III-3. 실증결과 :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
 - 회계시스템이 우수할수록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 완화
→ 외국인투자증가
-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KIS-VALUE 데이터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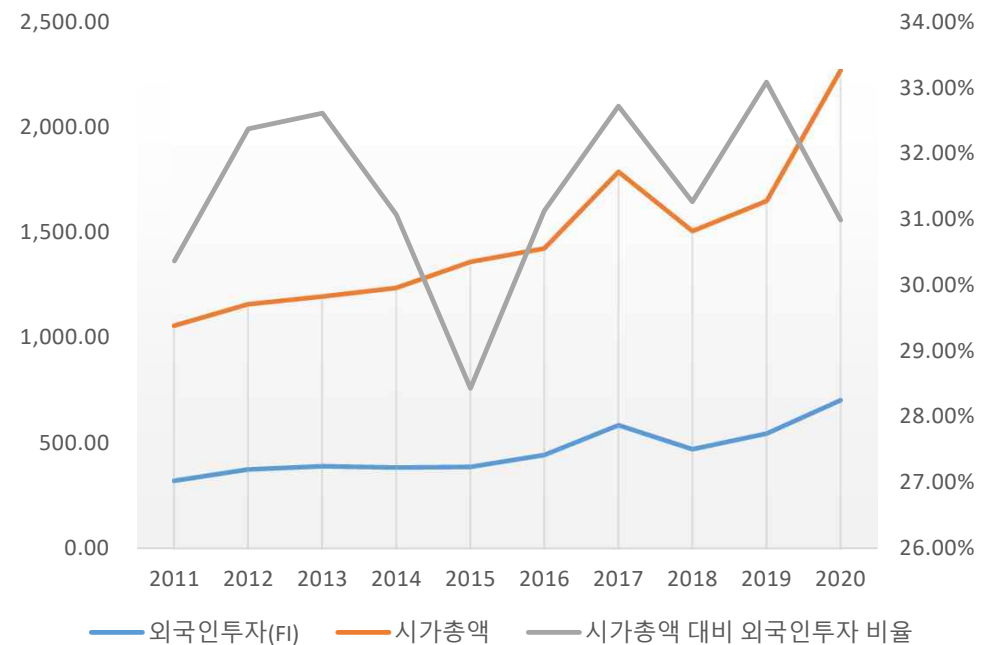
III. 실증분석

III-3. 실증결과 : 외국인투자

(계속)

- 유가증권상장기업+코스닥상장기업: 2011~2020, 투자금액 합계

Year	FI(조원)	시가총액(조원)	시가총액대비 외국인투자비율(%)
2011	320.66	1,055.92	30.37
2012	375.07	1,158.45	32.38
2013	389.43	1,194.04	32.61
2014	383.75	1,234.89	31.08
2015	386.12	1,358.16	28.43
2016	443.07	1,423.23	31.13
2017	584.70	1,786.65	32.73
2018	470.41	1,504.51	31.27
2019	545.40	1,648.08	33.09
2020	702.95	2,268.24	3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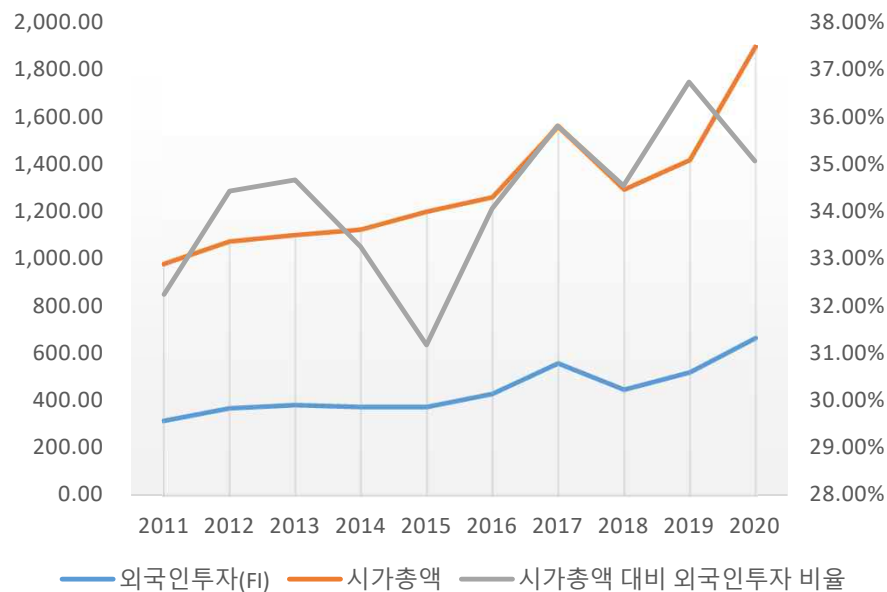
- 외국인투자, 시가총액 모두 증가추세
-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투자비율은 연도별 등락은 있지만, 큰 추세변화 없음

III. 실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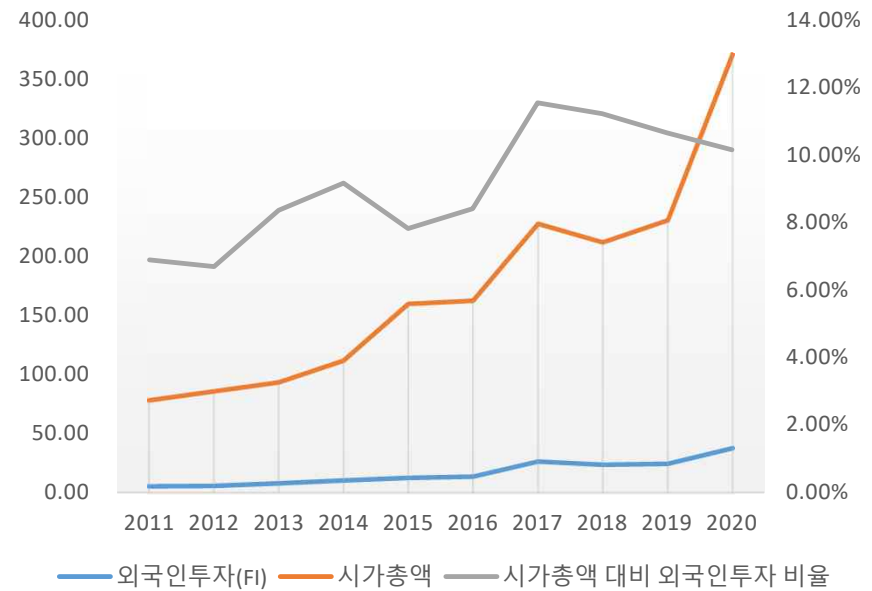
III-3. 실증결과 : 외국인투자

(계속)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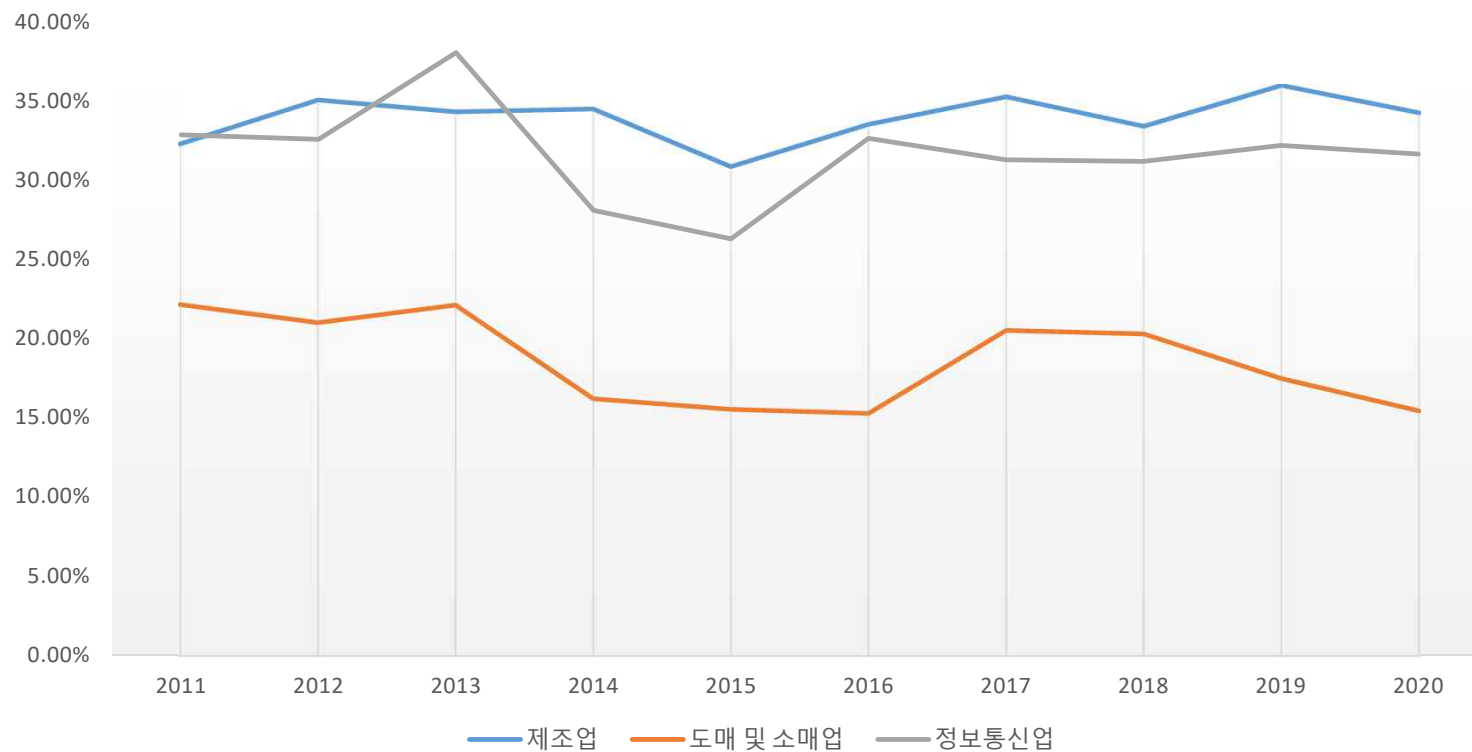


III. 실증분석

III-3. 실증결과 : 외국인투자

(계속)

- 업종별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투자비율



PART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 전문가인터뷰

IV-1. (1) 전문가인터뷰 개요

- 전문가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FGI) 개요
 - 인터뷰 일시 및 방식
 - 2021. 10. 1. ~ 2021. 10. 21.까지 약 3주간 전문가 선정 후 면담
 - 질문지 사전 송부 후 대면/비대면 인터뷰를 각 1시간~1.5시간 실시
 - 인터뷰 대상
 - 선정 : 회계신인도에 대한 회계실무의 다양한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4개 부문에 대한 전문가를 섭외 후 인터뷰를 실시
- * 4개 부문 – 기업, 외부감사인, 금융감독당국, 회계정보이용자 등 14곳, 30명 면담
- * 인터뷰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15년 이상의 회계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분야	대상기관	기관 수	대상인원
작성자(기업)	A사, B사, C사, D사 등 4개 회사	4	8
외부감사인	대형회계법인 2곳	2	7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당국	1	2
회계정보이용자	기준제정기구, 신용평가사, 협회, 증권회사 등 7곳	7	13
소계		14곳	30명

IV. 전문가인터뷰 및 설문조사

IV-1. (1) 전문가인터뷰 개요(계속)

- 인터뷰 내용
 - 인터뷰 대상자 별로 7개의 공통 세부질문을 실시
 - 우리나라의 회계신인도에 대한 평가
 - 회계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
 - 2017년 회계제도 개혁과 회계신인도
 - IFRS 도입이 회계신인도 개선에 미친 영향
 - 회계신인도의 시계열적 변화와 향후 전망
 - 향후 국내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
 - 기타 회계신인도와 관련한 의견

IV. 전문가인터뷰(계속)

IV-2. (1) 회계신인도에 대한 평가

- 평가 결과

- 전반적으로 국내 회계신인도는 “매우 높거나, 다소 높다”는 의견을 제시
 -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은 모두 국내 회계신인도가 매우 높다는 의견

- * 외감법 개정, IFRS 도입,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 등

- 회계신인도에 대한 인식 자체의 개선에 대하여 대부분 공감

- * IMD 등의 낮은 평가는 우리나라의 겸손문화, 높은 기대치에 따른 결과로 인식하고,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크게 의존하지 않음

- * 대형 회계스캔들 발생 빈도 감소, 중조치 제재비율 감소 등도 근거로 제시됨

답변자/구분	매우 높음	다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매우 낮음
작성기업	V V V V				
외부감사인		V V	V*		
감독당국		V	V*		
회계정보이용자	V V V	V V V		V	

- * FGI의 답변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 ‘참여 단체’를 하나의 답변으로 집계

- * 참여 단체 내에서 다른 답변이 제시된 경우에는 별개의 응답으로 제시(*)

IV. 전문가인터뷰(계속)

IV-2. (2) 회계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분야

- 재무제표 작성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책임 순으로 회신
 - 재무제표 작성기업의 책임
 - 회계정보 생산의 출발점인 기업의 책임이 크며, 규제를 비용 요소로만 인식
 -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회계관리 프로세스 미흡으로 새로운 이벤트 발생 시 기업의 대응능력이 낮음
 - 외부감사인의 책임
 - 전문가로서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업무를 종결하려는 자세가 미흡
 - 회계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직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많이 신뢰하는데 무엇인가 잘못된 경우에는 직전 프로세스인 감사인을 탓하기 쉬움

답변자/구분	작성기업 책임	외부감사인 책임	감독당국 책임	회계정보이용자 책임	기타 책임
작성기업			✓	✓	
외부감사인	✓				
감독당국	✓	✓	✓		
회계정보이용자	✓✓✓✓	✓✓✓		✓	✓

IV. 전문가인터뷰(계속)

IV-2. (3) 회계제도 개혁과 회계신인도

- (답변) 전체적으로 회계제도 개혁(2017년말)이 회계신인도 개선에 도움이 됨
 - 재무제표 작성기업은 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부담/피로도가 높음을 호소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로 인한 감사보고서 정정과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회계투명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
 - 표준감사시간제도는 감사보수만 증가시키고 감사효율성은 낮춘다고 생각
 - 다른 회계산업 당사자는 전체적으로 회계제도 개혁이 효과가 크다고 생각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도, 감사인 등록제 순

답변자/구분	회계신인도 개선에 도움	도움이 안됨(회의적)	잘 모르겠음
작성기업	✓✓	✓	
외부감사인	✓		
감독당국	✓		
회계정보이용자	✓✓✓✓✓✓✓		✓

답변자/구분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감사인등록제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인 선임
작성기업	✓			
외부감사인	✓	✓		
감독당국	✓	✓		
회계정보이용자	✓✓✓✓	✓✓✓	✓	✓

IV. 전문가인터뷰(계속)

IV-2. (4) IFRS 도입과 회계신인도

- (답변) 전체적으로는 IFRS 도입이 국내 회계신인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회신 받음. 다만 IFRS의 다양성으로 인한 혼란과 우려도 존재
 - IFRS가 갖고 있는 국제기준이라는 성격, 국가 간의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도입 자체만으로 우리나라의 회계신인도 증가와 관련된다는 의견이 다수
 - 다른 나라와 같은 언어를 쓴다는 signal 자체로서 큰 의미를 부여
 - 다만, 구체적 지침의 부족, 해석의 다양성, 기업과 감사인 간의 견해차이 등 실무상 어려움과 혼란에 대한 문제점 제기도 존재

답변자/구분	회계신인도 개선에 도움	도움이 안됨(회의적)	잘 모르겠음
작성기업	✓✓	✓	
외부감사인	✓		
감독당국	✓		
회계정보이용자	✓✓✓✓✓✓	✓	

IV. 전문가인터뷰(계속)

IV-2. (5) 회계신인도의 변화와 향후 전망

- 회계신인도의 변화 양상 및 예측
 - 전 당사자가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
 - “실무자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를 느낌(작성자)”
 - “체크리스트 등 요구사항 등 증가로 부담은 있으나 좋은 방향성(감사인)”
 - “신외감법의 영향으로 긍정적인 영향(감독당국)”
 -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다 만들어주던 시절이 존재.
지금은 주식, 현금흐름표까지 회사가 작성하고 감사인은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회계정보이용자)”
 - 회계신인도의 향후 전망도 긍정적인 예측이 다수임
 - 감사환경 개선을 주축으로 한 외감법 개정, 회계 외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신인도 개선, 기업 및 감사인의 결산/감사 정착화 등이 주된 이유
 - 다만, 바뀐 제도의 운영 미흡이나, 기업의 소극적 태도 변화를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함

IV. 전문가인터뷰(계속)

IV-2. (6)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한 중점추진방안

- 제도 및 기업지배구조의 신인도 향상이 다수이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회계 개혁법안 등 현행 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기업지배구조나 회계윤리, 회계교육을 강화할 필요
 - 이는 기업 등 특정 당사자만의 역할이 아닌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업이 필수
 - 정보의 1차 생산자인 기업 입장에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고 이것이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
 - 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회계정보가 기업가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이용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
- * 경영진이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비용보다는 투자로 인식하도록 제도 개선

답변자/구분	회계정보 자체의 신인도 향상	제도 및 기업지배구조의 신인도 향상	회계윤리의 신인도 향상	회계교육의 신인도 향상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작성기업			✓	✓	
외부감사인		✓		✓	
감독당국		✓	✓	✓	
회계정보이용자	✓✓	✓✓✓✓	✓		✓✓✓

IV. 전문가인터뷰(계속)

IV-2. (7) 회계신인도 관련 기타의견

- 업무처리 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
 - 지정제 확대에 따른 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문제의 보완책
 - 질의회신 사전 답변 확정사항에 대한 사후 처벌 시 경감 등
- 회계인력에 대한 투자 증대
 - 제도 개혁으로 기업의 회계인력의 부담이 증가
 - 회계분야 인력에 대한 투자 및 제도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기간 부여 필요
- 최고경영자의 회계업무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향상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임원 KPI 설정 등

IV. 설문조사

IV-3.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목적
: 회계신인도의 현황, 문제점 및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한 중점추진사항 회신
- 설문조사 개요
 - 설문대상 : 작성자(기업), 외부감사인, 금융감독당국, 회계정보이용자 및 학계
 - 설문기간 : 2021.10. 21. ~ 2021. 10. 24 회신 분까지 집계
 - 설문방식 : 구글 및 설문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
 - 설문내용 (총 8개의 공통적 질문사항을 5곳의 당사자에게 발송)
 -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현황, 회계투명성 파악의 원천
 - 회계투명성 개선 사유, 회계관련 제도 법규 현황 및 시행 감독 수준
 - 회계투명성 개선을 위한 분발 당사자 및 중점추진사항 등
- 설문대상자 별 회신현황 : 총 430부 회수/분석

구분	작성자	외부감사인	감독당국	이용자	학계	전체
회신 수	185	90	41	65	49	430

IV. 설문조사(계속)

IV-4. 설문조사 결과 – (1) 회계투명성 현황

- 회계투명성의 현황 질문 (질문 1)
 - “우리나라에서는 회계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고,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7점 척도)”
 - 1점 (전혀 아니다), 4점 (보통이다), 7점 (매우 그렇다)
- IMD 등의 평가 순위를 고려한 회계투명성 현황의 질문 (질문 2)
 - “다음 자료는 2019년 IMD에서 조사한 각국의 회계투명성 수준과 점수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의 적절성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느 수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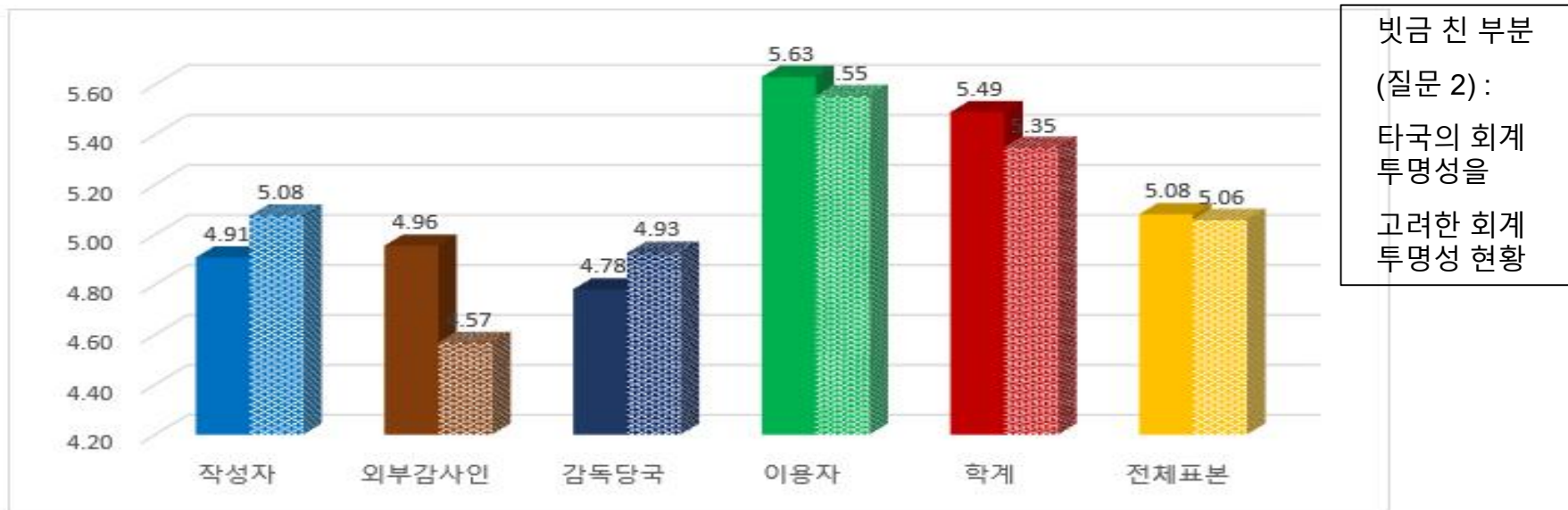
수준	국가(점수)
상	홍콩(84)
중	말레이시아(78), 카자흐스탄(73), 일본(71)
하	필리핀(69), 인도(65), 중국(58)

- 1점 (하, 낮은 수준), 4점 (중, 보통수준), 7점 (상, 높은 수준)

IV. 설문조사(계속)

IV-4. (1) 회계투명성 현황_질문 1,2

- 평가 결과(다소 높은 수준) : 평균 5.08점/7점, 타국 고려 시 5.06점/7점
 - 이재경 외(2016)의 5.32점보다 낮으나, 금융감독원(2020년, 4.42점)보다 높음
 - 이해관계자별로 회계투명성의 현황에 대한 회신 결과가 상이
 - 이용자>학계>외부감사인>작성자>감독당국 순으로 나타남
 - IMD 등의 회계투명성 고려 시 감소하였으나, 작성자와 감독당국은 상승
- * 이용자>학계>작성자>감독당국>외부감사인 순, 외부감사인이 가장 부정적인 피드백



IV. 설문조사(계속)

IV-4. (2) 회계투명성의 개선 사유_질문 3

- 평가 결과 : 외감법 등 회계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26%)이 회계투명성의 가장 큰 개선 사유로 회신
 - 다음으로는 기업의 회계업무 역량 향상(18%), 외부감사인의 감사능력 및 감사환경 개선(18%), IFRS의 도입(14%)이 회신
- 시사점 : 응답자들은 법규/제도 개선을 회계투명성 개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 중이며, 제도 개선에 따른 기업 및 감사인의 변화를 체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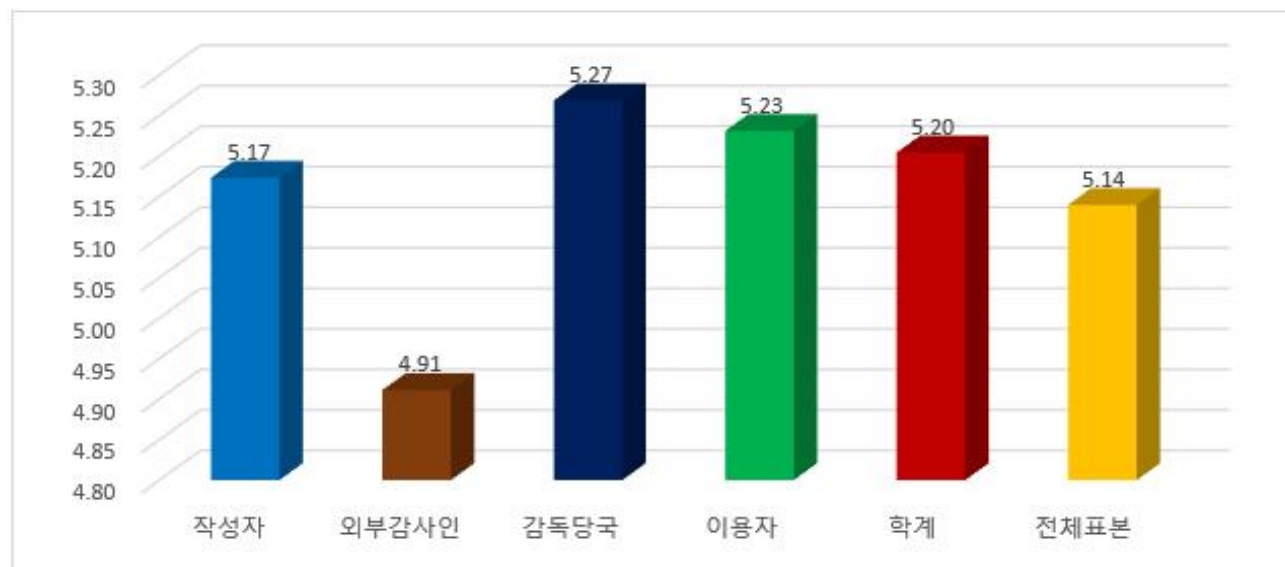
회계투명성 개선 사유	회신 수	비율(%)
회계기준 이외의 외감법 등 회계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	203	25.9%
기업의 회계업무 역량 향상	141	18.0%
외부감사인의 감사능력 및 감사환경 개선	141	18.0%
IFRS 도입	111	14.2%
회계정보이용자의 회계정보에 대한 이해 및 중요성 인식 제고	70	8.9%
회사 최고경영자의 윤리의식 및 기업지배구조의 적정성 개선	59	7.5%
감독기구의 회계감독 개선	36	4.6%
개선되고 있지 않음	22	2.8%
소계	783	100.0%

IV. 설문조사(계속)

IV-4. (3) 제도, 법규 현황 및 시행, 감독 수준_질문 4

- 평가 결과 : 전체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5.14점)
 - “우리나라의 회계와 관련한 제도 및 법규의 현황이나, 이에 대한 시행 및 감독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독당국이 가장 높은 점수(5.2점), 감사인이 가장 낮은 점수(4.9점)를 제시

구분	작성자	외부감사인	감독당국	이용자	학계	전체
회신 수	5.17	4.91	5.27	5.23	5.20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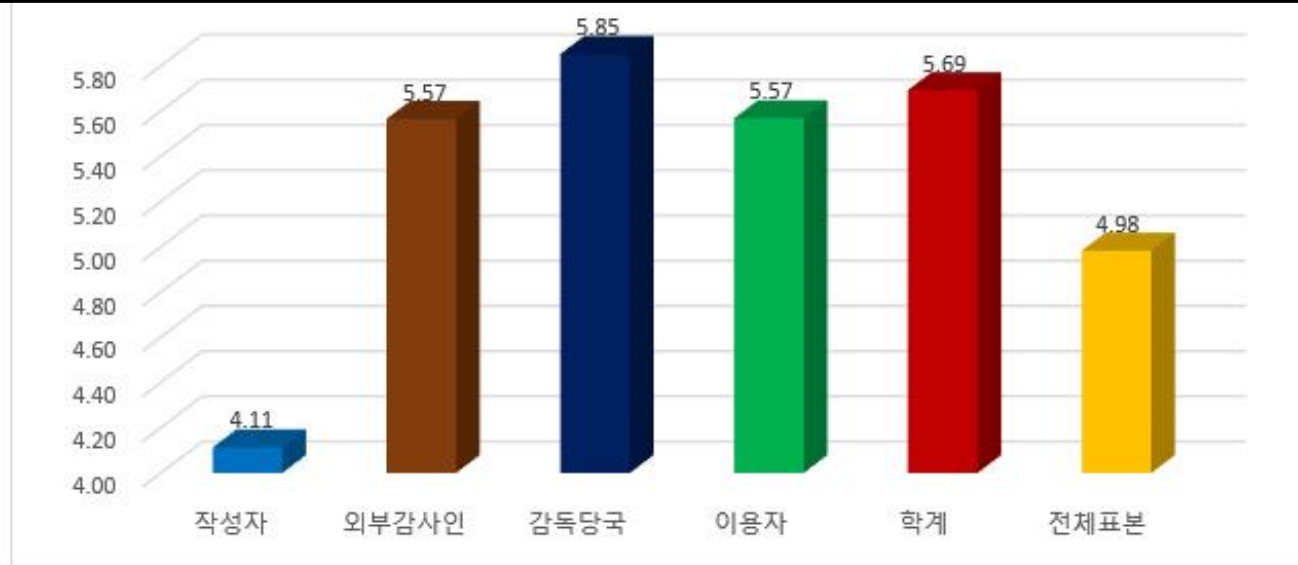


IV. 설문조사(계속)

IV-4. (4) 회계제도 개혁법안의 효과_질문 5

- 평가 결과 : 회계제도 개혁법안이 신인도 개선에 도움(4.98점)이 된다는 결과
 - 전혀 도움이 안된다(1점), 보통이다(4점), 매우 도움이 된다(7점) 기준
 - 재무제표 작성자인 기업은 평균 4.11점의 낮은 점수를 보임
 - 주기적 지정제도 등 작성기업의 개혁법안에 대한 부담과 피로도를 시사
- * 작성자 외의 파트는 높은 점수(5.5~5.8점)를 보였고, 감독당국이 최고점수를 보임

구분	작성자	외부감사인	감독당국	이용자	학계	전체
회신 수	4.11	5.57	5.85	5.57	5.69	4.98



IV. 설문조사(계속)

IV-4. (5) 회계투명성을 파악하기 위한 원천_질문 6

- 회계투명성 파악을 위한 원천

- 언론의 회계스캔들 등에 대한 보도(39.1%), 기업실무과정(24.7%), 금융감독당국의 보도자료(20.2%), 국제경쟁력 평가기관 결과(12.6%) 순
 -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의존 : 감사인(45%), 학계(42%), 감독당국(41%) 순
 - 기업실무과정을 통한 파악 : 이용자(35%), 작성자(31%), 감사인(22%) 순
 - 금융감독당국은 주로 자체 보도자료를 통한 파악이 22%로 나타남

* 기업실무과정을 통한 파악은 4%에 불과함

회계투명성 파악 원천	회신 수	비율(%)
언론보도내용(IMD, WEF 보도 제외)	168	39.1%
기업실무과정	106	24.7%
금융감독당국의 보도자료	87	20.2%
국제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54	12.6%
국내외 연구논문	13	3.0%
기타	2	0.5%
합계	430	100.0%

IV. 설문조사(계속)

IV-4. (6) 분발해야 될 당사자_질문 7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향후 분발해야 될 당사자 : 63%에서 “기업”을 제시
 - 직접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가장 높은 비율(78%)을 제시
 - 감사인이 특히 기존의 낮은 회계투명성을 기업에서 파악중인 것을 시사
- 재무제표 이용자 그룹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업, 감사인, 감독당국 및 이용자 등 회계생태계의 여러 당사자들이 모두 분발해야 함을 제시
- 재무제표 작성자는 상대적으로 감독당국을 주요 분발 당사자로 지목(20%)
 - 기존 감독당국의 규제 및 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작성자의 부담을 시사

책임/응답	작성자 비율	감사인 비율	감독당국 비율	이용자 비율	학계 비율	전체표본 비율
경영자 등 기업의 책임	114 62%	70 78%	26 63%	33 51%	30 61%	273 63%
외부감사인의 책임	25 14%	4 4%	10 24%	12 18%	8 16%	59 14%
감독당국의 책임	37 20%	8 9%	3 7%	9 14%	5 10%	62 14%
회계정보이용자의 책임	9 5%	5 6%	1 2%	8 12%	4 8%	27 6%
회계학계의 책임	- 0%	3 3%	1 2%	3 5%	2 4%	9 2%
합계	185 100%	90 100%	41 100%	65 100%	49 100%	430 100%

IV. 설문조사(계속)

IV-4. (7)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점추진방안_질문 8

- 향후 중점추진방안 : 주로 회사측의 개선방안을 제시
 - 최고경영자의 윤리의식/기업지배구조 개선(29%), 회계역량 향상(24%)
 - 분발해야 할 당사자로서 기업을 지목한 결과와 일관
- 기존 제도개혁법안의 실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의견(13%)도 제시
-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효과적 적용(10%)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점추진방안	회신 수	비율(%)
회사 최고경영자의 윤리의식 및 기업지배구조의 적정성 개선	128	29.8%
회사의 회계업무 역량 향상	104	24.2%
전반적인 회계제도 및 법규, 감독의 실효성 증대	56	13.0%
원칙중심 회계기준(K-IFRS)의 효과적인 적용	46	10.7%
회계투명성이 자본조달비용과 관련될 수 있는 금융체계로의 전환	24	5.6%
감독기구의 회계감독 개선	18	4.2%
외부감사인의 감사능력 향상	16	3.7%
기업경영진의 긍지를 높이고 긍정적 회계교육을 확대	16	3.7%
회계정보의 공시 등 전달의 용이성 향상	12	2.8%
기타	10	2.3%
합계	430	100.0%

PART

V

소결 및 정책제언

V. 소결 및 정책제언

V-1. (1) 문헌조사 결과 및 시사점

- 결과 요약

- 국제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는 최하위권에서 중하위권으로 회복 개선 중
 - 평가방식의 문제를 개선한 국내 회계투명성 조사(중상 수준)와는 큰 차이
- 해외 연구에 의한 국내 회계신인도 직간접 조사도 국내 연구보다 낮은 수준
 - 해외 연구는 데이터 및 연구방법론 상의 문제점 존재
 - 국내 연구 및 기관(금융감독원 등)의 회계투명성 조사 결과는 중상 수준
- 회계신인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노력이 진행됨

- 시사점

- 국내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
 - 국제 경쟁력 평가기관의 평가방식 확인 및 개선 요구
 - 최근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회계투명성 측정연구의 국내외 발표 등
- 국내 회계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시정노력이 필요
 - 회계신인도 개선노력에 대한 홍보, 경영진의 부정적 회계인식 전환 등

V. 소결 및 정책제언

V-1. (2)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 결과 요약
 - 재량적 발생액 및 재량적 발생액의 변동성은 중위권
 - 국가경쟁력 순위 및 선행연구의 결과(하위권) 차이
 - 비교적 낮은 PER/PBR
 -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선입견 가능성
 -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추세
- 시사점
 - 회계신인도 관련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
 - 표본기간, 국가 등 조건에 따른 결과의 민감도
 -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 유도
 - 최신 자료를 이용한 회계신인도 연구 결과를 국내외 적극적으로 공유

V. 소결 및 정책제언

V-1. (3) 전문가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 주요 인터뷰 결과
 -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높거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개선되고 있음
 - IFRS의 국제적 정합성, 비교가능성 등 특징으로 국내 회계신인도 개선에 도움
 - 2017년 회계제도 개혁법안은 국내 회계신인도 개선에 도움
 - 더욱 분발해야 할 당사자는 1차적으로 정보생산자인 기업, 검증자인 감사인 순
 - 중점 추진방안으로는 “제도 및 기업지배구조의 신인도 향상”이 중요
- 시사점
 - 다양성을 중시하는 IFRS 특유의 불확실성 문제에 대한 우려해소 필요
 - 전임 및 당기 감사인, 감독당국 간의 의견불일치 등에 대한 비효율 개선 필요
 - 회계제도 개혁법안의 지속적 유지와 세부제도의 Fine Tuning
 - 업종별 표준감사시간 조정, 지정제 확대에 따른 감사인간 의견차이 조정 등
 -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 인력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관심 유지가 중요
 - 회계정보의 환경적 요소로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실효성 강화

V. 소결 및 정책제언

V-1. (4)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설문 결과

-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다소 높고, 개선되고 있다는 회신
 - 회계제도 개혁법안, 기업의 회계 역량 개선, 감사환경 개선 등의 영향
- 제도 법규의 설계와 감독 시행 수준도 다소 높다는 결과
- 회계제도 개혁법안은 회계신인도 개선에 도움이 되나 기업은 큰 피로도를 보임
- 분발 당사자는 기업이 다수이나, 정보이용자는 상대적으로 모든 참여자를 지목
- 중점 추진방안으로는 “최고경영자의 윤리의식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제시

- 시사점

- 기업을 중심으로 한 회계역량 향상 및 회계제도 개혁의 실효성 확대가 중요
 - 기업의 개혁법안에 대한 비용 및 피로도를 고려하여 점진적 개선 필요
- 기업지배구조, 회계윤리 및 회계교육에 대한 고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야
- 언론의 부정적인 회계스캔들 보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고려할 필요